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8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마르크스 『자본론』

손 철 성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8호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 마르크스 『자본론』

손 철 성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이태수  
심재룡  
김남두  
김영정  
허남진  
윤선구(주간)

## 발간사

2002년 8월부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아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전임연구팀이 수행하고 있는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 1차 년도 연구 결실을 지난해에 『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전14호로 묶어낸 데 이어, 이제 제2차 년도 연구결과 총서를 별책 제3권으로 엮어 내며, 아울러 제2권 몇몇 호의 보정판을 함께 폐낸다.

박사 전임연구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연구팀은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 주요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근간 개념들과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설해 나가는 한편, 철학 지식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작업의 일차적 성과물로서 이 연구 총서를 폐냄과 아울러, 이것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서양어 또는 한문으로 쓰여진 철학 고전의 텍스트들을 한국어 표준 판본이 확보되는 대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상식인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각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작업은 오늘날의 지식 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팀은 장시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중요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 연구가가 나누어 맡아, 우선 각자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하고 이어서 저작의 골격을 이루

는 중심 개념들과 연관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위계도를 만든 후,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의 의미를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써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기획 사업은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우선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는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교류를 증진시켜 사람들 사이의 이해를 높이고, 한국 사회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4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센터장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연구책임자

백 종 현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8호

# 마르크스 『자본론』

손 철 성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 머 리 말

첨단의 디지털 시대에 『자본론』을 읽고 분석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본론』은 산업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정보가 주도하는 현재의 정보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정보화 시대도 넓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기술과 정보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고, 마르크스가 제기했던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들도 잔존하기 때문에 『자본론』의 기본적 관점은 오늘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설사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는 『자본론』의 기본적 관점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본론』은 19, 20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즉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서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실천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사상들 중의 하나였다. 마르크스주의는 인문학이나 사회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론적 자양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 혁명을 비롯한 여러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소련 및 동부 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타당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으며,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회의적 시각도 확산되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주의 국

가들의 붕괴를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라는 이러한 사태는 마르크스주의에 큰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적 힘은 매우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 사회 이론이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마주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철학, 경제학, 사회주의 이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인간 및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론, 소외론, 역사적 유물론, 자본론 등은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틀로서 여전히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이론적 분야들 중에서 경제학 분야, 특히 자본주의 경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작이 바로 『자본론』이다. 『자본론』은 마르크스가 장기간의 구상과 연구를 바탕으로 1860년대 초반부터 1880년대 초반까지 집필하였던 방대한 저술로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이 저작에서 ‘자본의 생산과정’, ‘자본의 유통과정’, ‘자본의 총과정’ 등을 차례로 분석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동하며 또한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 작업은 이러한 『자본론』에 나오는 주요 개념이나 토픽등, 즉 ‘상품’, ‘노동’, ‘잉여가치’, ‘자본’, ‘이윤’ 등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 개념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토픽 맵’(Topic Map)의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도 병행하였다.

‘토픽 맵’을 구축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는 철학 텍스트에 나오는 주요 개념의 의미와 그 개념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을 통해 철학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작업이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시간적 한계와 계으름 등으로 인해서 텍스트를 좀더 충실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아무쪼록 이러한 작업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비록 이 작업에 많은 시간과 땀을 쏟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부담 때문에 이번 봄에도 꽃구경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함께 고생하신 공동 연구원 여러분들, 연구 책임자로서 작업을 독려해 주신 백종현 교수님,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배한동, 문성학, 이영경 교수님, 그리고 말벗이 되어준 김용수, 김영하 교수님, 나에 대한 든든한 후원자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04년 6월 10일  
큰 언덕에서 손 철 성

# 목 차

<b>제1부 『자본론』의 저자 및 작품 해제</b> .....	1
I. 마르크스의 생애와 대표 저작 .....	1
II. 『자본론』의 구성 .....	8
III. 『자본론』의 목차 .....	13
<b>제2부 지식 지도</b> .....	27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27
○ 철학 문헌: 『자본론』 .....	27
○ 철학자: 마르크스 .....	28
○ 철학 용어: 상품 (3부 I장) .....	29
○ 철학 용어: 노동 (3부 II장) .....	30
○ 철학 용어: 잉여가치 (3부 III장) .....	31
○ 철학 용어: 자본 (3부 IV장) .....	32
○ 철학 용어: 이윤 (3부 V장) .....	33
II. 『자본론』의 지식 지도 .....	34
1. 상품 .....	34
2. 노동 .....	35
3. 잉여가치 .....	36

4. 자본 .....	38
5. 이윤 .....	41
<b>제3부 『자본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b>	<b>43</b>
1. 상품 .....	43
1.1. ‘상품’ 개념 .....	43
1.1.1.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상품 .....	43
1.1.2. ‘상품’ 개념 .....	44
1.1.3. 노동 생산물의 상품으로 전환 .....	44
1.2. 상품의 두 요소 .....	45
1.2.1. 사용가치 .....	45
1.2.2. 교환가치(가치) .....	46
1.2.2.1. 교환가치(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 .....	46
1.2.2.2. 가치량의 계산 방법 :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	47
1.2.2.3. 가치와 노동 생산성의 반비례 관계 .....	48
1.2.2.4. 사용가치와 가치의 결합체로서 상품 .....	49
1.3. 상품에 투입된 노동의 이중성 .....	50
1.3.1. 구체적 유용 노동 .....	50
1.3.2. 추상적 인간 노동 .....	51
1.3.3. 노동의 이중성과 가치의 상호 관계 .....	52
1.4.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 .....	52
1.4.1. 상품의 형태 :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 .....	53

1.4.2.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가치 .....	53
1.4.3.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 .....	54
1.4.3.1. 단순한 가치 형태 .....	55
1.4.3.2. 전개된 가치 형태 .....	56
1.4.3.3. 일반적 가치 형태 .....	56
1.4.3.4. 화폐 형태 .....	57
1.5. 화폐의 기능 .....	58
1.5.1. 가치 척도의 기능 .....	58
1.5.1.1. ‘가치 척도’가 가능한 이유 .....	59
1.5.1.2. 가치와 가격의 차이 .....	60
1.5.2. 유통 수단 .....	61
1.5.1.1. 교환 과정에서 상품의 형태 변환 (상품의 유통) .....	61
1.5.2.2. 유통 수단 .....	61
1.5.2.3. 유통 화폐량의 계산 .....	62
1.5.3. 축장(퇴장) 기능 .....	63
1.5.4. 지불 수단 .....	64
1.5.4.1.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에 내재하는 모순 화폐 공황의 문제 .....	64
1.6. 화폐의 종류 .....	65
1.6.1. 금과 금 주화 .....	65
1.6.2. 금이 아닌 금속 주화 .....	66
1.6.3. 지폐 .....	67
1.6.4. 신용 화폐 .....	67

1.7.	상품의 물신적 성격 .....	68
1.7.1.	상품의 물신적 성격의 발생 원인 .....	69
1.7.2.	화폐의 물신적 성격 .....	70
1.8.	상품에 내재하는 모순 .....	70
2.	노동 .....	71
2.1.	‘노동’ 개념 .....	71
2.1.1.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으로서 노동 .....	72
2.1.2.	합목적적 활동으로서 노동 .....	73
2.1.3.	욕구 충족의 활동으로서 노동 .....	73
2.1.4.	보편적 삶의 활동으로서 노동 .....	74
2.2.	노동 과정의 요소들 .....	75
2.2.1.	노동(노동력) .....	75
2.2.2.	생산 수단 .....	76
2.2.2.1.	노동 대상 .....	76
2.2.2.1.1.	천연적 노동 대상 .....	77
2.2.2.1.2.	가공된 노동 대상 .....	77
2.2.2.2.	노동 수단 .....	78
2.2.2.3.	노동 수단의 중요성 .....	79
2.2.2.3.1.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서 인간 .....	79
2.2.2.3.2.	사회 발전에서 노동 수단의 중요성 .....	79
3.	잉여가치 .....	80

3.1. 잉여가치의 형성 과정 .....	80
3.1.1.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	80
3.1.2. ‘잉여가치’ 개념 .....	81
3.1.3.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 .....	82
3.1.4. 자본가의 목적으로서 잉여가치 .....	83
3.1.5.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	83
3.1.5.1. ‘노동력’ 개념 .....	84
3.1.5.2. 노동력의 가치 .....	84
3.1.5.3. 특수한 상품으로서 노동력 .....	85
3.1.5.4.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	86
3.1.5.5. 노동 가치설 .....	86
3.2. 잉여가치율 .....	87
3.2.1. 잉여가치와 관련한 자본의 구분 .....	87
3.2.1.1. 불변 자본 .....	87
3.2.1.2. 가변 자본 .....	88
3.2.2. 상품의 가치량 .....	89
3.2.3. 잉여가치율 자본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	89
3.2.4. 잉여가치와 관련한 노동의 구분 .....	90
3.2.4.1. 필요 노동 .....	90
3.2.4.2. 잉여노동 .....	91
3.2.5. 잉여가치율 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	92

3.2.6. ‘착취도’로서 잉여가치율	93
3.2.7.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차이점	94
3.2.8. 잉여생산률	94
 3.3. 잉여가치의 종류	95
3.3.1. 절대적 잉여가치	95
3.3.1.1.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	95
3.3.1.2. 노동일(노동 시간)	96
3.3.1.3. 노동일의 가변성	97
3.3.1.4. 노동일의 한계	97
3.3.1.5. 자본가의 노동일의 확대 욕구	98
3.3.1.5.1. 노동일의 표준화를 둘러싼 투쟁	99
3.3.1.5.2. 지배 계급의 일반적인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	99
3.3.1.5.3. ‘공장법’의 위반을 통한 노동 시간의 연장	100
3.3.1.5.4. ‘공장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101
3.3.1.5.5. 주간과 야간 노동의 교대제	102
3.3.1.5.6.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103
3.3.1.6.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률들	103
3.3.1.6.1.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	104
3.3.1.6.2.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	104
3.3.1.6.3. 노동 시간과 계급 투쟁	105
3.3.1.7. 잉여가치량의 법칙	106
3.3.1.7.1. 잉여가치량의 제1법칙	106

3.3.1.7.2. 잉여가치량의 제2법칙 .....	106
3.3.1.7.3. 잉여가치량의 제3법칙 .....	107
3.3.1.8. 화폐 소유자의 자본가로 전환 조건 .....	108
3.3.1.9. 잉여가치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소외 .....	109
3.3.2. 상대적 잉여가치 .....	109
3.3.2.1. ‘상대적 잉여가치’ 개념 .....	109
3.3.2.2.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 .....	111
3.3.2.2.1. ‘노동 생산성’의 향상 .....	111
3.3.2.2.1.1. ‘노동 생산성의 상승’ 개념 .....	111
3.3.2.2.2. 특별 잉여가치 .....	112
3.3.2.3.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의 욕구 .....	113
3.3.2.4. 생산 방식의 발달 형태 .....	114
3.3.2.4.1. 협업 .....	114
3.3.2.4.1.1. ‘협업’ 개념 .....	114
3.3.2.4.1.2.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로서 협업 .....	115
3.3.2.4.1.2.1. 협업에서 자본가의 지휘와 통제 역할 .....	116
3.3.2.4.1.3. 협업의 효과 .....	117
3.3.2.4.1.3.1. 새로운 집단적 힘의 창출 .....	117
3.3.2.4.1.3.2. 생산 규모의 확대와 공간의 효율적 사용 .....	118
3.3.2.4.1.3.3. 노동 생산성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	118
3.3.2.4.2.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분업에 의거한 협업 .....	119
3.3.2.4.2.1. ‘매뉴팩처’ 개념 .....	119
3.3.2.4.2.2. 매뉴팩처의 발생 과정 .....	120

3.3.2.4.2.2.1. 다양한 독립적 수공업자들의 결합 방식	120
3.3.2.4.2.2.2. 같은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 방식	121
3.3.2.4.2.3. 매뉴팩처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 요인	121
3.3.2.4.2.3.1. 부분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122
3.3.2.4.2.3.2. 노동 도구의 세분화	122
3.3.2.4.2.4. 매뉴팩처의 두 가지 형태	123
3.3.2.4.2.4.1. 이질적 매뉴팩처	123
3.3.2.4.2.4.2. 유기적 매뉴팩처	124
3.3.2.4.2.5. 매뉴팩처에서 숙련공과 미숙련공의 분리	125
3.3.2.4.2.6. 분업의 구분	125
3.3.2.4.2.6.1. 사회적 분업	126
3.3.2.4.2.6.2. 작업장 안의 분업	126
3.3.2.4.2.6.3.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의 차이점	127
3.3.2.4.2.7. 매뉴팩처에서 노동 소외	128
3.3.2.4.3. 기계제 대공업	129
3.3.2.4.3.1. 기계를 통한 임여가치의 증식	129
3.3.2.4.3.2. ‘기계’ 개념	130
3.3.2.4.3.2.1. 기계의 구성 부분	131
3.3.2.4.3.3. 기계제 생산 방식의 특징	132
3.3.2.4.3.3.1. 기계 도입의 한계 기준	132
3.3.2.4.3.4.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33
3.3.2.4.3.4.1. 여성과 아동의 고용 확대	133
3.3.2.4.3.4.2. 노동 시간의 연장	134

3.3.2.4.3.4.3. 노동 강도의 강화 .....	135
3.3.2.4.3.5. 기계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	135
3.3.2.4.3.6. 기계제 대공업의 문제점 .....	136
3.3.2.4.3.6.1. 기계제 대공업에서 노동 소외 .....	136
3.3.2.4.3.6.2. 기계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	137
3.3.2.4.3.6.3.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	138
3.3.2.4.3.6.4. 기계제 대공업으로 인한 매뉴팩처의 붕괴 .....	139
3.3.2.4.3.7. 기계의 양면성 .....	139
4. 자본 .....	140
4.1 자본의 형성 과정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	140
4.1.1. 자본 형성의 역사적 조건 .....	140
4.1.2. 자본과 화폐의 차이점 .....	141
4.1.3. ‘자본’ 개념 .....	142
4.1.4.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 .....	143
4.1.5. 자본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로서 자본가 .....	144
4.2. 자본의 축적 과정 .....	144
4.2.1. 자본의 재생산 과정 .....	145
4.2.1.1. 단순 재생산 .....	145
4.2.1.1.1. 생산 관계의 재생산 .....	146
4.2.1.2. 확대 재생산 .....	147
4.2.1.2.1. ‘자본 축적’ 개념 .....	147

4.2.1.2.2. ‘확대 재생산’ 과정 .....	147
4.2.1.2.3. 경쟁으로 인한 확대 재생산의 강화 .....	148
4.2.1.2.4. 확대 재생산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 .....	149
4.2.1.2.4.1. 잉여가치의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 비율 .....	149
4.2.1.2.4.2. 노동력의 착취도 .....	150
4.2.1.2.4.3. 노동 생산성 .....	150
4.2.1.2.4.4.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의 차액 .....	151
4.2.1.2.4.5. 투하 자본의 크기 .....	152
4.2.2. 자본 축적이 노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 .....	152
4.2.2.1.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 증가 .....	153
4.2.2.2. 자본 축적으로 인한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 .....	153
4.2.2.3. 상대적 과잉 인구의 발생 .....	154
4.2.2.3.1. 상대적 과잉 인구로서 산업 예비군 .....	155
4.2.2.3.2.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 형태 .....	155
4.2.3. 자본의 시초 축적 .....	156
4.2.3.1. 자본의 ‘시초 축적’ 개념 .....	156
4.2.3.2. 자본의 시초 축적의 조건으로서 자본 관계 .....	157
4.2.3.3. 시초 축적의 과정들 .....	158
4.2.3.3.1.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 .....	158
4.2.3.3.2.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이 미친 영향 .....	159
4.2.3.3.3.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들 .....	159
4.2.3.3.4.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 .....	160

4.2.3.3.5.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 .....	161
4.2.3.3.6. 산업 자본가의 발생 .....	161
4.2.3.3.7. 대자본가의 형성 .....	162
4.2.3.3.8. 대자본의 문제점 .....	163
4.3. 자본의 유통 과정 .....	163
4.3.1. 자본의 순환 .....	164
4.3.1.1. ‘화폐 자본의 순환’ .....	164
4.3.1.1.1. ‘화폐 자본의 순환’ 개념 .....	164
4.3.1.1.2. 화폐 자본의 순환 제1단계 .....	165
4.3.1.1.3. 화폐 자본의 순환 제2단계 .....	165
4.3.1.1.4. 화폐 자본의 순환 제3단계 .....	166
4.3.1.2. 생산 자본의 순환 .....	166
4.3.1.3. 상품 자본의 순환 .....	167
4.3.2. 자본의 회전 .....	168
4.3.2.1. ‘자본의 회전’ 개념 .....	168
4.3.2.2. 자본의 회전수 .....	169
4.3.2.3. 자본의 회전과 관련된 자본의 형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	170
4.3.2.3.1. 고정 자본 .....	170
4.3.2.3.2. 유동 자본 .....	170
4.3.2.3.3.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회전 기간의 차이 .....	171
4.3.2.4. 자본의 회전 기간의 구성 부분 .....	172
4.3.2.4.1. 노동 기간 .....	172

4.3.2.4.2. 생산 기간 .....	173
4.3.2.4.3. 유통 기간 .....	174
4.3.2.5. 자본의 회전 기간과 잉여가치량의 관계 .....	174
4.4.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 .....	175
4.4.1. ‘사회적 총자본’ 개념 .....	175
4.4.2.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	176
5. 이윤 .....	177
5.1. ‘이윤’ 개념 .....	177
5.1.1. 이윤 형태의 신비성 .....	177
5.2. 이윤율 .....	178
5.2.1. ‘이윤율’ 개념 .....	178
5.2.2.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	179
5.2.3.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80
5.2.3.1. 자본의 회전 기간 .....	180
5.2.3.2. 불변 자본의 효과적 사용 .....	180
5.3. 평균 이윤율 .....	181
5.3.1. ‘평균 이윤율’ 개념 .....	181
5.3.2. 경쟁에 의한 평균 이윤율의 형성 .....	182
5.3.3. 평균 이윤율의 규정 요인 .....	183
5.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 .....	183
5.4.1.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 개념 .....	184
5.4.2. 자본 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	184

5.4.3.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잉여가치량의 관계 .....	185
5.4.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	186
5.4.4.1. 노동 착취도의 증대 .....	186
5.4.4.2.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 .....	187
5.4.4.3.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	188
5.4.4.4. 상대적 과잉 인구 .....	188
5.4.4.5. 대외 무역 .....	189
5.5. 이윤율의 저하와 관련된 자본주의의 모순 .....	190
5.5.1. 이윤율의 저하에 따른 문제들 .....	190
5.5.2.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	191
5.5.3. 잉여가치의 생산 조건과 실현 조건의 모순 .....	191
5.5.4.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황의 발생 .....	192
5.6. 이윤의 분할 .....	193
5.6.1. 산업 자본의 이윤 .....	193
5.6.2. 상업 이윤 .....	194
5.6.2.1. 상업 자본의 평균 이윤율 .....	195
5.6.3. 이자 .....	196
5.6.4. 지대 .....	196
<b>참고문헌 .....</b>	<b>198</b>

## 일·러·두·기

이 책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론』 제1권, 제2권, 제3권의 독일어 판본과 한국어 판본은 아래와 같으며, 책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독일어 판본과 한국어 판본의 인용 쪽수를 ‘ / ’ 부호의 앞과 뒤에 나란히 표기하였다.

### [ 독일어 판본 ]

- Marx, K., *Das Kapital I*, Marx Engels Werke[MEW] 23, Dietz Verlag, Berlin, 1985.  
\_\_\_\_\_, *Das Kapital II*, Marx Engels Werke[MEW] 24, Dietz Verlag, 1985.  
\_\_\_\_\_, *Das Kapital III*, Marx Engels Werke[MEW] 25, Dietz Verlag, 1985.

### [ 한국어 판본 ]

- Marx, K. 『자본론 제1권(상)』(제2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_\_\_\_\_, 『자본론 제1권(하)』(제2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1.  
\_\_\_\_\_, 『자본론 제2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_\_\_\_\_, 『자본론 제3권(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_\_\_\_\_, 『자본론 제3권(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 제1부 『자본론』의 저자 및 작품 해제

### I. 마르크스의 생애와 대표 저작

마르크스(Marx, Karl Heinrich, 1818. 5. 5. ~ 1883. 3. 14.)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백여 년 동안 사상적, 실천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상들 중의 하나는 마르크스주의였으며,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은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적 동반자인 엥겔스였다. 마르크스에게는 수많은 찬사와 함께 비난도 쏟아졌는데, 『철학대사전』에서는 마르크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그의 업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혁명가이며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 엥겔스와 함께 그는 그의 이름을 딴 마르크스주의 철학, 즉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창조했으며, 노동자 계급의 정치 경제학과 과학적 공산주의를 확립했다. 그의 철학은 인류의 철학 사상과 사회 이론적 사상에서 하나의 혁명을 이룩했다. 마르크스는 독일 노동 운동과 국제 노동 운동의 교사이자 지도자가 되었으며, 한 세대 전체에 걸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들을 교육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346쪽)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철학 이론 즉,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체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운동 방식과 그 문제점을 규명하는 정치경제학 이론,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방법과 관련된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마르크스주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 운동이나 사회 변혁 운동과 같은 실천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혁명가이기도 하였다.

1818년 5월 5일 마르크스는 독일의 트리에(Trier)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원래 유태교를 믿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하인리히 마르크스(Heinrich Marx)는 유태인에 대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개신교로 개종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는데, 사상적으로는 이성을 힘을 신뢰하는 계몽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였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중산층 집안에서 유복하면서도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트리에의 김나지움(Gymnasium)에서 고전 문학 및 계몽주의를 공부하였으며, 1835년에는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본(Bonn) 대학에 입학하였다. 마르크스는 이 당시에 고향 트리에에서 자신보다 네 살이 많은 예니(Jenny von Westphalen)와 사랑에 빠져 약혼까지 하였지만,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1843년에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1836년에 마르크스는 본 대학에서 베를린(Berlin) 대학의 법학부로 옮겨 갔지만 법학보다는 철학과 역사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특히 그 당시에 독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헤겔(Hegel) 및 헤겔 학파의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청년헤겔학파가 주도하는 클럽에도 가입하였다. 철학 공부를 계속하던 그는 1841년 예나(Jena) 대학의 철학부에서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헤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관념론에 대한 비판의 측면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프로이센(Preußen) 정부는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청년헤겔학파를 탄압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르크스는 대학에 남아서 계속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841년에 트리에로 돌아온 마르크스는 정치 신문인 「라인 신문」의 일에 몰두하였고 1842년에는 이 신문의 편집장이 되었다. 이때 마르크스는 공화제와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는 급진적 자유민주주

의 입장에 서 있었지만, 점차 공산주의와 철학적 유물론의 입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는 나중에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이른바 물질적 이해 관계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곤혹스러움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부터 마르크스는 순수한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물질적 이해 관계와 같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1843년에 『라인 신문』이 프로이센 정부에 의해서 폐간되자 마르크스는 아내와 함께 파리(Paris)로 이주하였다. 마르크스는 거기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모습과 함께 노동자들의 빈곤한 삶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거기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공산주의 조직과도 접촉하면서 조직적인 노동자 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1844년에 루게(Ruge)와 함께 발행한 『독불 연보』라는 잡지에 기고한 두 편의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를 타파하는 혁명만이 인간 해방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또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서는 독일의 부르주아 계급은 혁명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보편적 인간 해방을 위한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의 사상이 급진적 민주주의에서 혁명적 공산주의로 이행했음을 보여 준다.)

1844년 마르크스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 리카아도(Ricardo) 등의 경제학 저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이들을 비판하는 『경제학 철학 수고』를 썼다. 흔히 『경철 수고』라고 불리는 이 책은 초고의 형태로 보관되다가 1932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비록 해겔 철학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론 및 소외론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을 ‘유적 존재’(Gattungswesen)로, 즉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의해서 왜곡되고 억압됨으로써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됨으로써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주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론이나 소외론의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844년 마르크스는 파리에서 엥겔스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에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사상적 동반자가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최초의 공동 작업으로 같은 해에 『신성 가족』을 썼는데, 이것은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를 비롯한 청년해겔학파의 관념론적 견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845년에 마르크스는 프랑스의 파리에서 추방당하여 브뤼셀(Brüssel)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으며 여기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였다. 마르크스는 11개의 테제로 이루어진 『포이에르 바하에 대한 테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포이에르바하(Feuerbach)의 인간학적 유물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천적 유물론을 옹호하였다. 그는 널리 알려진 11번째 테제에서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변혁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845년에서 1846년에 걸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동으로 역사적 유물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독일 이데올로기』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독일 이데올로기’ 즉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념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기존의 독일 철학이나 사상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포이에르바하를 비롯한 브루노 바우어(Bruno Bauer), 막스 슈티르너(Max Stirner)와 같은 청년헤겔학파의 관념론적 견해를 비판하였으며 또한 칼 그륀(Karl Grün)이나 게오르그 쿨만(Georg Kuhlman)과 같은 이론가들이 내세우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물질적인 생산 활동을 토대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며 나아가 이러한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체가 되는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인 단계로 성숙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책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그 동안 원고의 형태로 보관되다가 1932년에 소련에서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1847년에 마르크스는 『철학의 빙곤』이라는 책을 통해 프루동(Proudhon)의 사회주의 이론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거부하는 소시민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당시에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실천적인 정치 활동에도 직접적으로 뛰어들어 사회주의자들의 비밀 단체인 ‘의인 동맹’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1847년에는 이 단체를 공개적 혁명 조직인 ‘공산주의자 동맹’으로 바꾸었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단체의 강령을 밝히는 선언문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는 널리 알려진 문구로 끝을 맺고 있는 이 책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에 대한 분석과 함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를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읽히는 공산주의 문헌이 되었다.

1848년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에서 왕정에 대항하여 공화정을 세우려는 혁명이 일어나자 마르크스는 독일로 되돌아가서 「신라인 신문」을 통해 급진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혁명의 소식을 전달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1849년 혁명이 실패한 후에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추방되었으며, 그 후에 파리를 거쳐 영국의 런던(London)으로 가서 사망할 때까지 거기에 거주하였다. 1850년부터 1852년까지 마르크스는 이 혁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1848년에서 1850년 사이의 프랑스 계급 투쟁』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1848년 파리 노동자들의 봉기가 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분쇄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부르주아지와 봉건 세력 사이의 투쟁보다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투쟁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혁명의 과도적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1850년대에 마르크스는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드나들면서 경제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탐독하였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치 경제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수많은 경제학 저서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발췌하거나 정리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초고를 쓴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세밀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결국 마르크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계획하였던 ‘경제학’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몇 권의 경제학 책을 출판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분량의 원고를 남겼다. 1850년대와 1860년대에 걸쳐서 마르크스는 엥겔스로부터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커다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경제학 연구에 더욱 정진하였다.

1857년에서 1858년 사이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초고에 해당

하는 『정치 경제학 비판 요강』을 썼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출판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소련에서 1939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에 붙여진 서론은 주로 변증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경제학의 탐구 방법뿐만 아니라 변증법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859년에 마르크스는 이 초고의 첫 부분을 새로 개정하여 상품과 화폐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는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사상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이론적 연구에서 길잡이가 되었던 역사적 유물론의 개괄적인 내용을 한 쪽 정도의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밝히고 있다.

1860년대 초반에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방식에 대한 윤곽을 결정지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갔으며, 1867년에 드디어 『자본론』 제1권이 출판되었다. 『자본론』의 제2권과 제3권은 초고의 형태로 보관되다가 마르크스 사후에 앵겔스에 의해서 1885년과 1894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그리고 제4권에 해당되는 『잉여가치 학설사』는 마르크스가 기획만 하고 쓰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쓰여진 관련된 초고를 토대로 나중에 출판되었다. 『자본론』은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자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나아가 자본주의가 내적 모순에 의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동 가치설, 잉여가치와 착취, 생산 부문간의 불균형적 생산,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실업자의 증가, 공황의 발생 등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 원리와 그 문제점을 분석한 풍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1864년에 ‘국제 노동자 협회’ 즉 ‘제1인터내셔널’이 출범하였는데, 마르크스는 이 협회의 창립 선언문과 규약을 작성하고 행정적인 일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871년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꼬뮌’을 선포하자 마르크스는 이 혁명을 지지하기 위해 『프랑스 내전』이라는 책을 썼다. 1875년에 마르크스는 독일 노동자당의 통합을 위해 새로 제정된 강령을 비판하는 「고타 강령 비판」을 썼다. 여기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과도적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가 필요하며, 또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와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적용되며 반면에 높은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하였다.

1883년 뛰어난 이론가이자 혁명가로서 노동자 계급을 위해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마르크스는 거의 65세가 다 되어 가는 나이에 영국에서 삶을 마감하였다. 비록 마르크스는 자신이 그토록 기대하였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상은 20세기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계를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 II. 『자본론』의 구성

『자본론』은 1860년대 초반부터 1880년대 초반까지 마르크스에 의해서 쓰여진 총 3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경제학 저서이다. 그 중에서 제1권은 1867년에 마르크스에 의해 출판되었으며, 제2권과 제3권은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에 엥겔스에 의해서 1885년과 1894년에 각각 출판되었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의 부르주아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를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신념은 1840년 중반 이후에 정립된 그의 역사관인 ‘유물론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물질적 생산 활동은 사회 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물질적 토대로 작용하면서 사회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총체로서 생산 양식이 물질적 토대를 구성하고 그 위에 국가와 같은 사회 조직이나, 종교나 철학과 같은 사회적 의식이 들어선다. 따라서 한 사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적 생산 활동, 즉 경제적 토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완전히 분석하기 위해 ‘자본’, ‘토지 재산’, ‘임금 노동’, ‘국가’, ‘대외 거래’, ‘세계 경제’라는 여섯 권의 책을 계획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 중에서 일부만을 완성하였다.

마르크스는 1850년대에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드나들면서 경제학과 관련된 서적들을 집중적으로 탐독하였으며,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치 경제학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수많은 경제학 저서들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발췌하거나 정리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초고를 쓴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세밀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였다. 결국 마르크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계획하였던 ‘경제학’을 완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치 경제학 비판』이나 『자본론』과 같은 몇 권의 경제학 책을 출판하였고 이와 더불어 경제학과 관련된 많은 분량의 원고를 남겼다.

마르크스는 1860년대 초반에 『자본론』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 방식에 대한 윤곽을 결정지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갔으며, 1867년에 드디어 『자본론』 제1권 ‘자본의 생산 과정’을 출판하였다. 제1권의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전체 구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책의 제2권은 자본의 유통 과정(제2부)과 자본의 총과정의 각종 형태들(제3부)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제3권(제4부)은 경제학설사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제2권에 해당되는 내용은 초고의 형태로 보관되다가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제2부에 해당되는 ‘자본의 유통 과정’은 1885년에 『자본론』 제2권으로 출판되었으며, 제3부에 해당되는 ‘자본의 총과정’은 1894년에 『자본론』 제3권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제4부 ‘경제학설사’는 마르크스가 기획만 하고 쓰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쓰여진 초고를 토대로 『잉여가치 학설사』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출판되었다. 따라서 세 권으로 구성된 『자본론』에는 원래 자신이 ‘경제학’의 주제로 계획하였던 여섯 가지 중에서 ‘자본’, ‘토지 재산’, ‘임금 노동’에 대한 연구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의 서문에서 자신의 연구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의 연구 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및 그것에 대응하는 생산 관계와 교환 관계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언급처럼, 『자본론』은 ‘상품’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자본의 순환 과정’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내적 모순에 의해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규명하고 있다. 이 저서에는 ‘상품’, ‘노동’, ‘잉여가치’, ‘자본’, ‘이윤’ 등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들이 분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물신성, 잉여가치의 착취, 생산 부문간의 불균형적 생산, 이윤율의 저하 경향, 실업자의 증가, 공황의 발생 등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문제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자본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의 제목은 ‘자본의 생산 과정’인데, 이것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이 어떻게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있는지, 자본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는지를 분석적, 역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규명하고 있다.

제1편 ‘상품과 화폐’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에 속하는 상품과 화폐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품은 사용가치와 더불어 가치 즉 교환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이 여러 가치 형태를 거쳐 화폐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는데, 이를 통해 화폐 물신성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말한다. 이와 더불어 가치 척도의 기능이나 유통 수단과 같은 화폐의 여러 기능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2편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에서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해명하면서 자본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공식으로 표현한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율이 노동력의 착취도를 나타내 준다고 하면서, 노동 시간의 연장을 통해 절대적 잉여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에서는 협업, 매뉴팩처,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여기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상대적 잉여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서는 잉여가치의 양적 변동 과정과 더불어 임금의 종류를 구분한다. 제7편 ‘자본의 축적 과정’에서는 단순 재생산과 확대 재생산을 구분하면서, 확대 재생산을 통해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제8편 ‘이른바 시초 축적’에서는 자본의 최초의 형태가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역사를 과정을 고찰한다.

<제2권>의 제목은 ‘자본의 유통 과정’인데, 이것은 개별 자본이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유통되는 과정, 즉 순환과 회전을 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1편 ‘자본의 변태들과 그들의 순환’에서는 자본이 화폐 자본, 생산 자본, 상품 자본의 형태로 변태하면서 순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2편 ‘자본의 회전’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순환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본의 회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자본의 회전수와 회전 기간이 잉여가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에서는 개별 자본의 종합으로서 총자본의 운동 과정을 분석하면서 I 부문인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과 II 부문인 소비 수단의 생산 부문이 서로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고찰한다.

<제3권>의 제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인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이윤’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윤율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 이윤이나 이자, 지대 등의 문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 전환,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 전환’에서는 자본가가 왜 잉여가치나 잉여가치율보다 이윤이나 이윤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윤의 원천이 잉여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제2편 ‘이윤의 평균이윤으로 전환’에서는 자본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서로 다른 부문들 사이에서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제3편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법칙’에서는 자본 축적이 진척됨에 따라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이를 상쇄하는 요인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제4편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의 상품거래자본(즉 상인 자본)으로 전환’에서는 상업 자본이 획득하는 상업 이윤의 원천이 산업 자본의 이윤이며,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임을 밝힌다. 제5편 ‘이윤의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에서는 이자의 원천이 산업 자본의 이윤이며,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임을 밝힌다. 제6편 ‘초과 이윤의 지대로 전환’에서는 지대나 차액 지대의 원천이 산업 자본의 이윤이며, 결국에는 그것이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임을 밝힌다. 제7편 ‘수입과 그 원천’에서는 이윤, 지대, 임금이라는 주요 수입의 원천이 노동력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수십 권을 저작을 저술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자본론』은 『공산당 선언』 및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히는 공산주의 문헌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본론』이 출판된 지 벌써 백여 년이 훨씬 지났으며 이로 인해 이 책의 내용을 요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시대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론』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이론적 작업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 III. 『자본론』의 목차

제1권 자본의 생산 과정

제1편 상품과 화폐

제1장 상품

제1절 상품의 두 요소:

사용가치와 가치 (가치의 실체, 가치의 크기)

제2절 상품에 투하된 노동의 이중성

제3절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

A.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 형태

1. 가치 표현의 두 극: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

2. 상대적 가치 형태
    - (a) 상대적 가치 형태의 내용
    - (b)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성
  3. 등가 형태
  4. 단순한 가치 형태의 총체
- B.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
1.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
  2. 특수한 등가 형태
  3.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의 결합
- C. 일반적 가치 형태
1. 가치형태의 변화된 성격
  2. 상대적 가치 형태의 발전과 등가 형태의 발전 사이의 관계
  3. 일반적 가치 형태로부터 화폐 형태로의 이행
- D. 화폐 형태

제4절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그 비밀

제2장 교환 과정

제3장 화폐 또는 상품 유통

제1절 가치의 척도

제2절 유통 수단

- (a) 상품의 변태
- (b) 화폐의 유통
- (c) 주화 가치의 상정

제3절 화폐

- (a) 퇴장 화폐

- (b) 지불 수단
- (c) 세계 화폐

제2편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제4장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제1절 자본의 일반 공식

제2절 일반 공식의 모순

제3절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5장 노동 과정과 가치 증식 과정

제1절 노동 과정

제2절 가치 증식 과정

제6장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제7장 잉여가치율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제2절 생산물의 비례배분적 부분들로 생산물의 가치 표시

제3절 시니어의 ‘최후의 한 시간’

제4절 잉여 생산물

제8장 노동일

제1절 노동일의 한계

제2절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 공장주와 보아르

제3절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 부문

제4절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 교대제

제5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 14세기 중엽에서 17세기 말까지의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

제6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 노동 시간의 강제적인 법률적 제한(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

제7절 표준 노동일을 위한 투쟁

: 영국의 공장법이 타국에 준 영향

제9장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0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제11장 협업

제12장 분업과 매뉴팩처

제1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원

제2절 부분 노동자와 그의 도구

제3절 매뉴팩처의 두 가지 기본 형태

: 이질적 매뉴팩처와 유기적 매뉴팩처

제4절 매뉴팩처 안의 분업과 사회 안의 분업

제5절 매뉴팩처의 자본주의적 성격

제13장 기계와 대공업

제1절 기계의 발달

제2절 기계에서 생산물로 가치의 이전

제3절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

(a) 자본에 의한 추가 노동력의 취득. 여성과 아동의 노동

(b) 노동일의 연장

(c) 노동의 강화

제4절 공장

제5절 노동자와 기계의 투쟁

제6절 기계에 의해 축출된 노동자들과 관련된 보상 이론

제7절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면  
공업의 공황

제8절 대공업에 의한 매뉴팩처, 수공업, 가내 공업의 변혁

- (a) 수공업과 분업에 바탕을 둔 협업의 폐지
- (b) 수공업과 가내 공업에 대한 공장제의 영향
- (c) 근대적 매뉴팩처
- (d) 근대적 가내 공업
- (e) 근대적 매뉴팩처와 근대적 가내 공업의 대공업으로 이행.  
이러한 경영 방식들에 대한 공장법의 적용을 통한 이와  
같은 변혁의 촉진.

제9절 공장법. (보건 및 교육 조항) 영국에서 공장법의 일반화.

제10절 대공업과 농업

제5편 절대적 및 상대적 임여가치의 생산

제14장 절대적 및 상대적 임여가치

제15장 노동력의 가격과 임여가치의 양적 변동

제1절 불변적인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 강도, 가변적인 노동 생산성

제2절 불변적인 노동일과 노동 생산성, 가변적인 노동 강도

제3절 불변적인 노동 생산성과 노동 강도, 가변적인 노동일

제4절 지속적으로 동시에 가변적인 노동 생산성과 노동 강도

제16장 임여가치율을 위한 여러 공식

제6편 임금

제17장 노동력 가치(또는 가격)의 임금으로 전환

제18장 시간급제 임금

제19장 성과급제 임금

제20장 임금의 국가적 차이

제7편 자본의 축적 과정

제21장 단순 재생산

제22장 잉여가치의 자본으로 전환

제1절 확대된 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 자본주의적 전유 법칙으로 전환됨.

제2절 확대된 규모의 재생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오해

제3절 잉여가치의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 절제설.

제4절 잉여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율과는 관계없

이 축적의 규모를 규정하는 상황들 : 노동력의 착취도,  
노동 생산성,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의 증대, 투입 자본의 크기

제5절 이른바 노동 기금

제23장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제1절 자본의 구성이 불변인 경우에, 축적에 따른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제2절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의 진행 과정에서 가변 자  
본의 상대적 감소

제3절 상대적 과잉 인구 또는 산업 예비군의 점진적 생산

제4절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상이한 존재 형태.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

제5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 법칙에 대한 설명

(a) 1846 ~ 1866년의 영국

(b) 영국의 산업 노동자 계급들 중에서 저임금 계층

(c) 유랑민

- (d) 노동자 계급들 중에서 최고 임금 집단에 대한 공황의 영향
- (e) 영국의 농업 프롤레타리아트
- (f) 아일랜드

#### 제24장 이른바 시초 축적

- 제1절 시초 축적의 비밀
- 제2절 농민으로부터 토지의 수탈
- 제3절 15세기 말 이후에 피수탈자에 대한 피의 입법.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들.
- 제4절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
- 제5절 농업 변혁이 공업에 미친 영향.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
- 제6절 산업 자본가의 발생
- 제7절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

#### 제25장 근대적 식민 이론

#### 제2권 자본의 유통 과정

- 제1편 자본의 변태
- 제1장 화폐 자본의 순환
  - 제1절 제1단계. M-C
  - 제2절 제2단계. 생산 자본의 기능
  - 제3절 제3단계. C'-M'
  - 제4절 총순환

#### 제2장 생산 자본의 순환

- 제1절 단순 재생산
- 제2절 축적과 확대 재생산
- 제3절 화폐 축적
- 제4절 준비금

제3장 상품 자본의 순환

제4장 순환 과정의 세 가지 형태

제5장 유통 기간

제6장 유통 비용

제1절 단순 유통 비용

1. 매매 기간

2. 회계

3. 화폐

제2절 보관 비용

1. 재고 형성 일반

2. 고유한 상품 재고

제3절 운수 비용

제2편 자본의 회전

제7장 회전 기간과 회전수

제8장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제1절 형태적 구분

제2절 고정 자본의 구성 부분, 보전, 수리, 축적

제9장 투하 자본의 총회전. 회전의 순환

제10장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에 대한 학설.

중농주의자들과 아담 스미스

제11장 고정 자본 및 유동 자본에 대한 학설. 리카도

제12장 노동 기간

제13장 생산 기간

제14장 유통 기간

제15장 회전 기간이 투하 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제16장 가변 자본의 회전

제1절 연간 잉여가치율

제2절 개별 가변 자본의 회전

제3절 사회적으로 고찰된 가변 자본의 회전

## 제17장 잉여가치의 유통

제1절 단순 재생산

제2절 축적과 확대 재생산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

## 제18장 서론

제1절 연구 대상

제2절 화폐 자본의 역할

## 제19장 연구 대상에 대한 기준의 설명 방식

제1절 중농학파

제2절 아담 스미스

1. 스미스의 일반적 관점

2. 스미스에 의한 교환가치의  $v+m$ 으로의 분해

3. 불변 자본 부분

4.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자본과 소득

5. 요약

제3절 이후의 경제학자들

## 제20장 단순 재생산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제3절 두 부문 사이의 교환:  $I(v+m)$ 과  $IIc$

제4절  $II$  부문 내부에서의 교환, 필수품과 사치품

제5절 화폐 유통에 의한 교환의 매개

제6절  $I$  부문의 불변 자본

제7절 두 부문의 가변 자본과 잉여가치

제8절 두 부문의 불변 자본

제9절 스미스, 슈토르흐 및 램지에 대한 회고

제10절 자본과 소득: 가변 자본과 임금

제11절 고정 자본의 보전

1. 마멸 가치분의 화폐 형태로의 보전
2. 고정 자본의 현물로의 보전

제12절 화폐 재료의 재생산

3. 결론

제13절 드 트라시의 재생산 이론

제21장 축적과 확대 재생산

제1절 I 부문에서의 축적

1. 화폐 퇴장
2. 추가적 불변 자본
3. 추가적 가변 자본

제2절 II 부문에서의 축적

제3절 축적에 대한 도식적 설명

1. 첫째 사례
2. 둘째 사례
3. 축적에 있어서 IIc의 교환

제4절 보충 설명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 전환과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 전환

제1장 비용 가격과 이윤

제2장 이윤율

제3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제4장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

제5장 불변 자본의 사용에서 절약

제1절 개관

제2절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 조건들의 절약

제3절 동력 생산과 동력 전달 및 건물의 절약

제4절 생산 폐물의 이용

제5절 발명에 의한 절약

제6장 가격 변동의 영향

제1절 원료 가격의 변동. 이것이 이윤율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제2절 자본의 가치 증대와 가치 감소. 자본의 분리와 결합

제3절 일반적 설명 : 1861 ~ 1865년의 면화 공황

제7장 보충 설명

제2편 이윤의 평균 이윤으로 전환

제8장 상이한 생산 부문의 상이한 자본 구성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윤율의 차이

제9장 일반적 이윤율(평균 이윤율)의 형성과 상품 가치의 생산  
가격으로 전환

제10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시장 가격과 시장  
가치. 초과 이윤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12장 보충 설명

제1절 생산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제2절 평균적으로 구성된 상품의 생산 가격

제3절 자본가의 보상 이유

제3편 이윤율의 저하경향의 법칙

제13장 법칙 그 자체

제14장 상쇄 요인들

제1절 노동 착취도의 증대

제2절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

제3절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제4절 상대적 과잉 인구

제5절 대외 무역

제6절 주식 자본의 증가

####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의 전개

제1절 개관

제2절 생산 확대와 가치 증식의 충돌

제3절 과잉 자본과 과잉 인구

제4절 보충 설명

#### 제4편 상품 자본과 화폐 자본의 상품 거래 자본과 화폐 거래 자본

(즉 상인 자본)으로 전환

#### 제16장 상품 거래 자본

#### 제17장 상업 이윤

#### 제18장 상인 자본의 순환. 가격

#### 제19장 화폐 거래 자본

#### 제20장 상인 자본의 역사적 고찰

#### 제5편 이윤의 이자 및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 (이자 산출 자본)

#### 제21장 이자 산출 자본

#### 제22장 이윤의 분해. 이자율. ‘자연적’ 이자율

####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이득

#### 제24장 이자 산출 자본의 형태 속에서 자본 관계의 표면화

#### 제25장 신용과 가공 자본

#### 제26장 화폐 자본의 축적. 이것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신용의 역할

#### 제28장 유통 수단과 자본. 투크와 플라턴의 견해

#### 제29장 은행 자본의 구성

제30장 화폐 자본과 실물 자본 I

제31장 화폐 자본과 실물 자본 II (계속)

제1절 화폐의 대부 자본으로 전환

제2절 대부 자본으로 전환되는 화폐로, 자본 또는 수입의 전환

제32장 화폐 자본과 실물 자본 III (결론)

제33장 신용 제도에서 유통 수단

제34장 통화주의와 영국의 1844년 은행 입법

제35장 귀금속과 환율

제1절 금준비의 운동

제2절 환율

제36장 자본주의 이전의 관계들

제6편 초과 이윤의 지대로 전환

제37장 서론

제38장 차액 지대 일반

제39장 차액 지대의 제1형태(차액 지대 I)

제40장 차액 지대의 제2형태(차액 지대 II)

제41장 차액 지대 II. 제1의 경우: 불변적인 생산 가격

제42장 차액 지대 II. 제2의 경우: 하락하는 생산 가격

제1절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제2절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제3절 추가 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제43장 차액 지대 II. 제3의 경우: 상승하는 생산 가격

제44장 최열등 경작지에서도 발생하는 차액 지대

제45장 절대 지대

제46장 건축지 지대. 광산 지대. 토지 가격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 지대

제3절 생산물 지대  
제4절 화폐 지대  
제5절 소작 제도와 소규모 농민적 소유

제7편 수입과 그 원천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제49장 생산 과정의 분석을 위하여  
제50장 경쟁의 환상  
제51장 분배 관계와 생산 관계  
제52장 계급

엥겔스: 『자본론』 제3권에 대한 보충 설명  
제1절 가치 법칙과 이윤율  
제2절 증권거래소

## 제2부 지식 지도

### I. 철학 문헌, 철학자, 철학 용어 지식 지도

#### ○ 철학 문헌: 『자본론』

원전의 전체 내용 요약: 1-2-5

원전의 세부 내용 목차: 1-3

원전의 중요성 해설: 1-2-5

원전의 중요한 철학 용어: 상품, 노동, 잉여가치, 자본, 이윤

한국어 표준 번역본 제목: 『자본론』

한국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김수행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서울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비봉출판사

한국어 표준 번역본 출판 연도: 2001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영어 표준 번역본 제목: *Capital*

영어 표준 번역본 번역자: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도시: Moscow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사: Progress Publishers

영어 표준 번역본 출판 연도: 1975

영어 디지털 텍스트:

[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cw/index.htm](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cw/index.htm)

원어 표준 판본 제목: *Das Kapital*

원어 표준 판본 편집자 : Institute für Marxismus-Leninismus

beim ZK der SED

원어 표준 판본 출판 도시 : Berlin

원어 표준 판본 출판사 : Dietz Verlag

원어 표준 판본 출판 연도 : 1985

원어 표준 판본 초판 출판 연도 : 1962

원어 디지털 텍스트 :

[www.marxists.org/deutsch/archiv/marx-engels/index.htm](http://www.marxists.org/deutsch/archiv/marx-engels/index.htm)

## ○ 철학자 : 마르크스

생애해설 : 1-1-1

한국어 이름 : 칼 마르크스

영어 이름 : Karl Marx

원어 이름 : Karl Marx

인물 사진 :

[www.marxists.org/archive/marx/photo/marx/index.htm](http://www.marxists.org/archive/marx/photo/marx/index.htm)

출생 국가 : 독일

출생 도시 : 트리에

출생 연도 : 1818

사망 연도 : 1883

한국어 웹사이트 :

영어 웹사이트 :

원어 웹사이트 :

주요 저작1 한국어 제목: 『경제학 철학 수고』

주요 저작2 한국어 제목: 『독일 이데올로기』

주요 저작3 한국어 제목: 『공산당 선언』

활동 시기: 근대철학

활동 분야: 사회철학, 정치철학, 역사철학

대표 사상: 마르크스주의

대표 이론: 유물론

스승:

제자:

지지자: 앵겔스, 레닌, 플레하노프, 모택동

반대자: 포퍼, 노직, 하이에크

영향을 준 철학자: 헤겔, 포이에르바하

영향을 받은 철학자: 앵겔스, 루카치, 그람시, 알튀세

## ○ 철학 용어: 상품(3부 I장)

한국어 용어: 상품

한자어 표기: 商品

한국어 용어 출처: 『자본론』 1권 51쪽 (1-1-2-2, 1-1-2-3)

한국어 용어 정의: ‘상품’이란 ‘타인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유용한 물건’이다.

한국어 반대 용어:

한국어 유사 용어:

한국어 관련 용어: 노동 생산물, 물건

영어 용어 : commodity

영어 용어 출처 :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Ware

원어 용어 출처 : *Das Kapital* 55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Kapital* 55쪽

사용한 철학 분야 :

사용한 철학사 :

사용한 철학 학파 :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문헌 :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 철학 용어 : 노동(3부 II장)

한국어 용어 : 노동

한자어 표기 : 勞動

한국어 용어 출처 : 『자본론』 1권 235쪽-6쪽 (2-1-1-1, 2-1-2-1)

한국어 용어 정의 : ‘노동’이란 ‘대상을 변형시키기 위한 합목

적적 활동’이다.

한국어 반대 용어 : 놀이

한국어 유사 용어 : 일

한국어 관련 용어 : 노동력

영어 용어 : labour

영어 용어 출처 :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Arbeit

원어 용어 출처 : *Das Kapital* 192-3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Kapital* 192-3쪽

사용한 철학 분야 :

사용한 철학사 :

사용한 철학 학파 :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문헌 :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 철학 용어 : 잉여가치(3부 III장)

한국어 용어 : 잉여가치

한자어 표기 : 剩餘價值

한국어 용어 출처 : 『자본론』 1권 195쪽

한국어 용어 정의 : ‘잉여가치’란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자신  
의 가치를 초과하여 획득한 가치’이다.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이윤, 이익

한국어 관련 용어 :

영어 용어 : surplus-value

영어 용어 출처 :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Mehrwert

원어 용어 출처 : *Das Kapital* I 165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Kapital* I 165쪽

사용한 철학 분야 :

사용한 철학사 :

사용한 철학 학파 :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문헌 :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 철학 용어: 자본(3부 IV장)

한국어 용어 : 자본

한자어 표기 : 資本

한국어 용어 출처 : 『자본론』 1권 195쪽

한국어 용어 정의 : ‘자본’이란 ‘잉여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유통 과정에 투입된 화폐’이다.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한국어 관련 용어 : 화폐

영어 용어 : capital

영어 용어 출처 :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Kapital

원어 용어 출처 : *Das Kapital* I 165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Kapital* I 165쪽

사용한 철학 분야 :

사용한 철학사 :

사용한 철학 학파 :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문헌 :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 철학 용어 : 이윤(3부 V장)

한국어 용어 : 이윤

한자어 표기 : 利潤

한국어 용어 출처 : 『자본론』 3권 39쪽

한국어 용어 정의 : ‘이윤’이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으로부터 산출된 잉여가치’이다.

한국어 반대 용어 :

한국어 유사 용어 : 잉여가치, 이익

한국어 관련 용어 :

영어 용어 : profit

영어 용어 출처 :

영어 용어 정의 :

원어 용어 : Profit

원어 용어 출처 : *Das Kapital* III 46쪽

원어 용어 정의 : *Das Kapital* III 46쪽

사용한 철학 분야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학파 :

사용된 철학 이론 :

사용한 철학자 :

사용한 철학 문헌 :

다른 철학 용어와의 상하 관계 :

## II. 『자본론』의 지식 지도

### 1. 상품

1.1. ‘상품’ 개념(1-1-2-3)/(1-1-2-2)

1.2. 상품의 두 요소

1.2.1. 사용가치(1-2-1-3)/(1-2-1-2)

1.2.2. 가치(교환가치)(1-2-2-3)/(1-2-2-2)

1.3. 상품에 투입된 노동의 이중성(1-3-0-3)/(1-3-0-2)

1.3.1. 구체적 유용 노동(1-3-1-3)/(1-3-1-2)

1.3.2. 추상적 인간 노동(1-3-2-3)/(1-3-2-2)

## 1.4.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1-4-3-0-3)/(1-4-3-0-2)

1.4.1. 단순한 가치 형태(1-4-3-1-3)/(1-4-3-1-2)

1.4.2. 전개된 가치 형태(1-4-3-2-3)/(1-4-3-2-2)

1.4.3. 일반적 가치 형태(1-4-3-3-3)/(1-4-3-3-2)

1.4.4. 화폐 형태(1-4-3-4-3)/(1-4-3-4-2)

## 1.4.4.1. 화폐의 기능

1.4.4.1.1. 가치 척도의 기능(1-5-1-0-3)/(1-5-1-0-2)

1.4.4.1.2. 유통 수단(1-5-2-2-3)/(1-5-2-3-2)

1.4.4.1.3. 축장 기능(1-5-3-3)/(1-5-3-2)

1.4.4.1.4. 지불 수단(1-5-4-3)/(1-5-4-2)

## 1.4.4.2. 화폐의 종류

1.4.4.2.1. 금(1-6-1-3)/(1-6-1-2)

1.4.4.2.2. 주화(1-6-2-3)/(1-6-2-2)

1.4.4.2.3. 지폐(1-6-3-3)/(1-6-3-2)

1.4.4.2.4. 신용 화폐(1-6-4-3)/(1-6-4-2)

## 1.5. 상품의 물신적 성격(1-7-0-3)/(1-7-0-2)

1.5.1. 화폐의 물신적 성격(1-7-2-3)/(1-7-2-2)

## 1.6. 상품에 내재하는 모순(1-8-3)/(1-8-2)

## 2. 노동

## 2.1. ‘노동’ 개념(2-1-0-1)/

2.1.1.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으로서 노동(2-1-1-3)/(2-1-1-2)

2.1.2. 합목적적 활동으로서 노동(2-1-2-3)/(2-1-2-2)

2.1.3. 욕구 충족의 활동으로서 노동(2-1-3-3)/(2-1-3-2)

2.1.4. 보편적 삶의 활동으로서 노동(2-1-4-3)/(2-1-4-2)

## 2.2. 노동 과정의 요소들(2-2-0-3)/(2-2-0-2)

2.2.1. 노동(노동력)(2-2-1-3)/(2-2-1-2)

2.2.2. 생산 수단(2-2-2-0-3)/(2-2-2-0-2)

2.2.2.1. 노동 대상(2-2-2-1-0-1)/

2.2.2.1.1. 천연적 노동 대상(2-2-2-1-1-3)/(2-2-2-1-1-2)

2.2.2.1.2. 가공된 노동 대상(2-2-2-1-2-3)/(2-2-2-1-2-2)

2.2.2.2. 노동 수단(2-2-2-2-3)/(2-2-2-2-2)

2.2.2.2.1. 생산 도구(2-2-2-2-3)/

2.2.2.2.2. 다른 노동 수단(2-2-2-2-3)/

2.2.2.3. 노동 수단의 중요성

2.2.2.3.1.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서 인간(2-2-2-3-1-3)

/(2-2-2-3-1-2)

2.2.2.3.2. 사회 발전에서 노동 수단의 중요성(2-2-2-3-2-3)

/(2-2-2-3-2-2)

### 3. 잉여가치

3.1. 잉여가치의 형성 과정

3.1.1.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3-1-1-3)/(3-1-1-2)

3.1.2. ‘잉여가치’ 개념(3-1-2-3)/(3-1-2-2)

3.1.3. 자본가의 목적으로서 잉여가치(3-1-4-3)/(3-1-4-2)

3.1.4.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3.1.4.1. ‘노동력’ 개념(3-1-5-1-3)/(3-1-5-1-2)

3.1.4.2. 노동력의 가치(3-1-5-2-3)/(3-1-5-2-2)

3.1.4.3. 특수한 상품으로서 노동력(3-1-5-3-3)/(3-1-5-3-2)

3.1.4.4.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력(3-1-5-4-3)/(3-1-5-4-2)

3.1.4.5. 노동 가치설(3-1-5-5-3)/(3-1-5-5-2)

3.2. 잉여가치율

3.2.1. 잉여가치와 관련한 자본의 구분

3.2.1.1. 불변 자본(3-2-1-1-3)/(3-2-1-1-2)

3.2.1.2. 가변 자본(3-2-1-2-3)/(3-2-1-2-2)

- 3.2.2. 상품의 가치량(3-2-2-3)/(3-2-2-2)
- 3.2.3. 잉여가치율(자본의 구성 비율)(3-2-3-3)/(3-2-3-2)
- 3.2.4. 잉여가치와 관련한 노동의 구분
  - 3.2.4.1. 필요 노동(3-2-4-1-3)/(3-2-4-1-2)
  - 3.2.4.2. 잉여 노동(3-2-4-2-3)/(3-2-4-2-2)
- 3.2.5. 잉여가치율(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3-2-5-3)/(3-2-5-2)
- 3.2.6. ‘착취도’로서 잉여가치율(3-2-6-3)/(3-2-6-2)
- 3.2.7.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차이점(3-2-7-3)/(3-2-7-2)
  
- 3.3. 잉여가치의 종류
  - 3.3.1. 절대적 잉여가치
    - 3.3.1.1.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3-3-1-1-3)/(3-3-1-1-2)
    - 3.3.1.2.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
      - 3.3.1.2.1. 자본가의 노동일의 확대(3-3-1-5-0-3)/(3-3-1-5-0-2)
      - 3.3.1.2.2. 불법적인 노동 시간의 연장(3-3-1-5-3-3)/(3-3-1-5-3-2)
      - 3.3.1.2.3. 주간과 야간 노동의 교대제(3-3-1-5-5-3)/(3-3-1-5-5-2)
    - 3.3.1.3. 잉여가치량의 법칙
      - 3.3.1.3.1. 잉여가치량의 제1법칙(3-3-1-7-1-3)/(3-3-1-7-1-2)
      - 3.3.1.3.2. 잉여가치량의 제2법칙(3-3-1-7-2-3)/(3-3-1-7-2-2)
      - 3.3.1.3.3. 잉여가치량의 제3법칙(3-3-1-7-3-3)/(3-3-1-7-3-2)
    - 3.3.1.4.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 소외(3-3-1-9-3)/(3-3-1-9-2)
  - 3.3.2. 상대적 잉여가치
    - 3.3.2.1. ‘상대적 잉여가치’ 개념(3-3-2-2-3)/(3-3-2-2-2)
    - 3.3.2.2.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
      - 3.3.2.2.1. 노동 생산성의 향상(3-3-2-2-1-3)/(3-3-3-3-1-2)
      - 3.3.2.2.2. 특별 잉여가치(3-3-2-2-2-3)/(3-3-2-2-2-2)
      - 3.3.2.2.3. 생산 방식의 발전
        - 3.3.2.2.3.1. 협업(3-3-2-4-1-a-3)/(3-3-2-4-1-a-2)

3.3.2.2.3.2.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3-3-2-4-2-a-3)

/(3-3-2-4-2-a-2)

3.3.2.2.3.2.1. 분업의 구분

3.3.2.2.3.2.1.1. 사회적 분업(3-3-2-4-2-f-4)/(3-3-2-4-2-f-3)

3.3.2.2.3.2.1.2. 작업장 안의 분업(3-3-2-4-2-f-8)/(3-3-2-4-2-f-7)

3.3.2.2.3.3. 기계제 대공업(3-3-2-4-3-a-3)/(3-3-2-4-3-a-2)

3.3.2.2.3.3.1. ‘기계’ 개념(3-3-2-4-3-b-3)/(3-3-2-4-3-b-2)

3.3.2.2.3.3.2. 기계제 대공업의 문제점

3.3.2.2.3.3.2.1. 기계제 대공업에서 노동 소외(3-3-2-4-3-f-4)

/(3-3-2-4-3-f-3)

3.3.2.2.3.3.2.2. 기계로 인한 실업자 증가(3-3-2-4-3-f-7)

/(3-3-2-4-3-f-6)

#### 4. 자본

4.1. 자본의 형성 과정(4-1-0-1)/

4.1.1. 자본 형성의 역사적 조건(4-1-1-3)/(4-1-1-2)

4.1.2. 자본과 화폐의 차이점(4-1-2-3)/(4-1-2-2)

4.1.3. ‘자본’ 개념(4-1-3-3)/(4-1-3-2)

4.1.4. 자본의 일반 공식(4-1-3-4)/(4-1-3-2)

4.1.4.1.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4-1-4-3)/(4-1-4-2)

4.1.5. 자본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로서 자본가(4-1-5-3)/(4-1-5-2)

4.2. 자본의 축적 과정(4-2-0-1)/

4.2.1. 자본의 축적 방식(재생산 방식)(4-2-1-0-3)/(4-2-1-0-2)

4.2.1.1. 단순 재생산(4-2-1-1-3)/(4-2-1-1-2)

4.2.1.2. 확대 재생산(4-2-1-2-2-3)/(4-2-1-2-2-2)

4.2.2. 자본 축적이 노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

4.2.2.1.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 증가(4-2-2-1-3)

/(4-2-2-1-2)

- 4.2.2.2. 자본 축적으로 인한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4-2-2-2-3)  
 /(4-2-2-2-2)
- 4.2.2.3. 상대적 과잉 인구의 생산(4-2-2-3-0-3)/(4-2-2-3-0-2)
- 4.2.2.3.1. 상대적 과잉 인구로서 산업 예비군(4-2-2-3-1-3)  
 /(4-2-2-3-1-2)
- 4.2.2.3.2.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 형태(4-2-2-3-2-3)  
 /(4-2-2-3-2-2)
- 4.2.2.3.2.1. 유동적 형태(4-2-2-3-2-3)/(4-2-2-3-2-2)
- 4.2.2.3.2.2. 잠재적 형태(4-2-2-3-2-3)/(4-2-2-3-2-2)
- 4.2.2.3.2.3. 정체적 형태(4-2-2-3-2-3)/(4-2-2-3-2-2)
- 4.2.3. 자본의 시초 축적
- 4.2.3.1. 자본의 ‘시초 축적’ 개념(4-2-3-1-3)/(4-2-3-1-2)
- 4.2.3.2. 자본의 시초 축적의 조건으로서 자본 관계(4-2-3-2-3)  
 /(4-2-3-2-2)
- 4.2.3.3. 시초 축적의 과정들
- 4.2.3.3.1.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4-2-3-3-1-3)/(4-2-3-3-1-2)
- 4.2.3.3.2.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이 미친 영향(4-2-3-3-2-3)  
 /(4-2-3-3-2-2)
- 4.2.3.3.3.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들(4-2-3-3-3-3)/(4-2-3-3-3-2)
- 4.2.3.3.4.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4-2-3-3-4-3)  
 /(4-2-3-3-4-2)
- 4.2.3.3.5.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4-2-3-3-5-3)  
 /(4-2-3-3-5-2)
- 4.2.3.3.6. 산업 자본가의 발생(4-2-3-3-6-3)/(4-2-3-3-6-2)
- 4.2.3.3.7. 대자본가의 형성(4-2-3-3-7-3)/(4-2-3-3-7-2)
- 4.2.3.3.7.1. 대자본의 문제점(4-2-3-3-8-3)/(4-2-3-3-8-2)
- 4.3. 자본의 유통 과정(4-3-0-1)/
- 4.3.1. 자본의 순환(4-3-1-1)/

#### 4.3.1.1. 화폐 자본의 순환

- 4.3.1.1.1. ‘화폐 자본의 순환’ 개념(4-3-1-1-1-3)/(4-3-1-1-1-2)
- 4.3.1.1.2. 화폐 자본의 순환 제1단계(4-3-1-1-2-3)/(4-3-1-1-2-2)
- 4.3.1.1.3. 화폐 자본의 순환 제2단계(4-3-1-1-3-3)/(4-3-1-1-3-2)
- 4.3.1.1.4. 화폐 자본의 순환 제3단계(4-3-1-1-4-3)/(4-3-1-1-4-2)
- 4.3.1.2. 생산 자본의 순환(4-3-1-2-3)/(4-3-1-2-2)
- 4.3.1.3. 상품 자본의 순환(4-3-1-3-3)/(4-3-1-3-2)

#### 4.3.2. 자본의 회전(4-3-2-0-1)/

- 4.3.2.1. ‘자본의 회전’ 개념(4-3-2-1-3)/(4-3-2-1-2)
- 4.3.2.2. 자본의 회전수(4-3-2-2-3)/(4-3-2-2-2)
- 4.3.2.3. 자본의 회전과 관련된 자본의 형태
  - 4.3.2.3.1. 고정 자본(4-3-2-3-1-3)/(4-3-2-3-1-2)
  - 4.3.2.3.2. 유동 자본(4-3-2-3-2-3)/(4-3-2-3-2-2)
- 4.3.2.4. 자본의 회전 기간의 구성 부분(4-3-2-4-0-1)/
  - 4.3.2.4.1. 생산 기간(4-3-2-4-2-3)/(4-3-2-4-2-2)
    - 4.3.2.4.1.1. 노동 기간(4-3-2-4-1-3)/(4-3-2-4-1-2)
    - 4.3.2.4.1.2. 노동 기간이 아닌 생산 기간(4-3-2-4-1-3)/(4-3-2-4-1-2)
  - 4.3.2.4.2. 유통 기간(4-3-2-4-3-3)/(4-3-2-4-3-2)
- 4.3.2.5. 자본의 회전 기간과 잉여가치량의 관계(4-3-2-5-3)/(4-3-2-5-2)

#### 4.4.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

- 4.4.1. 사회적 총자본’ 개념(4-4-1-3)/(4-4-1-2)
- 4.4.2.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 4.4.2.1. I 부문: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4-4-2-3)/(4-4-2-2)
  - 4.4.2.2. II 부문: 소비 수단의 생산 부문(4-4-2-3)/(4-4-2-2)

## 5. 이윤

5.1. ‘이윤’ 개념(5-1-0-3)/(5-1-0-2)

5.2. 이윤율

5.2.1. ‘이윤율’ 개념(5-2-1-3)/(5-2-1-2)

5.2.2.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5-2-2-3)/(5-2-2-2)

5.2.3.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2.3.1. 자본의 회전 기간(5-2-3-1-3)/(5-2-3-1-2)

5.2.3.2. 불변 자본의 효과적 사용(5-2-3-2-3)/(5-2-3-2-2)

5.3. 평균 이윤율

5.3.1. ‘평균 이윤율’ 개념(5-3-1-3)/(5-3-1-2)

5.3.2. 경쟁에 의한 평균 이윤율의 형성(5-3-2-3)/(5-3-2-2)

5.3.3. 평균 이윤율의 규정 요인(5-3-3-3)/(5-3-3-2)

5.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

5.4.1.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 개념(5-4-1-3)/(5-4-1-2)

5.4.2. 자본 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5-4-2-3)/(5-4-2-2)

5.4.3.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잉여가치량의 관계(5-4-3-3)

/(5-4-3-2)

5.4.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5-4-4-0-1)/

5.4.4.1. 노동 착취도의 증대(5-4-4-1-3)/(5-4-4-1-2)

5.4.4.2.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5-4-4-2-3)/(5-4-4-2-2)

5.4.4.3.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5-4-4-3-23)/(5-4-4-3-2)

5.4.4.4. 상대적 과잉 인구(5-4-4-4-3)/(5-4-4-4-2)

5.4.4.5. 대외 무역(5-4-4-5-3)/(5-4-4-5-2)

5.5. 이윤율의 저하와 관련된 자본주의의 모순

5.5.1. 이윤율의 저하에 따른 문제들(5-5-1-3)/(5-5-1-2)

5.5.2.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5-5-2-3)/(5-5-2-2)

5.5.3. 잉여가치의 생산 조건과 실현 조건의 모순(5-5-3-3)

/(5-5-3-2)

5.5.4.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황의 발생(5-5-4-3)/(5-5-4-2)

5.6. 이윤의 분할(5-6-0-1)/

5.6.1. 산업 자본의 이윤(5-6-1-3)/(5-6-1-2)

5.6.2. 상업 이윤(5-6-2-3)/(5-6-2-2)

5.6.2.1. 상업 자본의 평균 이윤율(5-6-2-1-3)/(5-6-2-1-2)

5.6.3. 이자(5-6-3-3)/(5-6-3-2)

5.6.4. 지대(5-6-4-3)/(5-6-4-2)

## 제3부 『자본론』의 주요 주제어 분석

### 1. 상품

(독 : Ware / 영 : commodity)

#### 1.1. ‘상품’ 개념

##### 1.1.1.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으로서 상품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운동 법칙과 내적 모순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이를 위해 우선 ‘상품’에 대한 분석에着手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Ware)의 방대한 집적’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부의 기본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한다.(1권49/43)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출발점을 ‘상품’(商品, Ware, commodity)으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부’(富)가 ‘상품’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봉건 사회에서는 부가 주로 ‘토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부의 축적을 위한 상품의 생산과 판매는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상품’을 자본주의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여기에 자본주의 경제를 해명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보았다.

### 1.1.2. ‘상품’ 개념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상품’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어떤 물건이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품(Ware)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는 사용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 즉 사회적 사용가치를 생산해야 한다.(1권55/51)

어떤 물건이 ‘상품’(商品, Ware, commodity)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타인을 위한 사용가치’를 지녀야 한다. 즉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산된 유용한 물건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물을 생산했다면, 그 생산물은 사용가치는 갖고 있지만 타인을 위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상품은 생산자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교환의 목적으로 생산된 물건이다. 따라서 ‘상품’이란 ‘타인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유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 1.1.3. 노동 생산물의 상품으로 전환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생산물이 이러한 상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역사적 발전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노동 생산물은 어떤 사회 제도에서도 유용한 대상이지만, 그것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이 그 물건의 ‘객관적’ 속성 즉, 가치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역사적으로 특수한 발전 단계에 속하는 일이다. 바로 그러한 발전 단계에서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된다.(1권76/79)

노동 생산물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물건이다. 이러한 노동 생산물은 유용한 물건이지만 이것이 항상 상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 생산물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은 교환의 확대와 같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상품으로의 전환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가장 분명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 1.2. 상품의 두 요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생산물의 존재 형태인 상품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품의 운동 형태나 화폐의 발생 과정 등을 설명하려고 한다.

### 1.2.1. 사용가치

상품은 ‘사용가치’와 ‘가치’(교환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르크스는 우선 사용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물건의 유용성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사용가치(Gebrauchswert)가 되게 한다. 그러나 이 유용성은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상품체와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1권50/44)

상품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대상으로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이다. 예를 들면 철이나 밀, 금강석과 같은 상품은 각각의 물건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서 유용성(有用性)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개별 상품이 지니고 있는 유용성이 그 상

품의 ‘사용가치’(使用價値, Gebrauchswert, use-value)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가치는 그 물건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실현된다. 이처럼 ‘사용가치’란 어떤 상품이 구체적으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유용성을 가리킨다.

### 1.2.2. 교환가치(가치)

모든 상품은 이러한 사용가치와 더불어 ‘교환가치’(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결합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교환가치(Tauschwert)는 우선 양적 관계 즉,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가 다른 종류의 사용가치와 교환되는 비율로 나타난다.(1권50/45)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된 물건으로서 화폐를 비롯한 다른 물건과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의 과정에서 상품들 사이에는 일정한 교환 비율이 성립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밀과 철이라는 상품이 서로 교환될 때, ‘1되의 밀 = 1Kg의 철’이라는 교환 비율이 성립한다. ‘교환가치’(交換價値, Tauschwert, exchange-value)란 이렇게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될 수 있는 가치를 가리킨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교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라고 보면서 ‘교환가치’ 개념을 ‘가치’(價値, Wert, value)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1.2.2.1. 교환가치(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

그렇다면 상품의 가치 또는 교환가치의 원천은 무엇인가? 즉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될 때 일정한 양적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그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가?

사용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다만 거기에 추상적 인간 노동이 체현되어 있거나 대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 물건에 들어 있는 ‘가치를 형성하는 실체’인 노동(Arbeit)의 양에 의해 측정한다. 노동의 양은 노동의 지속 시간으로 측정하고, 노동 시간은 시간, 일, 주 등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권53/48)

상품은 교환의 과정에서 일정한 교환 비율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환 비율은 각각의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각각의 상품에 투입되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며, 노동의 양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여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1되의 밀’이 ‘1Kg의 철’과 교환되는 것은 각각의 상품에 동일한 양의 노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품이 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상품에 일정한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교환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 1.2.2.2. 가치량의 계산 방법: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

마르크스는 상품의 교환가치 또는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품의 가치량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물건의 가치량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그것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걸리는 노동 시간이다. 이 경우 개개의 상품은 그것이 속한 종류의 평균적 표본으로 간주될 뿐이다.(1권54/49)

어떤 상품이 지니고 있는 교환가치 또는 가치의 양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

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란 어떤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과 평균적인 노동 숙련도 및 노동 강도에서 일정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노동 시간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상품 A와 B를 생산하는 데 각각 10시간과 15시간의 노동이 투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10시간이라면 그 상품의 가치는 10시간에 상응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생산 활동이 반드시 정상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방적 기계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물레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노동자는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둘째, 평균적인 노동 능률이 유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 능률이 뒤떨어지게 되면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보다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셋째, 원료나 노동 수단에서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생산 수단에서 낭비가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비가 들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 1.2.2.3. 가치와 노동 생산성의 반비례 관계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품의 가치가 노동 생산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만약 상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이 불변이라면 그 상품의 가치도 불변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도 변하게 된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량에 정비례하고 노동 생산성(die Produktivkraft der Arbeit)에 반비례한다.(1권55/50)

‘노동 생산성’은 여러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특히 노동자들의 숙련도, 과학 기술의 발전 정도, 조직 방식, 생산 규모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에서 발전이 이루어져 노동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그 상품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 즉 노동량도 그 만큼 줄어들므로 그 상품의 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예전에는 10시간이 소용되었는데, 이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8시간만 걸린다면 그 상품의 가치도 그 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상품의 가치는 노동 생산성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 1.2.2.4. 사용가치와 가치의 결합체로서 상품

이처럼 마르크스는 하나의 상품에 사용가치와 가치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어떤 물건이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지닐 때 그 물건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고찰하는 사회 형태에서 사용가치는 동시에 교환가치의 물질적 담지자이다.(1권50/45)

상품이 (교환)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일정한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물건이 유용성이 없어서 사용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교환가치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의 물질적 담지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기나 물처럼 사용가치는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아 (교환)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물건도 상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물건은 ‘사용가치’와 ‘가치’라는 두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을 때 상품이 될 수 있다.

### 1.3. 상품에 투입된 노동의 이중성

마르크스는 상품을 가치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거기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제 그는 이러한 상품을 노동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거기에 노동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주장한다.

처음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이중성을 가진 물건으로 나타났다. 그 뒤 노동도 또한 이중성을 가지고 나타났다.(1권56/52)

상품을 가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품을 노동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구체적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노동의 이중적 측면이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이중성을 밝힌 것은 자신의 공로라고 하면서 이것이 경제학의 이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한다.

#### 1.3.1. 구체적 유용 노동

마르크스는 상품에 투여된 노동을 ‘구체적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구체적 유용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동, 즉 그것의 유용성이 그 생산물의 사용가치로 표현되는 노동, 또는 그것의 생산물을 사용가치로 만들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노동을 간단히 ‘유용 노동’(die nützliche Arbeit)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우리는 노동의 유용 효과만 고려한다.(1권56/52)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은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지니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노동의 종류가 서로 다른 데

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옷과 천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용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옷과 천을 생산하는 데 재봉 노동과 직포 노동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에는 질적으로 다른 유용 노동이 들어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을 ‘구체적 유용 노동’(die nützliche, konkrete Arbeit)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구체적 유용 노동’이란 개별 상품의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가리킨다.

### 1.3.2. 추상적 인간 노동

마르크스는 상품에는 ‘구체적 유용 노동’과 더불어 ‘추상적 인간 노동’이 들어 있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약 상품의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속성, 즉 그것이 노동 생산물이라는 속성만 남는다. [...] 노동 생산물의 유용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노동 생산물에 투하되어 있는 노동의 유용한 성질도 사라지고, 따라서 노동의 상이한 구체적 형태도 사라진다. 이들 노동은 더 이상 서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인간 노동 (die abstrakt menschliche Arbeit)으로 환원된다.(1권52/47)

상품의 구체적 유용성과 관련된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생산 활동은 인간 노동력의 지출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옷을 만드는 재봉 노동과, 천을 만드는 직포 노동은 서로 다른 종류의 특수한 노동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두뇌, 근육, 신경 등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옷과 천이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가치를 지니는 것도 두 상품에 동일한 인간 노동력, 즉 추상적 인간 노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추상적 인간 노동’(die abstrakt menschliche Arbeit)이란 상품의 (교환) 가치를 창출하는 인간 노동력 일반을 가리킨다.

### 1.3.3. 노동의 이중성과 가치의 상호 관계

마르크스는 이렇게 상품에 투여된 노동 형태를 ‘구체적 유용 노동’과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동의 이중성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치의 이중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생리학적 의미에서 인간 노동력의 지출이며, 이 동등한 또는 추상적인 인간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상품의 가치를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노동은 특수한 합목적적 형태로 인간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 유용 노동이라는 속성에서 사용가치를 생산한다.(1권61/58)

‘구체적 유용 노동’은 ‘특수한 합목적적 형태로 인간의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노동을 통해 상품의 사용가치가 형성된다. 여기서는 노동이 ‘어떻게’ 수행되고, ‘무엇을’ 생산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비해 ‘추상적 인간 노동’은 ‘생리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지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는 상품의 (교환)가치가 형성된다. 여기서는 노동력이 ‘얼마나’ 지출되는가, 즉 노동의 지속 시간이 문제가 된다. 이처럼 상품에 투입된 구체적 유용 노동은 사용가치를 창출하고, 추상적 인간 노동은 (교환)가치를 창출한다.

### 1.4.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전개된 가치 형태’, ‘일반적 가치 형태’를 거쳐 ‘화폐 형태’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이를 통해 화폐의 발생 과정과 그 신비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 1.4.1. 상품의 형태: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

마르크스는 상품의 존재 방식과 관련하여 상품이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상품은 철, 아마포, 밀 등과 같은 사용가치 또는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 이것이 상품의 평범한 현물 형태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품인 것은 그것들의 이중적 성격, 즉 사용의 대상임과 동시에 가치의 담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이중적 형태, 즉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상품으로 나타난다.(1권62/59)

상품은 우선 철이나 밀처럼 구체적인 사용가치를 지닌 ‘현물 형태’(Naturalform)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상품’이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교환가치를 지닌 ‘가치 형태’(Wertform)를 취하고 있다. 즉 상품은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되의 밀’ = ‘1Kg의 철’이라는 등식에서처럼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을 통해 자신의 가치 형태를 드러낸다. 이처럼 사용가치와 가치의 담지자로서 상품은 일정한 ‘현물 형태’와 더불어 ‘가치 형태’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 1.4.2.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가치

마르크스는 상품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정한 가치 형태로 표현될 때 그 상품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가치로서의 상품의 객관적 성격은 순수하게 사회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가치는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1권62/60)

상품의 가치는 상품의 색깔이나 무게처럼 감각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인간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교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1되의 밀’ = ‘1Kg의 철’이라는 등식에서처럼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상품의 가치는 곁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가치 형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품의 가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 1.4.3. 상품의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 형태가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출발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가치 형태의 발전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화폐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이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들의 가치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표현의 발전을 그 가장 단순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부터 휘황찬란한 화폐 형태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이 달성을 때 화폐의 신비는 곧 사라질 것이다.(1권62/60)

상품의 가치 형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출발하여 ‘전개된 가치 형태’, ‘일반적 가치 형태’를 거쳐서 ‘화폐 형태’에 이르게 된다. 마르크스는 가치 형태의 발전 단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화폐 형태의 성립 과정을 밝히고 나아가 화폐가 갖고 있는 신비한 물신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한다.

### 1.4.3.1. 단순한 가치 형태

상품의 가치 형태는 우선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즉 상품은 다른 상품과의 교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상대적 가치를 드러낸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대적 가치 형태를 그것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고찰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단순한 가치 형태’이다.

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 형태

X량의 상품 A = Y량의 상품 B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1권63/61)

이 교환 관계에서 상품 A(아마포)의 가치는 상품 B(저고리)를 통해서 표현되며, 상품 B는 이러한 가치 표현의 재료가 된다. 여기서 A(아마포)는 자신의 가치를 B(저고리)를 통해 상대적 가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B(저고리)는 등가물(等價物)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단순한 가치 형태’라고 한다.

물론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은 ‘1개의 저고리 = 20미터의 아마포’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저고리가 상대적 가치 형태를 얻게 되고, 반면에 아마포는 등가물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상대적 가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등가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는, 이러한 가치 표현에서 그 상품이 현실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 1.4.3.2. 전개된 가치 형태

마르크스는 ‘단순한 가치 형태’는 불완전한 형태인데, 이것은 좀더 발전한 형태인 ‘전개된 가치 형태’로 이행한다고 말한다.

전체적 또는 전개된 가치 형태

20미터의 아마포 = 1개의 저고리  
= 10g의 차  
= 40Kg의 커피  
= 1쿼터의 밀  
= 기타 등등(1권77/80)

이 교환 관계에서 상품으로서 아마포는 저고리, 차, 커피, 밀과 같은 여러 상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는 아마포가 저고리라는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표현했는데, 이제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는 여러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다양한 종류의 등가물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가치’가 ‘인간 노동 일반의 응고물’이라는 점이 좀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여러 등가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전개된 가치 형태’라고 한다.

### 1.4.3.3. 일반적 가치 형태

마르크스는 ‘전개된 가치 형태’도 이러한 등식 형태가 잡다하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치 형태는 더 발전한 단계인 ‘일반적 가치 형태’로 이행한다고 말한다.

### 일반적 가치 형태

- 1개의 저고리 = 20미터의 아마포
- 10g의 차 = 20미터의 아마포
- 40g의 커피 = 20미터의 아마포
- 1夸터의 밀 = 20미터의 아마포
- 기타 등등 = 20미터의 아마포(1권77/80)

이 교환 관계에서는 저고리, 차, 커피, 밀 등의 여러 상품은 아마포라는 하나의 상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전개된 상대적 가치 형태에서는 하나의 상품이 여러 상품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였지만,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는 여러 상품들이 하나의 상품을 통해 통일적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제 아마포는 다른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인간 노동 일반이 들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여러 상품들이 하나의 공통된 등가물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 형태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적 가치 형태’라고 한다.

#### 1.4.3.4. 화폐 형태

가치 형태의 발전과 더불어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으로 고정되면, 이제 가치 형태는 화폐 형태로 이행하게 된다.

### 화폐 형태(Geldform)

- 1개의 저고리 = 2온스의 금
- 10g의 차 = 2온스의 금
- 40g의 커피 = 2온스의 금
- 1夸터의 밀 = 2온스의 금
- 기타 등등 = 2온스의 금(1권84/89)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던 상품 대신에 그 자리에 ‘금’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들어서게 되면 ‘화폐 형태’(Geldform)가 성립한다. 금은 이전에도 개별적인 교환에서는 개별적 등가물로 기능했던 물건이다. 그러다가 금이 등가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금이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면 금은 이제 ‘화폐 형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처럼 금이 일반적 등가물의 지위를 확보하여 보편적인 가치 표현의 기준이 되는 것을 ‘화폐 형태’라고 한다.

## 1.5. 화폐의 기능

마르크스는 금을 화폐 상품의 대표적인 경우로 전제하여, 이러한 금이라는 화폐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화폐가 가치 척도의 기능, 유통 수단, 축장 기능, 지불 수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 1.5.1. 가치 척도의 기능

마르크스는 화폐의 여러 기능들 중에서 우선 ‘가치 척도’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 세계에 그 가치 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 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 상품은 화폐로 되는 것이다.(1권109/120)

모든 상품이 금이라는 화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게 되면, 모든 상품의 가치는 통일된 금의 양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이 ‘가치의 일반적 척도’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즉 화폐가 상품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가치 척도’(Maß der Werte)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1되의 밀 = 10g의 금’이고 ‘1Kg의 철 = 5g의 금’이라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1되의 밀’이 ‘1Kg의 밀’에 비해 2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1.1. ‘가치 척도’가 가능한 이유

화폐가 이처럼 가치 척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품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공통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 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 척도,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 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 척도(즉 노동 시간)의 필연적인 현상 형태이다.(1권109/120)

모든 상품의 가치가 금이라는 하나의 화폐를 기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인간의 노동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인간의 노동은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구체적 유용 노동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창출하는 ‘인간 노동 일반’ 즉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의 노동이 동일한 질을 바탕으로 양적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그래서 개별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의 가치는 화폐의 양적 크기로 나타나게 된다.

### 1.5.1.2. 가치와 가격의 차이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면서 이 양자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격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이다. [...] 그러나 상품 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Preis)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의 화폐의 교환 비율의 지표[가격]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1권116/129-130)

‘가격’(Preis)이란 상품의 가치(Wert)를 화폐인 금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1되의 밀 = 10g의 금’에서는 ‘1되의 밀’의 가격은 ‘10g의 금’이다. 가격은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의 화폐 명칭’인 것이다. 그런데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며 서로 불일치할 수도 있다. 상품의 ‘가치’(Wert)는 그 상품에 투입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 상품의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물건은 전혀 가치를 갖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황무지는 인간의 노동이 전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갖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물론 대체로 상품의 가격이 형성되는 배후에는 그 상품에 투여된 노동의 양, 즉 가치가 자리잡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로 인해서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 1.5.2. 유통 수단

마르크스는 화폐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에는 ‘유통 수단’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1.5.1.1. 교환 과정에서 상품의 형태 변환 (상품의 유통)

마르크스는 상품이 교환 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다음과 같은 형태 변환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상품의 교환 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 변환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상품 – 화폐 – 상품

C – M – C

그 소재적 내용을 본다면, 이 운동은 C–C,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가 결말을 지을 때에는 이 과정도 사라진다.(1권120/135)

상품은 교환 과정에서 두 번의 형태 변환을 겪게 된다. C(Commodity) – M(Money)의 과정에서 즉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은 화폐로 전환되며, M – C의 과정에서 즉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화폐는 상품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상품이 화폐를 매개로 하여 판매와 구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교환 과정이 순환을 이를 때 이것을 ‘상품 유통’이라고 한다.

### 1.5.2.2. 유통 수단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화폐가 ‘유통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상품은 언제나 판매자 측에 있고 화폐는 구매 수단으로 언제나 구매자 측에 있다. 화폐는 상품의 가격을 실현 시킴으로써 구매 수단으로 기능한다. 화폐는 가격을 실현하면서 상품을 판매자의 수중으로부터 구매자의 수중으로 이전시키며, 그와 동시에 자신은 구매자의 손으로부터 판매자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서 또한 다른 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1권129/147-8)

화폐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매개의 역할을 한다. 판매에서는 상품이 화폐로 전환되며, 구매에서는 화폐가 상품으로 전환된다. 판매와 구매의 과정은 계속 반복되면서 순환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화폐는 이러한 상품의 유통을 매개하는 ‘유통 수단’(Zirkulationsmittel)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화폐가 상품의 유통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폐 유통은 상품 유통의 결과에 불과하다. 유통 수단으로서 화폐의 운동은, 상품이 자신의 형태를 변환시키는 상품의 운동에 불과한 것이다.

### 1.5.2.3. 유통 화폐량의 계산

마르크스는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은 일정하다고 하면서, 이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한다.

일정한 기간의 유통 과정에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 화폐량 = 상품의 가격 총액 / 동일한 명칭의 화폐 조각의 회전 횟수. 이 법칙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1권133/153)

화폐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유통 수단으로 기능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유통 화폐량’은 ‘유통 상품의 가격 총액’을 ‘화폐의 회전 횟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유통 화폐량은 상품의 가격 총액에 비례하고, 화폐의 회전 횟수에는 반비례한다. 만약 상품의 가격 총액이 증가하

면 유통 화폐량은 증가하고, 화폐의 회전 횟수가 증가하면 유통 화폐량은 감소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유통 화폐량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유통 화폐량은 상품의 가격 총량과 화폐의 회전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 1.5.3. 축장(퇴장) 기능

마르크스는 화폐의 또 다른 기능으로 축장 또는 퇴장의 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상품 유통의 최초의 발전과 함께 제1변태의 산물, 즉 상품이 전환된 모습으로서의 금을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 형태를 화폐 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 이러한 형태 변환은 물질 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된다. [...] 이리하여 화폐는 퇴장(축장) 화폐로 화석화되며, 상품 판매자는 화폐 퇴장자(축장자)로 된다.(1권144/166)

상품 생산과 더불어 화폐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확보된 화폐가 바로 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오랫동안 화폐 형태로 그 사람의 수중에 머무를 수 있다. 즉 화폐가 유통 과정에서 분리되어 나중의 구매를 위한 대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화폐를 ‘축장 화폐’(蓄藏貨幣, Schatzbildung) 또는 ‘퇴장 화폐’(退藏貨幣)라고 하며, 여기서 화폐는 축장(퇴장)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때 축장 기능을 담당하는 화폐는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가 실제적 가치를 지닌 화폐여야 한다.

### 1.5.4. 지불 수단

마르크스는 화폐의 기능에는 이외에도 ‘지불 수단’의 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상품 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 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사정들이 발생한다. [...] 어쨌든 구매자는 그 상품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상품을 사는 것이다. [...] 판매자는 채권자로 되며 구매자는 채무자로 된다. 이 경우 상품의 변태 또는 상품의 가치 형태의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폐도 다른 하나의 기능을 획득한다.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된다.(1권149/172)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와 동시에 화폐를 교환하게 되면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상품을 외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 상품을 양도받기는 하였지만, 그 대가로 화폐를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중에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상품의 양도와 화폐의 지급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화폐는 ‘지불 수단’(Zahlungsmittel)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수표나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의 사용이 확대되면, 화폐의 ‘지불 수단’ 기능도 더욱 확대된다.

화폐가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게 되면, 채무를 갚기 위한 화폐의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에는 축장(퇴장) 화폐가 주로 독립적인 부의 축재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축장(퇴장) 화폐는 외상을 갚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불 수단의 준비금 성격을 띠게 된다.

#### 1.5.4.1.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에 내재하는 모순 화폐 공황의 문제

마르크스는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이러한 화폐에는 하나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의 기능에는 하나의 내재적 모순이 있다. 여러 지불이 상쇄되는 한,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계산 화폐 또는 가치 척도로서 오직 관념적으로 기능할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화폐는 [...] 사회적 노동의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 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모순은 산업, 상업의 공황 중 화폐 공황으로 알려진 국면에서 폭발한다. 이 화폐 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 결제의 인위적 조작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1권151-2/175-6)

상품의 양도와 화폐의 지불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면, 이때 상품을 양도한 사람은 채권자가 되고 아직 화폐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채무자가 된다. 상품 교환이 활발해지면 이러한 외상 거래는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어떤 채무자가 과산으로 인해서 제대로 외상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연쇄적인 지불 불능 사태가 발생한다. 이것을 ‘화폐 공황’이라고 한다. 이것은 지불 수단으로서 화폐가, 가치 척도로서 관념적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환가치를 지닌 일반적 상품으로서도 기능한다는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1.6. 화폐의 종류

마르크스는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 종류도 금, 주화, 지폐, 신용 화폐 등으로 다양하게 발달한다고 말한다.

### 1.6.1. 금과 금 주화

화폐의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 또는 금 주화라고 할 수 있다.

화폐는 유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의해 주화의 형태를 취한다. 상품의 가격, 즉 화폐 명칭이 머리 속에서 대표하고 있는 금의 종량은 유통 과정에서는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금 조각 또는 주화로서 상품과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1권138/159)

역사적으로 볼 때 화폐로 가장 널리 쓰였던 물건은 금이다. 금은 분할이나 보관, 운반이 편리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화폐로 사용되는 금은 교환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화’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금 주화’와 ‘금 덩어리’는 외형상 구별되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 그 형태가 전환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 1.6.2. 금이 아닌 금속 주화

금 또는 금 주화를 대신하여 등장한 화폐 형태는 금이 아닌 다른 금속 재료로 만든 ‘금속 주화’이다.

만약 화폐의 유통 그 자체가 주화의 실질적 무게를 그 법정 무게로부터 분리시키고, 기능으로서의 주화를 금속으로서의 주화와 분리시킨다면, 화폐 유통에는 벌써 금속 화폐를 다른 재료로 만든 토큰, 즉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1권140/161)

‘금 주화’는 사용되는 과정에서 마모 등으로 인해 금 주화에 표기된 ‘법정 무게’와 그 주화의 ‘실질적 무게’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화폐로서의 ‘금 주화’와 금속으로서의 ‘금 덩어리’가 서로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금 주화’는 가격을 표시하는 상징적 기능만을 담당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금 주화’ 대신에 은이나 동, 철과 같은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동일한 가격을 표시하는 ‘금속 주화’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 1.6.3. 지폐

금속 주화를 대신하여 등장한 화폐 형태는 ‘지폐’이다.

금의 주화로서의 기능은 금의 금속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무가치한 물건, 예를 들면 지폐가 금을 대신해 주화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주화의 순전히 상징적인 성격은 금속 토큰에서는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지만, 지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1권140/162)

화폐의 형태가 ‘금 주화’에서 금이 아닌 ‘금속 주화’로 바뀌면서, 화폐에 표기된 가격은 화폐 자체의 실질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단지 상징적 가격만을 표시하게 되었다. 즉 화폐의 상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화폐의 상징적 기능은 ‘지폐’ 형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1파운드의 지폐’는 ‘1파운드의 금’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지만 ‘1파운드의 지폐’ 그 자체는 실제로 그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지폐는 단지 상징적인 가치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 1.6.4. 신용 화폐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신용 제도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이제 지폐뿐만 아니라 ‘신용 화폐’도 널리 사용된다.

신용 화폐는 단순 상품 유통의 맥락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들을 전제로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진정한 지폐가 유통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신용 화폐는 지불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그 자연 발생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1권141/162)

화폐의 형태는 ‘금 주화’, ‘금속 주화’, ‘지폐’ 등을 거쳐서 이제 ‘신용 화폐’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여기서 신용 화폐란 어음이나 수표 등을 가리킨다. 지폐가 상품의 판매와 구매를 매개하면서 주로 유통 기능을 담당한다면, 신용 화폐는 주로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음이나 수표와 같은 신용 화폐를 지급하게 되면, 이것은 그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할 때 지불하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불 수단으로서의 신용 화폐는 화폐의 상징적 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1.7. 상품의 물신적 성격

마르크스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 형태, 특히 화폐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독자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리켜서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라고 말한다.

상품 형태의 신비성은, 상품 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 생산물 자체의 물질적 성격, 즉 물건들의 사회적인 자연적 속성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 즉 물건들의 사회적 관계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 이것을 나는 물신숭배(物神崇拜, Fetischismu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동 생산물이 상품으로 생산되자마자 거기에 부착되며, 따라서 상품 생산과 분리될 수 없다.(1권 86-7/93)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그것은 신비한 ‘물신적 성격’(物神的 性格, Fetischcharakter)을 갖게 된다. 상품의 ‘물신성’ 즉 ‘물신적 성격’이란 상품이 인간 노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하나의 독자적

인 힘을 가진 것처럼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독자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상품 교환을 둘러싼 생산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은폐되고, 그 대신에 상품들의 힘에 의해 상품들 사이에 독자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 1.7.1. 상품의 물신적 성격의 발생 원인

마르크스는 이러한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 생산물이 단순히 동질의 인간 노동의 물질적 외피이기 때문에 서로 가치로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한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상이한 생산물을 교환에서 서로 가치로 등치함으로써 그들의 상이한 노동을 인간 노동으로 동등시하는 것이다.(1권88/95)

교환 관계에서 상품들 사이에 일정한 가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그 상품들 속에 인간의 노동, 특히 추상적 인간 노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품들이 서로 가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 노동의 동질성이 확보된다고 본다. 동질의 인간 노동이 상품들 사이의 가치 관계를 형성시키는 바탕이 아니라, 상품들 사이의 가치 관계가 동질의 인간 노동을 형성시키는 바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상품의 물신적 성격이 형성된다고 비판한다.

### 1.7.2. 화폐의 물신적 성격

마르크스는 화폐의 물신적 성격도 이러한 상품의 물신적 성격과 동일하다고 말한다.

이 상품체, 즉 금과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 노동의 직접적 화신으로 된다. [...] 그러므로 화폐 물신(物神)의 수수께끼는 상품 물신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1권107-8/119)

상품의 물신적 성격은 화폐 형태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된다. 상품의 특수한 형태인 화폐는 그 자체의 독특한 자연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모든 상품과 교환될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가진 물건으로 보이게 된다. 그래서 화폐의 물신적 성격은 상품의 경우보다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의 물신적 성격은 상품의 물신적 성격처럼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착각에 불과하다. 화폐의 물신적 성격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신의 가치를 금과 같은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상품이 화폐가 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다.

## 1.8. 상품에 내재하는 모순

마르크스는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대립이나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단초가 된다고 말한다.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대립과 모순이 내재한다.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 사적 노동이 동시에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모순, 특수한 구체적 노동이 동시에 추상적 일반적 노동으로서만 계산

된다는 모순, 사물의 인격화와 인격의 사물화 사이의 대립. 상품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한 상품의 변태의 대립적인 국면들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운동 형태를 전개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은 공황의 가능성을, 그러나 오직 가능성만을 암시하고 있다.(1권147/146)

상품에는 구체적인 유용성을 지닌 ‘사용가치’와 상품 교환의 토대가 되는 ‘(교환)가치’라는 대립적 요소가 동시에 들어 있다. 이것은 특수하면서도 사적인 ‘구체적 유용 노동’과 일반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추상적 인간 노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상품에서는 전자가 후자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나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의 ‘물신적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상품이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독립적인 힘으로서 기능하는 반면에 인격은 오히려 사물의 지위로 전락하기도 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에 내재하는 이러한 대립과 모순이 ‘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공황이 이러한 대립이나 모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황이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 2. 노동

(독 : Arbeit / 영어 : labour)

### 2.1. ‘노동’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노동의 의미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노동’이란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력’(勞動力, Arbeitskraft)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

라면, ‘노동’(勞動, Arbeit)은 이러한 힘을 실제로 발휘하여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특정한 생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듯이, 구체적인 노동의 방식은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지만 노동은 다른 한편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활동으로서, 특정한 사회 형태와는 상관없는 보편적인 의미와 형태를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보편적 의미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한다.

### 2.1.1.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으로서 노동

마르크스는 우선 노동을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노동(Arbeit)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 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 인간은 자연의 소재를 자기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력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연[천성]을 변화시킨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며, 이 힘의 작용을 자기 자신의 통제에 둔다.(1권192/235-6)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활동이다. 인간은 우선 자신의 신체의 힘을 사용하여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고 변형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을 통해 가공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노동 과정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더욱 개발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이란 인간과 자연을 매개하면서 이 양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 2.1.2. 합목적적 활동으로서 노동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동물의 활동과 대비시키면서 ‘합목적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의 의미를 고찰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노동은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노동이다. 거미는 직포공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며, 꿀벌의 집은 인간 건축가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를 가장 훌륭한 꿀벌과 구별시켜주는 점은, 사람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자기의 머리 속에서 그것을 짓는다는 것이다. [...] 노동자는 자연물의 형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자연물에 실현 시킨다.(1권193/236)

노동은 특정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목적적(合目的的) 활동이다. 거미나 꿀벌도 자신의 집을 잘 짓지만 그러나 이것은 본능적인 활동이다. 반면에 인간은 집을 짓기 전에 미리 이것을 머리 속에 구상하고 계획하여 일을 한다. 즉 인간의 노동은 자신이 미리 구상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 활동’(die zweckmäßige Tätigkeit)인 것이다. 이러한 노동의 합목적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좀더 복잡하고 세밀한 것을 만들 수 있었으며 또한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발전된 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 2.1.3. 욕구 충족의 활동으로서 노동

마르크스는 노동을 인간의 욕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고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의 단순하고 추상적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온 노동 과정은 사용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합목적적 활동이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1권198/244)

노동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인간은 우선 생존의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의식주와 같은 생존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을 통해 충족된 욕구는 단지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욕구로 나아가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노동, 더 높은 수준의 노동을 요구한다. 이처럼 노동은, 기본적인 욕구이든 아니면 높은 수준의 욕구이든 간에 인간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 2.1.4. 보편적 삶의 활동으로서 노동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을 인간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삶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노동 과정은 인간 생활의 특정 형태로부터도 독립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 생활의 모든 사회적 형태에 공통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인간과 그의 노동, 다른 편에서는 자연과 그 소재,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밀죽의 맛을 보고 누가 그 밀을 경작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노동 과정을 보아서는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행해지는지 알 수 없다.(1권198/244)

노동은 보편적인 삶의 활동이다. 노동은 특정한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활동인 것이다. 물론 그 사회가 예를 들어 봉건제 사회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인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노동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삶의 활동으로서 노동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진다. 노동은 인간의 삶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보편적 삶의 양식인 것이다.

## 2.2. 노동 과정의 요소들

마르크스는 노동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한다.

노동 과정의 단순한 요소들은 ①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 즉 노동 그 자체, ② 노동 대상, ③ 노동 수단이다.(1권193/236-7)

노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요구된다. 우선 ① 인간의 합목적적 활동으로서 ‘노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르크스는 때로는 ‘노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② 이러한 노동이 가해지는 ‘노동 대상’이 있어야 한다. ③ 인간과 노동 대상을 매개하는 ‘노동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중에서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생산 수단’이라고 부른다.

### 2.2.1. 노동(노동력)

노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 즉 노동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 또는 ‘노동력’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 과정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노동 수단을 통해 노동 대상에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던 변화를 일으킨다.(1권195/239)

노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노동’ 또는 ‘노동력’이다. 여기서 ‘노동력’(Arbeitskraft)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힘이라면, ‘노동’(Arbeit)은 이러한 노동력이 실제로 사용된 것이다. 이미 앞의 ‘노동’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이란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삶의 활동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이자 합목적적 활동이다. 노동은 노동 수단을 사

용하여 노동 대상에 변형을 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노동은 이러한 생산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노동이 ‘주체적 요소’라면 생산 수단은 ‘객체적 요소’가 된다.

### 2.2.2. 생산 수단

노동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는 인간의 ‘노동’과 더불어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 수단’이 있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이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과정 전체를 그 결과인 생산물의 입장에서 고찰하면, 노동 수단과 노동 대상은 생산 수단으로 나타나며, 노동 그 자체는 생산적 노동으로 나타난다.(1권196/240)

‘생산 수단’(Produktionsmittel)이란 생산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노동 수단’(Arbeitsmittel)과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이 포함된다.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과 더불어서 이러한 노동이 가해지는 ‘노동 대상’ 그리고 이러한 노동과 노동 대상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노동 수단’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생산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2.2.2.1. 노동 대상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이란 노동이 가해지는 대상, 따라서 노동을 통해서 가공되거나 변형되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노동 대상에는 ‘천연적 노동 대상’과 ‘가공된 노동 대상’이 있다.

### 2.2.2.1.1. 천연적 노동 대상

우선 노동 대상 중에서 ‘천연적 노동 대상’에 대해 살펴보자.

인간을 위해 최초부터 식량 또는 생활 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는 토지(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물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인간 노동의 일반적 대상으로서 인간의 수고 없이 존재한다. 노동에 의해 자연 환경과의 직접적 연결로부터 분리된 데 불과한 물건들은 모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이다. 예컨대, 그 자연 환경인 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잡힌 물고기, 원시림에서 벌목된 원목, 광맥에서 채취된 광석들이 이에 해당된다.(1권193/237)

‘천연적 노동 대상’은 자연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진 노동 대상을 가리킨다. 즉 인간의 노동을 통해 가공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그대로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토지나 물, 광물, 원목 등은 자연 속에 그대로 존재하던 것이거나 아니면 단지 노동을 통해서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천연적 노동 대상’이라고 부른다.

### 2.2.2.1.2. 가공된 노동 대상

노동 대상에는 위와 같은 ‘천연적 노동 대상’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가공된 노동 대상’도 있다.

만약 노동 대상(Arbeitsgegenstand) 그 자체가 이미 과거의 노동이 스며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원료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미 채굴되어 세광 과정에 들어가는 광석이 그것이다. 원료는 모두 노동 대상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 대상이 원료인 것은 아니다. 노동 대상이 원료로 되는 것은 그것이 이미 노동에 의해 어떤 변화를 받은 경우뿐이다.(1권193/237)

노동 대상에는 천연적 노동 대상 이외에도 ‘가공된 노동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노동을 통해서 가공된 것 즉 ‘원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광맥에서 바로 채취된 광석은 천연적 노동 대상이지만, 세광(洗鑛) 과정을 거친 광석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변형된 것이기에 ‘원료’ 즉 ‘가공된 노동 대상’이 된다. 이처럼 ‘가공된 노동 대상’이란 노동을 통해서 변형된 노동 대상을 가리킨다.

#### 2.2.2.2. 노동 수단

생산 수단에는 노동 대상과 더불어 노동 수단이 존재한다. 노동 수단은 인간의 노동과 노동의 대상을 매개하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도구이다.

노동 수단(Arbeitsmittel)이란, 노동자가 자기와 노동 대상 사이에 끼워 넣어 이 대상에 대한 자기의 활동의 전도체로 이용하는 물건 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복합체이다. 노동자는 여러 물질들의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 물질들을 자기의 힘이 도구로서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다른 물질들에 작용하게 한다.(1권194/237)

‘노동 수단’(Arbeitsmittel)이란 노동자와 노동 대상을 매개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러한 노동 수단에는 돌, 칼, 망치와 같은 단순한 도구부터 시작하여 기계와 같은 복잡한 도구가 포함된다. 인간은 이러한 노동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힘을 노동 대상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 수단의 힘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 수단에는 기계나 도구와 같은 ‘생산 도구’(Produktionsinstrument)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에너지, 운송 수단, 통신 수단 등도 있다.

### 2.2.2.3. 노동 수단의 중요성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 중에서도 특히 ‘노동 수단’이 인류의 역사에서 왜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2.2.2.3.1.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서 인간

마르크스는 인간을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 정의하는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삶에서 노동 수단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동 수단의 사용과 제조는 비록 그 맹아적 형태는 약간의 동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간 특유의 노동 과정을 특징짓는다. 그러므로 프랭클린(B. Franklin)은 인간을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a toolmaking anima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권194/238)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분해 주는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인간이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동물들도 맹아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나 그 범위가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다양한 도구를 제작하여 활용할 뿐만 아니라 도구를 새롭게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자신의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인간을 ‘도구를 제작하는 동물’로 규정한 것이다.

#### 2.2.2.3.2. 사회 발전에서 노동 수단의 중요성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산 수단들 중에서도 특히 노동 수단이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나아가 사회 관계와 사회 형태를 규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멸종한 동물 종족의 신체 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골의 구조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중요성을, 멸망한 경제적 사회 구성체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 수단의 유물이 갖고 있다.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떠한 노동 수단으로 생산되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 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그 속에서 수행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1권194-5/238-9)

노동 수단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여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노동력의 발달 정도와 함께 생산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생산 과정에서 맺게 되는 사회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체의 형태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노동 수단이 경제적 시대나 사회 구성체를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손절구가 봉건 영주의 사회를 낳았다면, 증기 제분기는 자본가의 사회를 낳았다”고 말한다. 이처럼 노동 수단의 형태는 사회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 3. 잉여가치

(독 : Mehrwert / 영 : surplus-value)

#### 3.1. 잉여가치의 형성 과정

##### 3.1.1.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발생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우선 양자의 유통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상품 유통의 직접적 형태는

C—M—C이다. 즉 상품의 화폐로 전환과 화폐의 상품으로 재전환, 다시 말해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그러나 이 형태와 아울러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M—C—M을 발견하게 된다. 즉 화폐의 상품으로 전환과 상품의 화폐로 재전환,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한 구매를 발견하게 된다. 후자의 형태로 유통하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이 되고,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자본이다.(1권161-2/190)

일반적인 상품 유통에서는 상품(C)을 판매하여 화폐(M)를 획득한 다음에 이렇게 획득된 화폐(M)를 가지고 상품(C)을 구매하게 된다. 이것은 ‘화폐로서의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해 화폐(M)로 상품(C)을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획득된 상품(C)을 판매하여 화폐(M)를 얻는 과정도 있다. 이것은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단순한 화폐’가 상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통된다면,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화폐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통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화폐’와 ‘자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 3.1.2. ‘잉여가치’ 개념

마르크스는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은 이제 ‘잉여 가치’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이라는]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M—C—M'이다. 여기서  $M' = M + \Delta M$ 이다. 다시 말해 M'는 최초에 투하한 화폐액에 어떤 증가분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가치(Mehrwert)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에 투하한 가치는 유통 중에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량을 증대시키고 잉여 가치를 첨가한다. 바꾸어 말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1권165/195)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은  $M(\text{화폐}) - C(\text{자본}) - M(\text{화폐})$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운동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려면 나중의  $M'$ 가 처음의  $M$ 보다 더 크게 되는 ‘잉여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잉여가치’(剩餘價值, Mehrwert, surplus-value)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이 자신의 가치를 초과하여 획득한 가치를 가리킨다. ‘화폐로서의 자본’이 유통의 과정에서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켜 잉여가치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단순한 화폐’는 ‘자본’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의 일반 공식’은  $M - C - M'$ 가 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운동  $M - C - M'$ 는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인 자본뿐만 아니라 산업 자본, 대부 자본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운동 형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부른다.

### 3.1.3.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

마르크스는 앞에서 언급한 ‘자본의 일반 공식’, 즉 자본의 일반적인 운동 형태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 유통의 과정인  $M - C - M'$ 에서]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즉 상품 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1권177-8/212-3)

상품의 구매와 판매에서 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면 여기서 잉여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비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고 할지라도 유통의 과정 전체를 본다면 여기서도 잉여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유통은 잉여가치를 획득하여 M'가 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야말로 이러한 자본 유통의 전형적 모습이며, 반면에 ‘상업 자본’이나 ‘대부 자본’은 이로부터 파생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3.1.4. 자본가의 목적으로서 잉여가치

마르크스는 자본가가 활동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잉여가치의 획득이라고 말한다.

자본가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즉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품인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둘째, 그는 생산에 사용한 상품들의 가치 총액, 즉 그가 상품 시장에서 자기의 귀중한 화폐를 투하해 획득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가치 총액보다 그 가치가 더 큰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1권201/247)

자본가는 단지 사용가치만을 지닌 물건이 아니라 교환가치도 지니고 있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또한 자본가는 단지 상품만을 생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즉 자본가는 생산 과정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려고 한다. 이처럼 자본가는 ‘잉여가치를 지닌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 것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 3.1.5.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원천 문제와 관련하여 잉여가치가 노동력에서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 중의 하나인 ‘노동 가치설’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 3.1.5.1. ‘노동력’ 개념

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 개념을 구분하면서, ‘노동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노동력(Arbeitskraft) 또는 노동 능력(Arbeitsvermögen)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즉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가리킨다.(1권181/219)

‘노동력’(勞動力, Arbeitskraft)이란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가리킨다. 즉 노동력이란 인간의 신체 속에 존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 속에 존재하는 ‘노동력’이 현실화된 것, 구체화된 것을 ‘노동’(勞動, Arbeit)이라고 한다. ‘노동력’이 자연을 가공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리킨다면, ‘노동’은 이러한 노동력을 발휘하여 자연을 실제로 가공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 3.1.5.2. 노동력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일반적인 상품의 가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은 결국 이 생활 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귀착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 소유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다.(1권184-5/223)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이러한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생존해야 하며 따라서 이에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치’가 ‘노동력의 가치’가 된다. 이러한 생활 수단에는 육체적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지적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수단의 질과 양은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3.1.5.3. 특수한 상품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는 노동력을 하나의 상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상품들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상품으로 본다.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 과정에서 노동력이 창조하는 가치는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때 이미 가치의 이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 자본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 즉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었다.(1권208/256-7)

노동력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일반적인 상품은 그 형태만 바뀔 뿐 가치량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노동력의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이 창조한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원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10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10원을 초과하는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이다. 이처럼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는 다른 독특한 상품으로서 잉여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 3.1.5.4. 잉여가치의 원천으로서 노동력

마르크스는 노동력이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과 가치를 생산할 때 ‘잉여가치’가 형성된다고 본다.

노동력의 활동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초과 가치를 생산한다.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가치와 그 생산물의 형성에 소비된 요소들인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다.(1권223/276)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를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적인 가치인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잉여가치란 생산 수단 및 노동력의 구입에 들어간 생산 비용과, 새로운 생산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생산 수단의 구입에 10원, 노동력의 구입에 5원이 들어갔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가 20원이라면, 새로운 생산물의 가치 20원에서 총 생산 비용 15원을 뺀 5원이 잉여가치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잉여가치의 원천이 자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력에 있다고 보았다.

### 3.1.5.5. 노동 가치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 또는 잉여가치의 원천이 노동력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 가치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가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라는] 이 상품의 독특한 사용가치, 즉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었다.(1권208/256-7)

‘노동 가치설’(勞動價值說)은 노동을 가치의 원천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은 가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추가적으로 창출된 가치, 즉 잉여가치의 원천이기도 하다. 어떤 상품의 ‘가치’(교환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또한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산출된 ‘잉여가치’도 노동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야말로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며 나아가 모든 사회적 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 3.2. 잉여가치율

#### 3.2.1. 잉여가치와 관련한 자본의 구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을 크게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구분한다.

##### 3.2.1.1. 불변 자본

마르크스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중에서 우선 ‘불변 자본’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와 같이 자본 종에서 생산 수단, 즉 원료, 보조 재료, 노동 수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량이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불변 부분 또는 간단하게 불변 자본(das konstante Kapital)이라고 부를 것이다.(1권223/276)

생산 수단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추가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원료나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의 가치는 새로운 생산물 속으로 그 가치가 그대로 이전될 뿐이

며, 새로운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10원의 가치를 지닌 생산 수단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다면 그 10원의 가치는 새로운 생산물 속에 그대로 이전되어 보존될 뿐이다. 이러한 생산 수단처럼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량이 변동하지 않는 자본을 ‘불변 자본’(不變資本, das konstante Kapital, constant capital)이라고 한다.

### 3.2.1.2. 가변 자본

자본에는 이러한 ‘불변 자본’뿐만 아니라 ‘가변 자본’도 존재한다.

자본 중에서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가 변동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등가물을 재생산하고 또 그 이상의 초과분,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역시 변동하며 상황에 따라 크게도 작게도 될 수 있다. 자본의 이 부분은 불변의 크기로부터 끊임없이 가변의 크기로 전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자본의 가변 부분 또는 간단하게 가변 자본(die variable Kapital)이라고 부를 것이다.(1권224/276-7)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추가적 가치를 창출한다. 즉 노동력은 원래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 속에 이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이상의 새로운 잉여가치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10원의 가치를 지닌 노동력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다면 그 10원의 가치는 새로운 생산물 속에 이전되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이러한 노동력처럼 생산 과정에서 그 가치량이 변동하는 것을 ‘가변 자본’(可變資本, die variable Kapital, variable capital)이라고 한다.

### 3.2.2. 상품의 가치량

마르크스는 앞에서 언급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중심으로 상품의 가치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투하된] 자본 C는 두 부분, 즉 생산 수단에 지출되는 화폐액 c와 노동력에 지출되는 화폐액 v로 구성되어 있다. c는 불변 자본으로 전환된 가치 부분을 표시하며, v는 가변 자본으로 전환된 가치 부분을 표시한다. 따라서 최초에는  $C = c + v$ 이다. 예컨대 투하 자본 500원 = 410원(c) + 90원(v)이다. 생산 과정의 끝에 가서 상품이 나오는데, 그 가치는  $c + v + s$ 이며, 여기서 s는 잉여가치이다. 예컨대 410원(c) + 90원(v) + 90원(s)이다. 최초의 자본 C는 C'로, 500원에서 590원으로 되었다. 이 양자 사이의 차액은 s, 즉 90원의 잉여가치이다.(1권226/280)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C'$ (상품의 가치) =  $c$ (불변 자본) +  $v$ (가변 자본) +  $s$ (잉여가치). 상품의 가치는 생산 수단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비용인 ‘불변 자본’과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비용인 ‘가변 자본’,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이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잉여가치’로 구성된다. 따라서 처음에 투하된 자본은  $c + v$ 이지만, 나중에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에는  $s$ 가 추가되어서 그 상품의 가치는  $c + v + s$ 가 되는 것이다.

### 3.2.3. 잉여가치율 자본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성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잉여가치율을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잉여가치의 상대량, 즉 가변 자본이 가치 증식된 비율은 분명히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s/v$ 에 의해 표현된다. [...] 가변 자본의 이와 같은 가치 증식의 비율 또는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나는 잉여가치율이라고 부른다.(1권230/284-5)

‘잉여가치율’(剩餘價值率, die Rate des Mehrwert, the rate of surplus value)이란 ‘가변 자본의 가치 증식 비율’, 즉 가변 자본이 잉여가치를 창출한 상대적 비율을 가리킨다. 잉여가치율 =  $s$ (잉여가치) /  $v$ (가변 자본)이다. 즉 잉여가치율은 노동력의 구입에 사용된 가변 자본이 얼마만큼의 잉여가치를 창출해 내었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C'(상품의 가치)590원 =  $c$ (불변 자본)410원 +  $v$ (가변 자본)90원 +  $s$ (잉여가치)90원. 이 경우에 잉여가치율은  $s/v$  = 90원 / 90원 = 100%이다.

### 3.2.4. 잉여가치와 관련한 노동의 구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산출과 관련하여 노동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으로 구분한 다음에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각각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이라고 부른다.

#### 3.2.4.1. 필요 노동

마르크스는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 중에서 우선 ‘필요 노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1노동일 중에서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부분을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되는 노동을 필요노동이라고 부른다.(1권230-1/286)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즉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입하는 생필품 비용이나 교육 및 기술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이다. 이것은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만약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의 노동 시간 중에서 6시간을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사용한다면, 필요 노동 시간은 6시간이 되며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필요 노동’이라고 한다. 이처럼 ‘필요 노동’(必要勞動, die notwendige Arbeit, necessary labour)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가리킨다.

### 3.2.4.2. 잉여노동

마르크스는 ‘필요 노동’과 대비되는 ‘잉여노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 과정의 제2 기간, 즉 노동자가 필요 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은 노동자가 노동력을 지출해 노동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잉여가치를 창조하는데,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는 무로부터 창조라는 커다란 매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일의 이 부분을 나는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간 중에 수행하는 노동을 잉여 노동이라고 부른다.(1권231/286)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필요 노동 시간을 넘어서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시간을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 즉 잉여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 시간을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하며, 거기에 투입된 노동을 ‘잉여 노동’이라고 한다. 만약 하루 12시간의 노동 시간 중에서 6시간이 필요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면, 잉여 노동 시

간은 그 나머지인 6시간이 된다. 이처럼 ‘잉여 노동’(剩餘勞動, Mehrarbeit, surplus labour)이란 필요 노동을 초과하여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된 노동을 가리킨다.

### 3.2.5. 잉여가치율

#### 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앞에서는 잉여가치율을 자본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잉여가치율을 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 즉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율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율(die Rate des Mehrwert)의 비율은 필요 노동에 대한 잉여 노동의 비율과 같다. 바꾸어 말해, 잉여가치율  $s/v =$  잉여 노동/필요 노동이다. 이 두 비율은 동일한 관계를 상이한 형태로, 즉 전자에서는 대상화된 노동의 형태로, 후자에서는 살아있는 유동적인 노동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1권231-2/287)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의 구성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잉여가치율은  $s$ (잉여가치) /  $v$ (가변 자본)이다. 그런데 ‘가변 자본’의 가치는 결국 ‘노동력의 가치’와 같고, 노동력의 가치는 필요 노동 시간에 창출된 가치와 같기 때문에 ‘가변 자본’ 대신에 ‘필요 노동’을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잉여가치’는 ‘잉여 노동 시간’에 창출된 가치이기 때문에 ‘잉여가치’ 대신에 ‘잉여 노동’을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잉여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잉여가치율(잉여가치/가변 자본) = 잉여 노동 / 필요 노동.

만약 하루 12시간의 노동 시간 중에서 6시간이 필요 노동 시간이고, 나머지 6시간이 잉여 노동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잉여가치율은 6시간 / 6시간 = 100%이다. 이처럼 잉여가치율을 상품에 투입된 자본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는 상품 생산에 투입된 노동 시간의 구성 비율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전자가 ‘대상화된 노동’ 즉 상품 속에 이미 투입되어 응고된 노동인 자본의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후자는 ‘살아있는 유동적 노동’ 즉 현재 투입되고 있는 노동 시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 3.2.6. ‘착취도’로서 잉여가치율

마르크스는 이러한 잉여가치율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도’, 즉 착취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잉여가치율은 자본에 의한 노동력의 착취도 또는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다.(1권232/287)

잉여가치의 원천은 노동력이다. 노동력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자신의 가치를 넘어서는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잉여가치는 필요 노동 시간을 넘어서는 잉여 노동 시간에서 산출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창출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을 ‘착취’라고 보았다. 따라서 ‘잉여가치율’ 즉 잉여가치/가변 자본 또는 잉여 노동/필요 노동은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榨取度, Exploitationsgrad, degree of exploitation), 다시 말해 착취의 정도를 표현해 준다. 잉여가치율은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3.2.7.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차이점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은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 이 중에서 노동 착취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잉여가치율이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생산물의 가치는  $c410원 + v90원 + s90원$ 이었고 투하 자본은 500원이었다. 잉여가치는 90원이고 투하 자본은 500원이므로, 보통의 계산 방식에서는 이윤율(Profitrate)과 혼동되고 있는 잉여가치율은 18%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캐리(Carey)나 다른 조화론자들을 감동시킬 만큼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사실 잉여가치율은  $s/C$  또는  $s/(c+v)$ 가 아니라  $s/v$ 이며, 따라서  $90/500$ 이 아니라  $90/90 = 100\%$ 인데, 이것은 외견상의 착취도의 5배 이상이나 더 크다.(1권232/287-8)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를 비판하면서 이 양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상품의 가치가 590원 =  $c$ (불변 자본)410원 +  $v$ (가변 자본)90원 +  $s$ (잉여가치)90원이라고 하자. ‘이윤율’(利潤率, Profitrate)은 잉여가치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을 포함한 총 투하 자본으로 나눈 것, 즉  $s/(c+v)$ 이므로  $90원/(410원+90원) = 18\%$ 가 된다. 반면에 ‘잉여가치율’은 잉여가치를 가변 자본으로 나눈 것, 즉  $s/v$ 이므로  $90원/90원 = 100\%$ 가 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윤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잉여가치율이 노동 착취도를 제대로 드러내 준다고 본다.

### 3.2.8. 잉여생산물

마르크스는 총생산물 중에서 이렇게 잉여 노동을 통해 산출된 부분을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른다.

생산물 중에서 잉여가치를 대표하는 부분(앞의 예에서는 20파운드의 면사의 1/10, 즉 2파운드의 면사)을 우리는 잉여 생산물(Mehrprodukt)

이라고 한다. [...] 잉여 생산물의 상대적 크기도 총생산물 중에서 잉여 생산물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잉여 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생산물 중에서 필요 노동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잉여 생산물의 비율에 의해서 규정된다.(1권243/302-3)

‘잉여 생산물’(剩餘生産物, Mehrprodukt)이란 생산물 중에서 잉여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면사의 가치 30원 = 24원(불변 자본) + 3원(가변 자본) + 3원(잉여가치)이라고 하자. 이때 이러한 각각의 가치에 해당되는 생산물을 면사의 무게로 환산하면, 면사 20파운드 = 16파운드 + 2파운드 + 2파운드가 된다. 여기서 잉여가치에 해당되는 2파운드의 면사가 잉여 생산물이 된다.

### 3.3. 잉여가치의 종류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를 산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로 구분한다.

#### 3.3.1. 절대적 잉여가치

##### 3.3.1.1.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과 관련하여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구분하는데, 우선 절대적 잉여가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 (der absolute Mehrwert)라고 부른다.(1권334/427)

잉여가치에는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절대적 잉여가치’(絕對的 剩餘價值, der absolute

Mehrwert, absolute surplus-value)란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연장하여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잉여가치는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잉여 노동 시간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총 노동 시간을 연장하면 이에 따라 잉여 노동 시간도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잉여가치도 늘어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과정을 노동일, 즉 노동 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 잉여가치’란 일정한 노동 시간 중에서 필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분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고, 그 중에서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 노동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 노동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 때 총 노동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A—C가 13시간이 되면, 잉여 노동이 3시간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총 노동 시간인 A—C를 12시간으로 고정하고 그 대신에 필요 노동인 A—B를 9시간으로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인 B—C는 3시간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이다.

### 3.3.1.2. 노동일(노동 시간)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합계, 즉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를 대체하는 시간과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시간의 합계가 노동자의 노동 시간의 절대적인 크기, 즉 노동일(Arbeitstag)을 이루고 있다.(1권 244/303)

‘노동일’(勞動日, Arbeitstag)이란 노동자가 하루 중에서 일하는 시간의 합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잉여 노동 시간’의 합계와 같다. 노동일이란 노동자가 하루 중에서 노동을 하는 시간을 절대적 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 3.3.1.3. 노동일의 가변성

마르크스는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이 잉여 노동 시간의 길이에 따라 변화하므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노동일은 불변량이 아니라 가변량이다. 노동일의 두 부분 중 하나가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일의 전체 길이는 잉여 노동의 길이 또는 계속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그러므로 노동일은 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이다.(1권246/305)

노동자의 하루 노동 시간, 즉 ‘노동일’은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필요 노동 시간을 넘어서는 잉여 노동 시간은 가변적이어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일도 잉여 노동 시간의 길이에 따라 그 크기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필요 노동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한다면, 잉여 노동 시간이 3시간 또는 6시간인가에 따라 노동일은 9시간 또는 12시간이 된다.

### 3.3.1.4. 노동일의 한계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이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노동일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최소 한도는 규정할 수 없다. [...]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최대 한도가 있다. 노동일은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다. 이 최대 한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 규정된다. 첫째,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 또 한 정신적 한계에 부딪힌다.(1권246/305-6)

노동일이 비록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노동일의 최소 한도는 필요 노동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잉여가치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시간이 최소한 그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 노동일의 최대 한도는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와 정신적 한계에 의해서 규정된다. 즉 수면 시간이나 식사 시간과 같은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뿐만 아니라 지적, 사회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 그 최대 한도가 규정된다.

### 3.3.1.5. 자본가의 노동일의 확대 욕구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가는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연장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갖는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의 가치로 구매했다. 1노동일 동안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가에게 속한다. 즉 자본가는 하루 동안 자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 자본가는 오직 인격화된 자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혼은 자본의 혼이다. 그런데 자본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이 있을 따름이다. 즉 자신을 가치 증식시키며, 잉여가치를 창조하며, 자기의 불변 부분인 생산 수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충동이 그것이다.(1권247/306-7)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그래서 자본가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더 많은 잉여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잉여 노동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한다.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자본가의 최고 목표는 잉여가치의 증식이며, 따라서 노동일을 확대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획득한 잉여가치를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한다.

### 3.3.1.5.1. 노동일의 표준화를 둘러싼 투쟁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가 서로 맞섰을 때는 힘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해 총자본 즉 자본가 계급과 총노동 즉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권249/310)

자본가는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가급적이면 노동일을 연장하려고 한다. 이에 비해 노동자는 노동력의 판매자로서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해 관계나 권리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은 결국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일의 표준화를 둘러싼 투쟁에는 계급적 이해 관계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 3.3.1.5.2. 지배 계급의 일반적인 잉여 노동에 대한 갈망

마르크스는 역사상 모든 지배 계급들은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잉여 노동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한다.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노동자는, 자신이 자유로운 노동자이건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이건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에다 여분의 노동 시간을 첨가해 생산 수단의 소유자를 위한 생활 수단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 생산 수단의 소유자가 아테네의 귀족, 어트루리아의 신정관, 로마의 시민, 노르망디의 영주, 미국의 노예 소유주, 윌라키아의 보야르, 현대의 지주 또는 자본가이건 다 마찬가지다.(1권249-50/310)

생산 수단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는 계급 사회에서 지배 계급은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잉여 노동을 착취하려고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배 계급을 위해 일하는 잉여 노동이 된다. 잉여 노동을 착취하려는 갈망은 귀족, 영주, 지주, 자본가 등을 포함한 지배 계급 일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잉여 노동에 대한 무한한 욕망이 자본의 운동 그 자체에서 발생함으로써 과도한 노동이 보편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 3.3.1.5.3. ‘공장법’의 위반을 통한 노동 시간의 연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들은 노동 시간의 한계를 규정한 ‘공장법’을 위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 시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서 훔쳐내는 이 ‘좀도둑질’을 공장 감독관들은 ‘분(分) 도둑’, ‘분 뜯어내기’라고 부르며, 노동자들의 전문 용어로는 ‘식사 시간 야금야금 깎아 먹기’라고도 한다.(1권257/320)

1850년에 제정된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노동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서 여러 불법이나 편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5분 짧게 하거나, 아니면 10분 빨리 출근하여 10분 늦게 퇴근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시간을 조금씩 연장시킨다. 자본가들은 노동 시간의 연장이 잉여가치를 증식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공장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설사 이러한 불법이 적발된다고 할지라도 벌금보다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불법을 자행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을 연장하여 잉여 노동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심지어 공황에서도 나타난다. 공황 때는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데, 자본가는 이때에도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잉여 노동 시간을 늘리려고 시도한다.

### 3.3.1.5.4. ‘공장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공장법’이 적용되지 않은 소규모 공장 등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 착취가 더욱 심한 형태로 발생한다.

이때까지 우리가 노동일의 연장에 대한 충동, 잉여 노동에 대한 늑대와 같은 갈망을 고찰해 온 분야는,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뜯지 않은 자본의 극도의 무법성(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말) 때문에 자본을 드디어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얹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분야였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노동력의 착취가 지금도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있거나 아주 최근까지도 구속을 받지 않았던 약간의 생산 부문으로 돌려보자.(1권258/321-2)

하루 평균 10시간 이내의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에서도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잉여가치를 늘리려는 불법이나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법’의 적

용을 받지 않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훨씬 더 심각한 편이다. 빵집이나 작은 봉제 공장과 같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노동 시간을 최대로 늘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는다. 이런 곳에서는 심지어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까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어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 3.3.1.5.5. 주간과 야간 노동의 교대제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간, 야간 노동의 교대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불변 자본인 생산 수단은 가치 증식 과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직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노동의 한 방울 한 방울과 함께 그것에 비례하는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 노동을 하루 24시간 전체에 걸쳐 착취하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충동이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력을 낮과 밤 계속 착취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과 야간에 소모하는 노동력을 교대할 필요가 생긴다.(1권271/341-2)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은 가급적이면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더 많은 잉여 노동을 흡수하며, 그래야 자본가에게 더 많은 이윤을 남겨줄 수 있다. 생산 수단을 24시간 최대한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낮과 밤 계속하여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주야 교대제’ 또는 ‘윤번제’이다. 이것은 주간 노동과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서로 교대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대제에서는 결근자가 생길 경우에

그 대신에 일을 해야 하므로 노동 시간이 연장되며, 또한 생활 리듬도 깨져서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된다.

### 3.3.1.5.6.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입는다고 말한다.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잉여 노동의 흡수인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노동력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도덕적, 육체적 발전 조건과 활동 조건을 탈취함으로써, 인간 노동력의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동력 그 자체의 조기 소모와 사망을 가져온다.(1권281/355)

잉여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력의 착취도를 강화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서 노동자는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거나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노동자의 수명이 단축되어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늘어난다. 잉여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삶을 파괴하는 것이다.

### 3.3.1.6.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률들

마르크스는 노동일, 즉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면서 이것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 3.3.1.6.1. 노동일의 연장을 위한 강제법

초기의 노동법은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이었다.

표준 노동일의 제정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수세기에 걸친 투쟁의 결과다. 그러나 이 투쟁의 역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여준다. 예컨대 현재의 영국의 공장법과 14세기에서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영국의 노동 법규들을 비교해 보라. 현대의 공장법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으나, 이전의 노동 법규들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1권286/362)

18세기 이전에는 농업과 같은 분야에서 공업 분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다. 따라서 공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장주나 자본가는 항상 새로운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최대로 노동력을 착취하여 많은 잉여가치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들은 과도한 노동에 따른 노동자의 조기 사망과 이로 인해 노동력의 고갈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는 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계급 투쟁과 노동력의 고갈 문제 등이 대두하면서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 3.3.1.6.2.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

그러나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노동 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의 시간, 한계, 중단을 그와 같이 군대식으로 일률적으로 시계의 종소리에 맞추어 규제하는 이 세밀한 규정들은 결코 의회가 고안해 낸 것이 아니었다. 세밀한 규정들은 근대적 생산 양식의 자연 법칙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

이다. 국가에 의한 그것들의 제정, 공식적 인정, 선포는 장기간의 계급 투쟁의 결과였다. [...] 대체로 보아 1844~47년 동안 12시간 노동일은 공장법(Fabrikgesetzgebung)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한결같이 실시되었다.(1권299/379)

18세기 중반에 이르자 공업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저항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자본가들도 장시간 노동이 노동력의 고갈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공장들 사이의 노동 시간의 차이로 인해 노동력 착취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노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공장법’이 제정되어 모든 산업 분야로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장법은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서 1850년을 기점으로 하루 10시간 노동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 3.3.1.6.3. 노동 시간과 계급 투쟁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업의 발달과 같은 물질적 생산 양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노동 시간과 관련된 법규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 시간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려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나중에는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균일화하려는 ‘공장법’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의 수급 상황이나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투쟁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바뀜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18세기 중반의 영국의 ‘공장법’에 의해서 대표되는 노동법은 점차 프랑스,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표준 노동 시간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자들은 노동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갖게 됨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3.3.1.7. 잉여가치량의 법칙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량이 결정되는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법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3.3.1.7.1. 잉여가치량의 제1법칙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량이 가변 자본과 잉여가치율에 의해 결정 된다는 ‘잉여가치량의 제1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산되는 잉여가치량(die Masse des Mehrwert)은 투하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잉여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바꾸어 말해, 그것은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적으로 착취당하는 노동력의 수와 개별 노동력의 착취도의 곱에 의해 결정된다.(1권321-2/409)

노동자의 잉여 노동에 의해 산출된 잉여가치의 량은 다음과 같 이 계산될 수 있다. <잉여가치량 = 가변 자본 × 잉여가치율>. 그런데 가변 자본은 노동력의 구입에 사용된 비용이며, 잉여가치율은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이기 때문에 이 법칙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잉여가치량 = 노동력의 수 × 노동력의 착취도>.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잉여가치량’은 노동력의 구입에 사용된 가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한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인 잉여 가치율에도 비례한다. 가변 자본과 잉여가치율이 클수록 잉여가치율도 높아진다. 이것이 ‘잉여가치량의 제1법칙’이다.

#### 3.3.1.7.2. 잉여가치량의 제2법칙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율을 높여서 잉여가치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잉여가치량의 제2법칙’을 통해 설명한다.

평균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가변 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의 제고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1권323/411)

<잉여가치량 = 가변 자본 × 잉여가치율>이다. 만약 고용 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어 가변 자본이 감소할 경우에 잉여가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을 높여야 한다. 즉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를 높여야 한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착취도, 즉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한 잉여 노동 시간의 비율을 향상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잉여가치량의 제2법칙’이다.

이러한 제2법칙은, 고용 노동자의 수를 줄여서 가변 자본의 크기를 축소하려는 자본의 경향과 서로 모순이 된다는 점에서도 자본의 운동 경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다.

### 3.3.1.7.3. 잉여가치량의 제3법칙

이렇게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때는 잉여가치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의 규모를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잉여가치량의 제3법칙’이다.

만약 잉여가치율, 즉 노동력의 착취도와 노동력의 가치, 즉 필요 노동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가변 자본이 크면 클수록 생산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도 더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1권324/411)

잉여가치율, 즉 노동력의 착취도가 일정하고 그리고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의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일정하다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가변 자본을 크게 해야 잉여가치량도 늘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착취도를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1단위의 노동력의 구입 비용을 더 이상 줄일 수도 없다면, 이 경우에는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가변 자본을 크게 해야 잉여가치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잉여 가치량의 제3법칙’이다.

### 3.3.1.8. 화폐 소유자의 자본가로 전환 조건

마르크스는 자본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가’와 단순한 ‘화폐 소유자’의 역할이 서로 분리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이르면, 자본가는 자본가로서, 즉 인격화된 자본으로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 노동의 취득과 관리, 그리고 노동 생산물의 판매에 바쳐야 한다. [...] 개별적인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가치액의 최소 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또 주어진 발전 단계에서도 생산 분야가 다르면 각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1권326-7/415-6)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자본가’는 자신의 시간을 노동자를 관리하거나 노동 생산물을 판매하는 데 전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화폐 소유자가 이와 같은 완전한 자본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즉 생산 설비와 노동자의 고용 규모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서 상당한 잉여가치가 창출되어야만, 자본가는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러한 생산 설비나 노동력의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생산 규모나 투자 금액의 크기는 산업의 발전 단계나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르다.

### 3.3.1.9. 잉여가치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 소외

마르크스는 이렇게 노동 시간의 연장을 통해 잉여가치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한다.

만약 우리가 생산 과정을 단순한 노동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의 단순한 수단 및 재료로 대한다. [...] 그러나 생산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의 입장에서 고찰할 때 사정은 달라진다. 생산 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한다. 더 이상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즉 가치와 가치 창조력 사이의 이와 같은 전도 또는 왜곡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이다.(1권328-9/417-8)

노동이란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합목적적 활동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을 자본주의적인 가치 증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 수단은 노동의 가치를 흡수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여기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중심이 된다. ‘죽은 노동’인 생산 수단이 ‘살아 있는 노동’인 노동자의 생산 활동을 지배하는 ‘전도’ 또는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이 단지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노동 소외(勞動疎外)가 발생하게 된다.

### 3.3.2. 상대적 잉여가치

#### 3.3.2.1. ‘상대적 잉여가치’ 개념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절대적 잉여가치’와 더불어 ‘상대적 잉여가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대적 잉여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상대적 잉여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 (die absolute Mehrwert)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과 이에 대응해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die relative Mehrwert)라고 부른다.(1권 334/427)

‘절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을 절대적으로 연장하여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 잉여가치’(相對的 剩餘價值, die relative Mehrwert)는 일정한 노동 시간 중에서 필요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잉여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총 노동 시간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력의 재생산에 사용되는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이에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필요 노동 시간과 잉여 노동 시간의 상대적인 비율 변화를 통해 확보된 잉여가치가 ‘상대적 잉여가치’이다.

예를 들어 선분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고, 그 중에서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 노동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 노동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때 총 노동 시간을 1시간 더 늘려서 A—C가 13시간이 되면, 잉여 노동이 3시간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총 노동 시간인 A—C를 12시간으로 고정하고 그 대신에 필요 노동인 A—B를 9시간으로 줄인다면, 상대적으로 잉여 노동인 B—C는 3시간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이다.

### 3.3.2.2.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방법

마르크스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3.3.2.2.1. ‘노동 생산성’의 향상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산을 따라서 일상적 생활 수단에 속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 부문들에서 노동 생산성(die Produktivkraft der Arbeit)이 상승해야 한다.(1권334/427)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사용되는 필요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가치를 저하시켜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생산 부문에서 생산성이 상승되어야 한다. 즉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에서 노동 생산성이 상승되어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될 때 상대적 잉여가치는 증식될 수 있다.

##### 3.3.2.2.1.1. ‘노동 생산성의 상승’ 개념

‘노동 생산성의 상승’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die Erhöhung der Produktivkraft der Arbeit)이라는 말은 노동 과정에 변화가 일어나 상품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며, 그리하여 주어진 양의 노동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노동 생산성이 증

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 과정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 따라서 생산 방식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1권333/426)

‘노동 생산성’(die Produktivkraft der Arbeit)이란 노동력을 투입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다는 말은 동일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 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상품을 생산해 내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시간에 5개의 상품을 생산했는데, 이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1시간에 10개의 상품을 생산한다면, 1개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 노동 시간은 1/2로 줄어들었다.

노동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거나 생산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바꿈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생활 수단의 가격이 하락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시간이 단축되며, 그 결과 노동력의 가치도 저하된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필요 노동을 줄이고 잉여가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 3.3.2.2. 특별 잉여가치

이러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특별 잉여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더욱 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된다.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경우에 실제로 소요되는 노동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되며, 따라서 3원의 특별잉여가치(Extramehrwert)를 실현하게 된다.(1권336/429-430)

어떤 자본가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특정 상품을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 상품을 시중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보다 그 차액만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 잉여가치’(特別剩餘價値, Extramehrwert, extra surplus-value)라고 한다. 이러한 특별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특정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개별적인 노동 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사회적 필요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자본가들은 이러한 특별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개선된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 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노동 시간 중에서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이것은 총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채택하는 방식을 개별 자본이 개별적으로 채택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산 방식이 일반화되어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에 차이가 제거되면 이 특별 잉여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 3.3.2.3.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한 자본의 욕구

자본은 더 많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확보하려는 욕구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추구한다.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 생산성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한다. [...] 그러므로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없는 경향이다.(1권338/432)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 생산성과 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본가는 더 많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끊임없이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욕구는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가 하루의 노동 시간 중에서 자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다.

### 3.3.2.4. 생산 방식의 발달 형태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생산 방법이 발달하면서 협업, 공장제 수공업(매뉴팩처), 기계제 대공업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하였다.

#### 3.3.2.4.1. 협업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 방식은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 3.3.2.4.1.1. ‘협업’ 개념

마르크스는 ‘협업’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동일한 생산 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관련된 생산 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 형태를 협업 (Kooperation)이라고 한다.(1권344/441)

‘협업’(協業, Kooperation, cooperation)이란 물건을 만드는 동일한 생산 과정이나 연관된 생산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협력하여 노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협업에는 ‘단순 협업’과 ‘분업에 의한 협업’이 있다. ‘단순 협업’은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분업이 없이 단순한 협력의 형태로 작업을 한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발달된 형태인 ‘분업에 의한 협업’은 작업 과정을 기술적으로 분할하여 노동자들에게 서로 다른 작업을 분담시킨다.

### 3.3.2.4.1.2.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로서 협업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동시적으로 고용하는 형태의 협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 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또는 같은 노동의 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을 출발점을 이룬다.(1권341/436)

자본주의 사회에서 ‘협업의 초기 형태’는 개별 자본가가 동일한 작업장에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여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대규모로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새로운 변화의 측면이 있다. 개별 노동자들 사이의 노동의 차이가 평균화되며, 건물이나 창고, 기구 등과 같은 생산 수단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생산 수단이 절약된다. 이로 인해 자본가는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3.3.2.4.1.2.1. 협업에서 자본가의 지휘와 통제 역할

협업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정착하게 되면, 자본가는 협업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휘와 감독과 조절의 기능은 자본의 지배 하에 있는 노동이 협업 방식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하나의 기능으로 된다. 자본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지휘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 [...] 자본가에 의한 통제는 사회적 노동 과정의 성질로부터 유래하는 하나의 특수 기능일 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 사회적 노동 과정을 착취하는 기능이다.(1권350/447-8)

자본가는 대규모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휘와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대규모의 협업에서도 많은 시설과 노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지휘자가 필요하다. 특히 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 이들의 반향도 증대하므로 이를 억누르기 위한 통제도 강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지휘나 통제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력을 최대로 착취하여 잉여가치를 늘리려는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협업의 규모가 아주 커지게 되면, 자본가는 이러한 지휘와 관리의 역할을 중간 관리자에게 넘기게 된다. 균대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장교와 하사관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협업에서도 감독자나 지배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 3.3.2.4.1.3. 협업의 효과

마르크스는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집단적 힘이 창출되고,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상대적 잉여가치도 증가한다고 본다.

#### 3.3.2.4.1.3.1. 새로운 집단적 힘의 창출

우선 협업은 개별적 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집단적 힘을 산출하는 효과를 냥음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 개별 노동자들의 기계적인 힘의 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의 작업에 참가할 때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거나 원치를 돌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에 결합 노동의 성과는 고립된 개별 노동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거나 또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든다. [...] 이와 같이 협업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 즉 집단적 힘(Massenkraft)이 창조되는 것이다.(1권345/441)

협업의 과정에서는 고립적인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발휘하는 힘의 합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적인 집단적 힘(Massenkraft)이 창출된다.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없지만 협업을 통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힘을 통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생산적 노동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경쟁심이나 혈기가 자극되어 작업 능률이 증가한다. 협업은 개인의 생산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개별적인 힘을 넘어서는 새로운 집단적 힘을 창출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 3.3.2.4.1.3.2. 생산 규모의 확대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또한 협업을 하게 되면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협업은 한편으로는 작업을 넓은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어떤 노동 과정에서는 노동 대상의 물리적 구조 그 자체가 벌써 협업을 요구한다. 예컨대 배수 공사, 제방 공사, 관개 공사, 운하 건설, 도로 건설, 철도 부설 등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 협업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생산의 공간적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 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노동의 공간적 범위의 축소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1권348/445)

협업을 통해 생산 규모가 커지면 많은 노동자들이 넓은 공간에서 동시에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작업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협업은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와 동시에 노동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에 소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래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3.3.2.4.1.3.3. 노동 생산성 및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협업을 통해 얻게 되는 이러한 효과들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 잉여가치도 증가하게 된다.

결합된 노동일은 그것과 동일한 크기의 개별 노동일의 합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주어진 유용 효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감소시킨다.(1권348/445)

‘결합된 노동일’ 즉 협업에 투입된 노동 시간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개별 노동일에 비해서 더 많은 사용가치를 생

산해 낸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인 생산은 필요 노동 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가시킨다. 협업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집단적 힘의 창출, 생산 규모의 확대와 작업 공간의 효율적 사용, 많은 노동력의 집중적 가동, 개인의 경쟁심 자극, 생산 수단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절약 등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적 잉여가치의 원천이 된다.

### 3.3.2.4.2. 매뉴팩처(공장제 수공업): 분업에 의거한 협업

단순 협업의 형태가 더 발달하게 되면 이것은 ‘분업에 의거한 협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마르크스는 분업에 의거한 협업 형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뉴팩처, 즉 공장제 수공업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도한다.

#### 3.3.2.4.2.1. ‘매뉴팩처’ 개념

마르크스는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분업에 의거한 협업은 매뉴팩처(Manufaktur)에서 그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대략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의 마지막 1/3에 이르는 진정한 매뉴팩처 시대를 통해 지배적이었다.(1권356/455)

‘매뉴팩처’(Manufaktur)는 분업에 의거한 협업을 바탕으로 수작업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이다. 매뉴팩처는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단순 협업’과 다르며, 본격적으로 기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수작업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기계제 대공업’과도 다르다. 분업에 의거한 협업의 한 형태로서 매뉴팩처는 단순 협업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해 가는 중간 단계이다. 자본가는 매뉴팩처를 통해 대량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크게 증가시켰다.

### 3.3.2.4.2.2. 매뉴팩처의 발생 과정

마르크스는 매뉴팩처의 기원을 분석하면서, 매뉴팩처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는 다양한 독립적 수공업자들이 결합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같은 종류의 독립적 수공업자들이 결합하여 협업을 하는 방식이다.

#### 3.3.2.4.2.2.1. 다양한 독립적 수공업자들의 결합 방식

매뉴팩처는 다양한 독립적 수공업자들이 하나의 작업장에 모여 일을 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매뉴팩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1) 어떤 하나의 생산물이 완성되기까지는 이들의 손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종류의 독립적 수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동일한 자본가의 통제 하에 하나의 작업장으로 모이는 경우.(1권356/455)

매뉴팩처가 형성되는 방식들 중의 하나는,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독립적 수공업자들이 동일한 작업장에 모여서 협업을 할 경우이다. 예를 들어 마차는 수레바퀴 제조공, 마구 제조공, 재봉공, 가구공 등 수많은 독립 수공업자들이 각자의 작업장에서 만든 물건을 결합시킨 것인데, 매뉴팩처에서는 이들이 하나의 작업장에 모여 자본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마차를 제조하게 된다. 즉 다양한 독립적 수공업자들이 분업에 의거한 협업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는 이러한 분업이 더욱 세분화되어 마차의 생산 과정에서 각 부분이 특정 노동자의 전문 기능에 맡겨지게 된다. 이러한 매뉴팩처 생산 방식은 직물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 되었다.

### 3.3.2.4.2.2. 같은 종류의 수공업자들의 협업 방식

매뉴팩처는 또한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던 수공업자들이 하나의 공장에 작업 공정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어떤 자본가가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 수 많은 수공업자들을 동시에 동일한 작업장에 고용한다. [...] 동일한 수공업자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을 차례차례 시키는 대신 그 작업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키고 공간적으로 병립시켜 각각의 작업을 서로 다른 수공업자에게 할당한다. 그리하여 전체 작업이 협업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동시에 수행된다. 이와 같은 우연적 분할이 반복되고 그 자체의 장점을 전개하면서 점차 체계적인 분업으로 고착된다.(1권357/457)

매뉴팩처가 형성되는 또 다른 방식은, 같은 종류의 작업을 수행했던 수공업자들이 단일한 작업장에 모여서 작업 과정을 세분화한 다음에 각자에게 한 분야씩을 전문적으로 맡기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제지업자의 경우에 예전에는 혼자서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지만, 매뉴팩처에서는 20명의 수공업자가 작업 과정을 20가지로 분할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독립 수공업자의 ‘개인적 생산물’이었던 상품이 이제는 매뉴팩처에 근무하는 여러 수공업자들의 ‘사회적 생산물’이 된다.

### 3.3.2.4.2.3. 매뉴팩처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 요인

매뉴팩처에서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자들의 숙련도 증가와 노동 도구의 세분화에 대해 살펴보자.

### 3.3.2.4.2.3.1. 부분 노동자의 숙련도 증가

매뉴팩처에서는 부분적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다.

[매뉴팩처에서] 일생 동안 하나의 동일한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자기의 신체를 그 작업을 위한 자동적이고 일면화된 도구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 매뉴팩처의 살아 있는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적 노동자는 순전히 이와 같이 일면적으로 전문화된 부분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립적 수공업에 비해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이 생산된다. 다시 말해, 노동 생산성이 제고된다.(1권359/459)

매뉴팩처에서는 분업에 따른 작업의 세분화로 인해서 노동자는 부분적인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일면적인 노동자 즉 ‘부분 노동자’가 된다. 노동자는 부분적인 작업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래서 독립적 수공업자에 비해 더 높은 노동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매뉴팩처에서 근무하는 부분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증가함으로써 노동 생산성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의 세분화는 노동자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면적 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소외 문제를 낳는다. 세분화된 작업의 반복은 비록 숙련도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단조로운 노동으로 인해서 긴장감과 활기를 약화시키고 노동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뜨리게 된다.

### 3.3.2.4.2.3.2. 노동 도구의 세분화

매뉴팩처에서는 분업으로 인해 노동 도구가 세밀하게 발달하게 됨으로써 노동 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의 숙련뿐만 아니라 그의 도구의 질에도 달려 있다. [...] 매뉴팩처의 특징은 노동 도구의 분화와 특수화인데, 노동 도구의 분화에 의해 도구가 특수한 용도에 맞는 형태로 고정되며, 노동 도구의 특수화에 의해 각각의 특수한 도구들은 특수한 부분 노동자 의 손에서만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1권361/462)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 도구도 세분화됨으로써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세분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특수한 도구를 개발 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몇 가지 종류에 불과했던 망치가 매뉴팩처 단계에서는 수백 가지 종류로 특수화되어 세분화 된 작업에 사용된다. 이처럼 매뉴팩처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세분화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하여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 3.3.2.4.2.4. 매뉴팩처의 두 가지 형태

멀매뉴팩처의 편제 방식에는 두 가지 기본 형태, 즉 ‘이질적 매뉴팩처’와 ‘유기적 매뉴팩처’가 있다. 이 양자는 서로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이다.

#### 3.3.2.4.2.4.1. 이질적 매뉴팩처

매뉴팩처의 편제 방식들 중의 하나는 ‘이질적 매뉴팩처’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매뉴팩처의 이 두 형태는 생산되는 제품의 성질, 즉 그 제품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의 단순한 기계적 조립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또는 그 완성 형태가 상호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조작에 의해 주어지는가에 의해 발생한다. [...] 그러나 시계라면 [매뉴팩처의 첫 번째 종류의] 실례로 적합하다. [...] 시계는 다음과 같은 무수한 부분 노동자들의 사회적 산물로 전환되었다.(1권362/463)

매뉴팩처의 첫 번째 형태는 ‘이질적(異質的) 매뉴팩처’(die heterogene Manufaktur)이다. 이것은 서로 이질적인 부품을 독립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단순하게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계의 경우에, 태엽 제조공, 지침반 제조공, 나선형 용수철 제조공, 보석 구멍 뚫는 사람, 시계 바늘 제조공, 나사못 제조공 등 여러 노동자들에 의해서 개별 부품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시계가 조립된다.

### 3.3.2.4.2.4.2. 유기적 매뉴팩처

‘이질적 매뉴팩처’와 구분되는 또 다른 생산 방식으로는 ‘유기적 매뉴팩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매뉴팩처의 두 번째 종류, 즉 그것의 완성 형태는 서로 연관된 전후 단계들을 통과하는, 즉 일련의 과정들을 한 단계씩 차례차례 통과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예컨대 바늘 매뉴팩처에서 철사는 72명, 때로는 심지어 92명의 특수한 부분 노동자의 손을 통과한다.(1권364/465)

‘이질적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들이 각자 독립적인 부품을 생산하여 하나의 제품을 조립하였지만, ‘유기적(有機的) 매뉴팩처’(die organische Manufaktur)에서는 노동자들이 하나의 제품을 부분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제품이 여러 노동자들의 손을 차례대로 거쳐야만 한다. 즉 ‘유기적 매뉴팩처’는 독립적인 부품들의 조립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관 관계 속에 있는 연속적인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다. 예를 들면 철사는 여러 노동자들의 세분화된 작업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면서 하나의 바늘로 만들어진다.

### 3.3.2.4.2.5. 매뉴팩처에서 숙련공과 미숙련공의 분리

매뉴팩처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현상은 숙련공과 미숙련공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매뉴팩처는 그것이 장악하는 모든 업종에서 이른바 미숙련 노동자라는 하나의 부류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수공업은 그 성질상 이러한 부류를 엄격히 배제한다. 매뉴팩처가 인간의 전반적인 노동 능력의 희생 위에서 일면화된 전문성을 완벽한 경지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미숙련 노동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발전의 결여를 하나의 전문성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 등급제의 등급과 나란히 숙련공과 미숙련공이라는 단순한 구분이 나타난다.(1권371/473-4)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는 한 사람이 작업 과정 전체를 전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숙련된 노동이 요구되었다. 그렇지만 매뉴팩처의 집단적 노동에서는 작업의 세분화로 인해서 단순한 작업과 복잡한 작업, 저급의 작업과 고급의 작업이 구분된다. 전자는 교육이나 훈련을 적게 필요로 하며, 후자는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필요로 한다. 여기서 전자는 ‘미숙련공’의 작업이 되고, 후자는 ‘숙련공’의 작업이 된다. 미숙련공의 경우에는 교육비나 훈련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낮으며, 따라서 필요 노동 시간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 잉여가치는 증가하게 된다.

### 3.3.2.4.2.6. 분업의 구분

마르크스는 분업의 형태를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농업이나 공업과 같은 생산 부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분업’과 매뉴팩처에서처럼 하나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작업장 안의 분업’에 대해 살펴보자.

### 3.3.2.4.2.6.1. 사회적 분업

분업에는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사회적 분업’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 교환은 기준의 상이한 [생산] 영역들을 서로 관련시키면서 그리하여 그 상이한 영역들을 사회 전체의 총생산의 다소 상호 의존적인 부문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본래부터 상이하며 상호 독립적인 생산 영역들 사이의 교환으로부터 사회적 분업(die gesellschaftliche Teilung der Arbeit)이 발생한다.(1권372-3/476)

‘사회적 분업’(社會的 分業, die gesellschaftliche Teilung der Arbeit)이란 농업이나 공업처럼 서로 다른 생산 부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서로 다른 자연 환경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들은 서로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였으며, 그래서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생산물을 교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물의 교환을 매개로 서로 다른 공동체나 생산 부문들 사이에 상호 의존성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분업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와 농촌의 분리에 기반을 둔 공업과 농업의 분리가 사회적 분업의 중요한 역사적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인구의 크기와 밀도도 이러한 사회적 분업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대체로 한 사회의 인구의 크기와 밀도가 크면 클수록 사회적 분업도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 3.3.2.4.2.6.2. 작업장 안의 분업

사회적 분업과 구분되는 또 다른 분업 방식에는 ‘작업장 안의 분업’이 있다.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일반적 전제이므로,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사회 안의 분업이 이미 일정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거꾸로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사회적 분업에 반작용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며 증가시킨다.(1권374/477)

‘사회적 분업’이 여러 생산 부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업이라면, ‘작업장 안의 분업’은 하나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분업을 가리킨다. 이러한 ‘작업장 안의 분업’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매뉴팩처’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매뉴팩처는 하나의 작업장 안에서 분업에 의거한 협업을 바탕으로 생산물을 생산한다. 생산 과정은 여러 부분이나 단계로 분할되며, 이러한 부분적 작업은 여러 노동자들에게 전문적으로 분담된다. 이러한 작업장 안의 분업은 매뉴팩처에서뿐만 아니라 기계제 대공업에서도 주요한 생산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매뉴팩처는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뉴팩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이 사회 속에 확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분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사회적 분업은 작업장 안의 분업을 촉진시키는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매뉴팩처 안의 분업이 사회적 분업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하나의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진 분업의 부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분리되어 독립적인 산업으로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3.3.2.4.2.6.3.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의 차이점

앞에서 설명한 분업의 두 형태, 즉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다른 산업 부문들의 생산물의 매매에 의해 매개되고 있지만, 매뉴팩처 안의 여러 부분 노동들 사이의 관련은 여러 노동력이 동일한 자본가에게 판매되어 그에 의해 결합 노동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 매뉴팩처 안의 분업은 한 자본가의 수종에 생산 수단이 집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회 안의 분업은 서로 독립된 상품 생산자 사이로 생산 수단이 분산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1권376/480-1)

‘사회적 분업’과 ‘작업장 안의 분업’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분업은 여러 독립적인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서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작업장 안의 분업은 한 사람의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사회적 분업은 전체적인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사후적으로만 조절되지만, 작업장 안의 분업은 작업 과정 전체를 통제하는 자본가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되고 관리된다. 전자는 다양한 사회에서도 존재할 수 있지만, 후자는 자본주의에 특징적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사회적 분업의 무정부적 상태와 매뉴팩처적 분업의 독재 상태가 서로 모순을 이룬다고 보았다. 매뉴팩처에서는 계획적 생산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사회 전체는 무정부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과잉 생산과 같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3.3.2.4.2.7. 매뉴팩처에서 노동 소외

마르크스는 이러한 매뉴팩처가 생산성을 증가시켜주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외가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진정한 매뉴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 낸다.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뉴팩처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뉴팩처는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로 만든다.(1권381/486)

매뉴팩처가 발전하면 자본의 지휘와 규율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은 자율성을 상실하고 자본의 논리에 완전히 종속된다. 매뉴팩처가 발전하면 작업은 더욱 세분화되고 그 결과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특수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부분 노동자’로 전락하여 ‘기형적인 불구’가 된다. 노동 생산성을 높여 잉여가치를 최대화 하려는 자본의 논리에 종속된 노동자는,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이나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매뉴팩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은 한편으로는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의 진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더 문명화되고 세련된 착취의 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의 퇴보이기도 하다.

### 3.3.2.4.3. 기계제 대공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생산 방식은 분업과 매뉴팩처의 단계를 거쳐서 기계제 대공업의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 3.3.2.4.3.1. 기계를 통한 잉여가치의 증식

기계제 대공업은 생산 과정에 기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잉여가치를 급속하게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기계는 노동 생산성을 발전시키는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값을 싸게 하며,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부분을 단축시키며, 노동일 중 자본가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다른

부분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계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다.(1권391/499)

생산 과정에 도입된 기계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상품의 값을 낮추며, 이로 인해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도 단축됨으로써 잉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기계는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서 단순한 도구만을 사용하는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 대신에 본격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제 대공업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 3.3.2.4.3.2. ‘기계’ 개념

마르크스는 매뉴팩처가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하는 데는 노동 수단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기계’의 사용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 마르크스는 기계가 일반적인 생산 도구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기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완전히 발달한 기계(Maschinerie)는 어느 것이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부분, 즉 동력기, 전동 장치, 끝으로 도구 또는 작업기로 이루어진다.(1권393/501)

기계제 대공업에서 사용되는 ‘기계’(Maschinerie)와 매뉴팩처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구분할 수 있는 엄밀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대체적인 일반적 특징은 존재한다. 도구는 단순하지만 기계는 복잡하다는 설명이나, 또는 도구는 인력을 사용하지만 기계는 자연력을 사용한다는 설명은 부적

절하다. 도구와 구분되는 기계의 중요한 특징은 기계가 동력기, 전동 장치, 작업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3.3.2.4.3.2.1. 기계의 구성 부분

일반적인 기계의 구성 부분은 동력기, 전동 장치, 도구(작업기)이다.

완전히 발달한 기계는 어느 것이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 부분, 즉 동력기(Bewegungsmaschine), 전동 장치(Transmissionsmechanismus), 끝으로 도구(Werkzeugmaschine) 또는 작업기(Arbeitsmaschine)로 이루어진다.(1권393/501)

기계에서 ‘동력기’(動力機, Bewegungsmaschine)는 전체 메커니즘에서 동력을 만들어 제공하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증기기관, 열기관 등이 있다. 특히 와트(J. Watt)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동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동 장치’(轉動裝置, Transmissionsmechanismus)는 동력을 전달하고 조절하며 변형하는 장치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톱니바퀴, 축, 벨트 등이 속한다.

‘작업기’(作業機, Arbeitsmaschine)는 노동 대상을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키는 도구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망치, 톱, 드릴 등이 속한다. 기계제 대공업에서 사용되는 작업기는, 매뉴팩처 단계에서 사용되던 도구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도구가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기계 장치의 도구’ 즉 ‘기계적 도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차이가 있다. 기계제 대공업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계 장치에 부속된 기계적 도구가 되었다.

### 3.3.2.4.3.3. 기계제 생산 방식의 특징

기계를 사용하는 기계제 생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노동 대상이 일련의 상호 보완적인 각종 작업기에 의해 수행되는 서로 관련된 한 계열의 부분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계 체계가 개개의 독립적인 기계 대신에 등장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매뉴팩처에 특유한 협업, 즉 분업에 기초한 협업이 다시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는 이 협업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작업기들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 각각의 부분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고, 상이한 부분 과정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의 문제는 기계학, 화학 등의 응용에 의해 해결된다.(1권400/510-11)

어떤 상품이 상호 관련된 일련의 작업기를 통과하면서 생산될 때 기계제 생산 방식은 완성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기계제 생산에서는 노동자들의 분업보다는 작업기들의 분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따라서 노동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작업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매뉴팩처가 노동자의 노동 능력을 중심으로 한 분업이라면, 기계제 생산 방식은 기계의 작동을 중심으로 한 분업이다. 이러한 기계제 생산은 중앙 통제적인 전동장치를 지닌 작업기 편제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 3.3.2.4.3.3.1. 기계 도입의 한계 기준

자본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를 도입하지만 이러한 기계 도입을 제한시키는 조건들이 존재한다.

만약 기계를 생산물을 싸게 하는 수단으로만 본다면, 기계를 사용하는 한계는 기계 자체의 생산에 드는 노동이 기계의 사용에 의해 대체되는

노동보다 적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자본가가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그 이상의 한계가 있다. 자본가는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는 노동력의 가치만을 지불하므로, 자본가에 의한 기계 사용의 한계는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력의 가치 사이의 차이에 의해 설정된다.(1권414/526)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 기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생산물을 더 싸게 생산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이 기계가 대체하려는 노동력의 구입 비용보다 더 싸야 한다. 즉 기계의 가치와 기계가 대체하려는 노동력의 가치 중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더 적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계 도입의 한계 기준이 된다. 이러한 한계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자본가는 생산비를 절감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게 된다.

#### 3.3.2.4.3.4.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마르크스는 기계제 생산이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기계제 생산으로 인해 여성과 아동의 고용이 수월해져 추가적인 노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 시간이 연장되고, 노동의 강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 3.3.2.4.3.4.1. 여성과 아동의 고용 확대

생산 과정에 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여성과 아동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었다.

기계는, 근육의 힘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또는 육체적 발달은 미숙하지만 팔과 다리는 더욱 유연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여성 노동과 아동 노동은 자본가에 의한 기계 사용의 첫 번째 결과였다. 노동과 노동자를 대신하는 이

강력한 수단, 즉 기계는 즉시로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노동자 가족의 구성원 모두를 자본의 직접적 지배 아래 편입시킴으로써 임금 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되었다.(1권416/529)

생산 과정에 기계가 도입되면 육체적 힘이 약한 여성이나 아동도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계가 커다란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작업을 대체함으로써 예전에는 성인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작업을 이제는 여성이나 아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가는 기계의 도입으로 여성과 아동을 고용할 수 있게 되어 값싼 노동력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또한 가족의 생계 유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던 성인 남성의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좀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3.3.2.4.3.4.2. 노동 시간의 연장

기계제 생산 방식의 도입은 또한 자본가에게 노동 시간을 연장 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기계의 사용이 일종의 독점 상태에 있는 이 과도기 동안 이윤은 엄청나게 크며, 자본가는 이 ‘첫사랑의 시기’를 가능한 한 노동일을 연장함으로써 철저히 이용하려고 한다. 많은 이윤은 더 많은 이윤에 대한 갈망을 격화시킨다.(1권429/545)

기계가 산발적으로 사용된 산업 분야에서 기계를 처음 도입한 자본가는 사회적 평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잉여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독점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자본가는 일정한 과도기 동안에 커다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노동 시간을 연장하여 초과 이윤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처럼 기계제 생산은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 시간의 연장을 자극하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 3.3.2.4.3.4.3. 노동 강도의 강화

마르크스는 기계제 생산 방식이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고 보았다.

기계의 사용이 확대되고 기계 사용에 익숙해진 특수한 노동자 계급의 경험에 축적됨에 따라, 노동의 속도 따라서 노동의 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반세기 동안 노동일의 연장이 공장 노동의 강도의 증대와 병행해 진행되고 있었다.(1권431/549)

기계제 생산에서는 분업으로 인해 작업이 전문화, 단순화되고, 노동에 대한 통제도 좀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표준 노동일이 정착되면서 노동 시간의 연장을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이 어렵게 되자, 이제는 일정한 노동 시간 동안에 노동의 강도를 강화함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기계제 생산은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더불어 노동 강도의 강화를 수반하게 된다.

### 3.3.2.4.3.5. 기계를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식

기계제 대공업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식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계가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싸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싸게 하는 것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계가 처음에 아직 산발적으로 도입될 때에는, 기계 소유자에 의해 고용된 노동을 강화된 그리고 더 효율적인 노동으로 전환시키고 생산물의 개별 가치를 그것의 사회적 가치보다 싸게 함으로써, 자본가가 하

루의 생산물의 가치 중 더 작은 부분으로 하루의 노동력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의해서이다.(1권428-9/545)

기계제 생산 방식에서 상대적 잉여가치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형성된다. ① 남성 노동력보다 싼 여성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사용함으로써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는 필요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 ②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좀더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다. ③ 기계가 산발적으로 도입되는 분야에서 기계 소유자는 사회적 평균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잉여 가치’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 3.3.2.4.3.6. 기계제 대공업의 문제점

마르크스는 기계제 대공업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지니고 있지만 노동 소외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발생시킨다고 본다.

##### 3.3.2.4.3.6.1. 기계제 대공업에서 노동 소외

마르크스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기계제 대공업이 노동 소외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한다.

매뉴팩처와 수공업에서는 노동자가 도구를 사용하지만, 공장에서는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한다. 전자에서는 노동 수단의 운동이 노동자로부터 출발하지만, 후자에서는 노동자가 노동 수단의 운동을 뒤따라가야 한다.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들은 하나의 살아 있는 메커니즘의 구성원들이지만, 공장에서는 하나의 생명 없는 메커니즘이 노동자로부터 독립해 존재하며, 노동자는 살아 있는 부속물로 그것에 합체되어 있다.(1권445/567)

매뉴팩처에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도구를 사용하지만, 기계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중심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는 기계에 종속되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또한 대규모 공장에서는 병영에서와 같은 강한 규율이 적용된다. 작업 시간이나 작업 장소, 작업 방법 등이 세분화되어 노동자를 강하게 통제하며, 노동자는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기계제 대공업은 한편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 소외 문제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 3.3.2.4.3.6.2. 기계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

기계제 대공업의 도입은 또한 실업자 문제를 가중시키기도 한다.

노동 수단은 기계의 형태를 취하자마자 곧 노동자 자신의 경쟁자로 된다. 기계에 의한 자본의 가치 증식은 기계에 의해 생존 조건이 파괴당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 기계가 어떤 생산 분야를 점차적으로 장악할 경우, 그 기계와 경쟁하는 노동자들은 만성적 빈궁에 빠지게 된다.(1권454/577-8)

특정 생산 분야에 기계가 도입되면 거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기도 한다. 특히 새로운 기계는 전통적인 수공업이나 매뉴팩처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산업 혁명 초기에는 ‘기계 파괴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점차 기계를 공격하기보다는 이러한 기계를 잘못 이용하는 사회 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계가 실업자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다. 한 분야에서의 기계의 도입은 이러한 기계를 생산하는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생산 분야도 창

출하기 때문에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 제작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는 그 분야에서 발생한 실업자의 수보다 더 적은 편이다. 또 기계로 인해 새로운 산업 분야가 창출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분야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므로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 3.3.2.4.3.6.3.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

기계제 생산의 발전은 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공장 노동자 수가 증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공장에 투하된 총자본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급속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 수의 증가 과정은 산업 순환의 호황과 불황에 의해 규정된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노동자들을 잠재적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그들을 실제로 축출하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끊임없이 중단된다. [...]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흡수되고 축출되며 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산업 노동자들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숙련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1권477/608-9)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라 기계가 노동자를 작업장에서 축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장에 투하된 자본이 매우 클 때는 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용은 경기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불황기나 공황기에는 실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한다. 또 새로운 기술적 진보 때문에 축출되는 노동자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은 노동자를 때로는 고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다.

### 3.3.2.4.3.6.4. 기계제 대공업으로 인한 매뉴팩처의 붕괴

기계제 대공업의 발전은 전통적인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을 붕괴시키면서 주도적인 생산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공장 제도의 발전과 이에 수반하는 농업의 변혁에 따라, 다른 모든 공업 부문의 생산은 그 규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변한다. 기계제 생산의 원리는 [...] 어디에서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계는 매뉴팩처에 침입하여 때로는 이 부분 과정, 때로는 저 부분 과정에 적용된다. 이리하여 종래의 분업에 기초한 부분 과정들의 위계적 편제의 고정적 성격은 사라지고, 그 편제가 분해되어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1권485/618)

기계제 대공업은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매뉴팩처 생산 방식을 붕괴시킨다. 기계제 생산의 방식이 사회 전반에 확장되면서 매뉴팩처도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매뉴팩처의 생산 방식도 변화를 겪게 되어 기계제 생산 방식으로 이행하게 된다. 기존의 생산 방식을 고집하는 매뉴팩처는 기계제 대공업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고 도태된다. ‘단순한 협업’을 대체했던 ‘매뉴팩처’가 이제는 ‘기계제 대공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 3.3.2.4.3.7. 기계의 양면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계 또는 기계제 생산 방식은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노동자를 생활 수단으로부터 ‘유리’(遊離)시키는 것에 대해 기계 그 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그 이유는 그 모순과 적대 관계는 기계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계 그 자체는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며, 기계 그 자체는 노동을 경감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노동 강도를 높이며, [...] 기계 그 자체는 생산자의 부를 증대시키지만 자본주의적으로 사용되면 생산자를 빈민으로 만든다.(1권464-5/592-3)

기계의 도입이 노동자를 실업자로 만들거나, 노동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기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제도와 그것의 운영자들에게 있다. 왜냐하면 잉여가치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적 목적을 위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기계를 사용한다면, 기계는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감소시키고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 4. 자본

(독 : Kapital / 영 : capital)

### 4.1 자본의 형성 과정 화폐의 자본으로 전환

마르크스는 화폐와 자본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화폐가 어떻게 자본으로 전환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4.1.1. 자본 형성의 역사적 조건

마르크스는 자본이 형성되기 위한 역사적 또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상품 유통은 자본의 출발점이다. 상품 생산과 상품 유통, 그리고 상품 유통의 발달된 형태인 상업은 자본이 성립하기 위한 역사적 전제 조건을 이룬다. 16세기에 세계 무역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때부터 현대적인 자본의 역사가 시작된다.(1권161/189)

자본의 형태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자본은 처음에는 화폐의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상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이를 배경으로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6세기에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화폐가 더욱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 4.1.2. 자본과 화폐의 차이점

마르크스는 모든 화폐가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화폐와 자본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화폐로서의 화폐와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우선 양자의 유통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상품 유통의 직접적 형태는  $C-M-C$ 이다. 즉 상품의 화폐로 전환과 화폐의 상품으로 재전환, 다시 말해 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그러나 이 형태와 아울러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서  $M-C-M$ 을 발견하게 된다. 즉 화폐의 상품으로 전환과 상품의 화폐로 재전환, 다시 말해 판매를 위한 구매를 발견하게 된다. 후자의 형태로 유통하는 화폐는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이 되고, 그 기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자본이다.(1권161-2/190)

일반적인 상품 유통에서는 상품( $C$ )을 판매하여 화폐( $M$ )를 획득한 다음에 이렇게 획득된 화폐( $M$ )를 가지고 상품( $C$ )을 구매하게 된다. 이것은 ‘화폐로서의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이다. 이에 비

해 화폐(M)로 상품(C)을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획득된 상품(C)을 판매하여 화폐(M)를 얻는 과정도 있다. 이것은 ‘자본으로서의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단순한 화폐’가 상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통된다면, ‘자본으로서의 화폐’는 화폐의 획득을 목적으로 유통된다. 이런 점에서 ‘단순한 화폐’와 ‘자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게 된다.

#### 4.1.3. ‘자본’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의 중요한 특징을 잉여가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이라는] 이 과정의 완전한 형태는  $M-C-M'$ 이다. 여기서  $M' = M + \Delta M$ 이다. 다시 말해  $M'$ 는 최초에 투하한 화폐액에 어떤 증가분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증가분, 즉 최초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나는 잉여가치(surplus-value)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최초에 투하한 가치는 유통 중에 자신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량을 증대시키고 잉여가치를 첨가한다. 바꾸어 말해, 자기의 가치를 증식시킨다. 그리고 바로 이 운동이 이 가치를 자본(Kapital)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1권165/195)

자본으로서 화폐의 유통은  $M(\text{화폐}) - C(\text{자본}) - M(\text{화폐})$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운동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려면 나중의  $M$ 이 처음의  $M$ 보다 더 커서 ‘잉여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즉 처음의  $M$ 에 잉여가치( $\Delta M$ )가 추가되어  $M'$ 가 되어야 한다. ‘화폐로서의 자본’이 유통의 과정에서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켜 잉여가치를 확보하게 되면, 이제 ‘단순한 화폐’는 ‘자본’으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의 일반 공식’은

$M-C-M'$ 가 된다. 이처럼 ‘자본’(資本, Kapital, capital)이란 잉여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유통 과정에 투입된 화폐를 가리킨다.

자본의 운동인  $M-C-M'$ 는 더 비싼 값으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즉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인 자본뿐만 아니라 산업 자본, 대부 자본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의 운동 형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일반 공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 4.1.4.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

마르크스는 자본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보여주는 ‘자본의 일반 공식’이 다음과 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자본 유통의 과정인  $M-C-M'$ 에서]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즉 상품 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1권177-8/212-3)

상품의 구매와 판매에서 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면 여기서 잉여가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비등가물이 서로 교환된다면 하더라도 유통의 과정 전체를 본다면 여기서도 잉여가치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유통은 잉여가치를 획득하여  $M'$ 가 되어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의 일반 공식의 모순’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산업 자본’이야말로 이러한 자본 유통의 전형적 모습이며, 반면에 ‘상업 자본’이나 ‘대부 자본’은 이로부터 파생된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4.1.5. 자본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로서 자본가

이처럼 자본은 잉여가치의 획득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데, 이러한 운동의 의식적 담당자가 바로 자본가이다.

이 [자본]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der bewußte Träger*)로서 화폐 소유자는 자본가로 된다. 그의 몸, 또는 정확히 말해 그의 주머니는 화폐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다. 이러한 유통의 객관적 내용, 즉 가치의 증식은 그의 주관적 목적이 되고, 추상적 부를 점점 더 많이 취득하는 것이 그의 행동의 유일한 추진 동기로 되는 한, 그는 자본가로 즉 의지와 의식이 부여된 인격화된 자본으로 기능한다.(1권167-8/197)

자본은 가치를 증식시켜 잉여가치를 획득하려고 운동하는데, 이러한 운동의 의식적 담지자(擔持者)를 ‘자본가’(資本家, Kapitalist)라고 한다. 자본가는 자본을 유통 과정에 투하하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자본가의 최고 목표는 끊임없는 이윤 추구이다. 수전노와 자본가는 무한한 치부의 충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수전노가 화폐를 유통 과정에서 끌어내어 치부를 하는 데 비해, 자본가는 화폐를 끊임없이 유통에 투입하여 치부를 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는 차이점을 보인다.

#### 4.2. 자본의 축적 과정

마르크스는 자본의 축적 과정을 탐구하면서, 개별 자본이 재생산 과정을 통해 어떻게 축적되는지, 또 이러한 자본 축적이 노동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또한 자본의 최초의 축적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 4.2.1. 자본의 재생산 과정

마르크스는 개별 자본의 축적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의 재생산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생산 과정의 사회적 형태가 어떻든, 생산 과정은 연속적이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동일한 국면들을 끊임없이 통과해야 한다. 사회가 소비를 멈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을 멈출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적 생산 과정도, 그것을 연속된 전체로서, 끊임없는 간신의 흐름으로서 고찰할 때에는 동시에 재생산 과정(Reproduktionsprozeß)이다.(1권591/769)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이 단일한 과정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생산 과정은 다음의 생산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보았을 때 ‘생산 과정’은 동시에 ‘재생산 과정’(再生産過程, Reproduktionsprozeß)이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재생산에는 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재생산’과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확대 재생산’이 있다고 말한다.

#### 4.2.1.1. 단순 재생산

재생산의 방식들 중에는 생산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재생산’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다.

자본 가치의 주기적 증가분 또는 진행중인 자본의 주기적 열매인 잉여가치는 자본에서 생기는 수입의 형태를 취한다. 이 수입이 자본가에게 소비 재원으로서만 이용된다면, 기타의 조건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재생산(die einfache Reproduktion)이 일어난다. 단순 재생산은 이전과 같은 규모에서 생산 과정의 단순한 반복이다.(1권592/770)

‘단순 재생산’(單純再生産, die einfache Reproduktion)이란 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즉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한 생산 규모가 유지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가치를 재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비에 사용할 때 단순 재생산이 이루어진다. 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 중에서, 생산에 소비된 비용은 다시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지만 잉여가치는 재생산 과정에 투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의 규모는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 4.2.1.1. 생산 관계의 재생산

마르크스는 상품의 재생산 과정은 동시에 생산 관계의 재생산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하나의 연결된 전체 과정 즉 재생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품이나 잉여가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자본 관계 자체를, 즉 한편으로는 자본가를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노동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1권604/786-7)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이나 잉여가치를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생산 관계도 재생산한다. 생산물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는 재투자를 통해 생산 수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만을 임금의 형태로 받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구입할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물의 재생산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도 그대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 4.2.1.2. 확대 재생산

#### 4.2.1.2.1. ‘자본 축적’ 개념

마르크스는 ‘확대 재생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 축적’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Akkumulation)이라고 부른다.(1권605/788)

‘자본의 축적(蓄積, Akkumulation)’이란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잉여가치를 자본가가 개인적 소비에 지출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다시 투입하여 자본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자본의 축적은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여 불변 자본이나 가변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본의 규모가 증가하며 따라서 생산의 규모도 확대되는데, 이것을 ‘확대 재생산’이라고 한다.

#### 4.2.1.2.2. ‘확대 재생산’ 과정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을 통해 진행되는 ‘확대 재생산’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의 가치는 최초에는 화폐 형태로 투하되었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처음부터 총 생산물의 일정한 부분의 가치로 존재한다. 이 총 생산물이 판매되어 화폐로 전환되면, 자본 가치는 다시 최초의 형태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자본 가치와 잉여가치는 모두 화폐액이며, 그것들의 자본으로의 재전환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본가는 그것들을 모두 상품의 구매에 지출하는데, 이 상품은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 생산물의 생산을 확대된 규모로 다시 할 수 있게 한다.(1권606/789)

‘확대 재생산’(擴大再生産, die erweiterte Reproduktion)이란 자본의 축적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생산 규모가 확대된 형태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자본가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확보한 화폐 수입 중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데, 이것은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자본의 규모와 더불어 생산의 규모도 확대된다. 이처럼 확대 재생산은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4.2.1.2.3. 경쟁으로 인한 확대 재생산의 강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들 또는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며, 이로 인해 확대 재생산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가는 절대적 치부욕을 수전노와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전노의 경우에는 개인의 열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본가의 경우에는 사회적 메커니즘—여기서 자본가는 하나의 나사에 지나지 않는다—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한 사업에 투하되는 자본액을 끊임없이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며, 그리고 경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내재적 법칙을 외적인 강제 법칙으로 각 개별 자본가에게 강요한다.(1권618/807)

자본가(資本家)와 수전노(守錢奴)는 공통적으로 치부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수전노의 치부욕이 개인적인 욕구 때문이라면, 자본가의 치부욕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 생산 설비를 도입하게 되며, 따라서 다른 기업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경쟁

체제로 인해서 자본의 투자가 확대되고 그 결과 확대 재생산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화될수록 확대 재생산도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 4.2.1.2.4. 확대 재생산에서

##### 자본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

마르크스에 따르면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 4.2.1.2.4.1. 잉여가치의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 비율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잉여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의 장에서는 잉여가치 또는 잉여 생산물을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 재원으로만 고찰했고, 이 장에서는 이제까지 그것을 축적 재원으로만 고찰했다. 그러나 잉여가치는 전자만도 아니고 후자만도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겸한 것이다. 잉여가치의 일부는 자본가에 의해 수입(Revenue)으로 되고, 다른 부분은 자본(Kapital)으로 사용된다. 잉여가치의 양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 두 부분 중 하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부분은 그만큼 더 커진다.(1권617-8/805-6)

단순 재생산에서는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個人的消費)로 사용되며, 반면에 확대 재생산에서는 자본 축적(資本蓄積)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잉여가치는 이 양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소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자본 축적의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총량이 일정하다면 개인적 소비와 자본 축적 사이의 비율에 의해 확

대 재생산의 규모가 결정된다. 자본가의 개인적 소비가 적을수록 자본으로 축적되는 양은 더욱 크게 된다.

#### 4.2.1.2.4.2. 노동력의 착취도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또한 잉여가치율, 즉 노동력의 착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잉여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축적되는 자본의 크기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에 의존하는 것이 명백하다. [...] 잉여가치율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착취도에 의존한다. [...]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그러한 임금 삭감은 사실상 노동자의 필요 소비 재원을 자본의 축적 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1권625-6/817-8)

확대 재생산에서 자본의 축적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노동 착취도’(勞動搾取度)가 있다. 잉여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결국 총 잉여가치량이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에 의존하며 따라서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여 임금을 삭감할 경우에 이것은 잉여가치율의 상승을 통해서 결국 자본 축적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 4.2.1.2.4.3. 노동 생산성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노동 생산성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본 축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사회적 노동 생산성 수준이다.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따라 일정한 가치, 따라서 또한 일정한 크기의 잉여가치가 체화되어 있는 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 잉여가치율이 불변이라면, 또는 떨어지는 경우조차도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보

다 원만하게 떨어지는 한, 잉여 생산물은 증가한다. [...] 추가 자본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감소하는 경우에도 축적은 촉진 된다. 재생산 규모가 물질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도 추가 자본의 가치보다 더욱 급속하게 증대한다.(1권631/824-5)

확대 재생산에서 자본의 축적 규모는 노동 생산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잉여가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과 수입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자본 축적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설사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투자하는 자본의 가치가 감소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확대되어 이를 상쇄하기 때문에 자본 축적의 전체 규모는 증가한다.

#### 4.2.1.2.4.4.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의 차액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사용되는 자본’ 즉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과 실제로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본의 증대에 따라,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이 커진다. 다시 말해 [...] 건물, 기계, 배수관, 역축, 각종 장치와 같은 노동 수단의 가치량과 소재량은 증대하는데, 이 노동 수단들은 오직 점차적으로 마멸되고 따라서 그 가치를 조금씩 상실하며 그 가치를 조금씩 생산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1권635/829)

확대 재생산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의 차액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생산 수단의 구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이러한 생산 수단은 생산의 과정에서 조금씩 가치를 이전하면서 소비된다. 즉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규모는 매우 크지만, 그러나 실제로 가

치가 이전되면서 소비되는 자본의 규모는 매우 작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본 축적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 4.2.1.2.4.5. 투하 자본의 크기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또한 투하 자본의 크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노동력의 착취도가 일정할 경우에는 잉여가치량은 동시에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노동자의 수는 [...] 자본의 크기에 상응한다. 계속적인 축적에 의해 자본이 증대하면 할수록 소비재원과 축적 재원으로 분할되는 가치량도 증대한다. [...] 그리하여 결국 투하 자본량에 따라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생산의 모든 추진력이 그만큼 더 탄력적으로 작용한다.(1권635-6/830)

확대 재생산에서 자본 축적의 규모는 투하 자본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대체로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이 많을수록 노동자의 수도 많게 되며, 따라서 잉여가치량도 증가하게 된다. 즉 생산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잉여가치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재투자되는 자본 축적의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생산 과정에 투하되는 자본이 클수록, 잉여가치량도 증가하여 자본 축적과 확대 재생산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 4.2.2. 자본 축적이 노동 인구에 미치는 영향

마르크스는 확대 재생산 과정을 통해서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노동에 참여하는 인구수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

#### 4.2.2.1.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 증가

자본 축적으로 인해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 이것은 우선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자본의 증가는 그 가변적 구성분, 즉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증가를 포함한다. 추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의 일부는 끊임없이 가변 자본으로 [...] 재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고 또 자본의 구성도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활을 위한 재원은 분명히 자본에 비례해 증가하며, 자본의 증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도 그만큼 더 빨리 증가한다.(1권641/837)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성 비율이 불변이라면, 자본 축적이 증가할수록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자본 축적이 증가하면 생산 수단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생산 수단을 작동하는 노동력의 규모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본 축적은 생산의 규모를 확대시키므로 그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도 증가하게 된다.

#### 4.2.2.2. 자본 축적으로 인한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

자본 축적은 또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가변 자본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

어떤 생산 수단의 증대는 노동 생산성이 증가한 결과이고, 또 어떤 생산 수단의 증대는 노동 생산성이 증대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노동에 의해 움직이는 생산 수단의 양에 비한 노동량의 감소로, 즉 노동 과정의 객체적 요인에 비한 주체적 요인의 감소로 나타난다.(1권651/850)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 수단에 대한 재투자도 증가하며, 생산 수단이 증가하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기도 한다. 즉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생산 수단의 증가는 상호 작용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생산 수단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며, 이것은 생산 수단의 양에 대한 노동량의 상대적 감소로 나타난다. 이처럼 노동 생산성과 생산 수단의 증가로 인한 자본 축적은, 자본의 구성 비율에서 변화를 가져와 불변 자본을 증가시키고 가변 자본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킨다.

#### 4.2.2.3. 상대적 과잉 인구의 발생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으로 인해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 증가하는 축적과 집중이 자본 구성의 새로운 변동, 즉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인 감소의 원천으로 된다. [...]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력과 규모에 비례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 인구, 즉 자본의 평균적인 자기 증식 욕구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노동 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1권658/859-60)

자본 축적의 과정에서 불변 자본의 비율은 증가하고 반면에 가변 자본의 비율은 감소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로 노동력보다 더 많은 ‘상대적 과잉 인구’가 형성된다. 물론 자본의 축적으로 고용되는 노동력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자본은 유기적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좀더 싼 가격으로 노동력을 구입하기 위해서 항상 상대적 과잉 인구(相對的 過剩人口, die relative Übervölkering) 즉 실업자나 잠재적 실업자를 만들어 낸다.

#### 4.2.2.3.1. 상대적 과잉 인구로서 산업 예비군

마르크스는 이렇게 자본 축적으로 인해 발생한 ‘상대적 과잉 인구’를 ‘산업 예비군’이라고 부른다.

과잉 노동 인구는, 마치 자본이 자기의 비용으로 육성해 놓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 예비군(*die industrielle Reservearmee*)을 형성한다. 현실적 인구 증가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산업 예비군은 변동하는 자본의 가치 증식 욕구를 위해 언제나 착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인간 재료를 이룬다.(1권661/862)

‘상대적 과잉 인구’는 실업자 또는 잠재적 실업자로서 일종의 ‘산업 예비군’(産業豫備軍, *die industrielle Reservearmee*)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가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노동 인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산업 예비군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하고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산업 예비군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산업 예비군은 자본의 착취를 더욱 강화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2.2.3.2. 상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 형태

상대적 과잉 인구인 산업 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상대적 과잉 인구(*die relative Übervölkerung*)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각 노동자는 부분적으로 취업하고 있거나 전혀 취업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는 상대적 과잉 인구에 속한다. 산업 순환의 국면 교체에 의해 상대적 과잉 인구가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취하는 형태들,

예를 들면 공황시에는 급성의 형태, 불황시에는 만성의 형태를 제외하면, 과잉 인구는 언제나 세 가지 형태, 즉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 정체적 형태를 띠고 있다.(1권670/874-5)

‘상대적 과잉 인구’ 즉 산업 예비군은 유동적 형태, 잠재적 형태, 정체적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유동적 형태’(流動的 形態, die flüssige Form)는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해고와 고용이 자주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동일한 산업 분야나 작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잠재적 형태’(潛在的 形態, die latente Form)의 사례로는 농업 분야에서 자본화가 진척되면서 일자리를 빼앗긴 농민들이 도시의 프롤레타리아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체적 형태’(停滯的 形態, die stockende Form)는 불규칙적인 임시 고용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 4.2.3. 자본의 시초 축적

지금까지는 화폐로부터 전환된 개별 자본이 재생산 과정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개별 자본이 최초로 축적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 4.2.3.1. 자본의 ‘시초 축적’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이 최초로 축적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초 축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자본의 축적은 잉여가치를 전제하며, 잉여가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 생산자들의 수중에 상당한 양의 자본과 노동력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운동은 끝없는 순환 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데,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에 선행하는 시초 축적(die ursprüngliche Akkumulation,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이전의 축적’), 즉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출발점인 축적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1권741/979)

자본의 ‘시초 축적’(始初蓄積, die ursprüngliche Akkumulation) 또는 ‘원시적 축적’이란,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속에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자체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자본의 축적 과정을 가리킨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정착되려면 최초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러한 최초의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자본의 ‘시초 축적’이다.

#### 4.2.3.2. 자본의 시초 축적의 조건으로서 자본 관계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의 시초 축적이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 관계가 이전에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은 화폐, 생산 수단, 생활 수단의 소유자들인데, 그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액을 타인의 노동력의 매입에 의해 증식시키기를 갈망한다. 다른 한편은 자유로운 노동자, 자기 자신의 노동력의 판매자, 따라서 노동의 판매자들이다. [...] 상품 시장의 이와 같은 양극 분화와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 조건들이 주어진다. [...] 이른바 시초 축적은 생산자와 생산 수단 사이의 역사적인 분리 과정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1권742/981)

자본의 시초 축적을 위해서는 화폐나 상품이 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자본 관계 즉 자본과 임금 노동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면서 노동력을 구입하려는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소유하

지 못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려는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분리는 생산 수단과 생산자의 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리가 전제되어야 자본의 시초 축적이 가능하게 된다.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어야 한다.

#### 4.2.3.3. 시초 축적의 과정들

마르크스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자세하게 고찰하면서 자본의 시초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 4.2.3.3.1.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

자본의 시초 축적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봉건 영주에 의한 농민의 토지 수탈이다.

오히려 대봉건 영주 자신이 [...] 토지에 대한 동일한 봉건적 권리를 지니고 갖고 있었던 농민들을 그 토지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그리고 공유지를 횡령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 냈다. 이 일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준 것은 특히 플랑드르의 양모 매뉴팩처의 번영과 그에 따르는 영국의 양모 가격의 등귀였다. [...] 경작지의 목양지로의 전환. 이것이 그들의 구호로 되었다.(1권746/986)

봉건 영주들은 양모 산업이 발전하자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경작지를 목양지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동안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그 대신에 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즉 ‘엔클로저’(enclosure)를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축출되어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하였다. 그들은 토지라는 생산 수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가 된 것이다. 반면

에 봉건 영주들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양모를 생산하는 자본가로 변신하였다.

#### 4.2.3.3.2.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이 미친 영향

이러한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은 여러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자비한 폭력을 통해 수행된 교회 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근대적 사적 소유로의 전환, 이것들은 모두 시초 축적의 목적 방범이었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농업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으며, 토지를 자본에 결합시켰으며, 도시의 산업을 위해 그것에 필요한 무일푼의 자유로운 프롤레타리아를 공급하게 되었다.(1권760-1/1007-8)

봉건 영주들이 폭력이나 사기, 횡령 등을 통해 토지로부터 농민을 축출하고 공유지를 사유함으로써 ‘근대적 사적 소유’가 성립하였다. 이것은 자본의 ‘시초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축적된 부는 나중에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에서 축출된 농민들은 이제 농업이나 공업 분야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로 변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토지나 공장,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하는 ‘시초 축적’이 이루어진다.

#### 4.2.3.3.3.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들

자본의 시초 축적의 과정에서는 자본 축적을 가속화하기 위해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폭력적으로 토지를 수탈당하고 추방되어 부랑자로 된 농촌 주민들은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임금 인하를 위한] 법령들에 의해 채찍과 낙인과 고문을 받으면서 임금 노동의 제도에 필요한 규율을 얻게 되었다.(1권765/1013)

농민들은 ‘엔클로저 운동’ 등으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탈 당하면서 거지, 도둑, 부랑자로 전락하였는데, 정부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피의 입법’을 실시하였다. 유랑하는 농민들을 강제로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공장으로 보내면서 최소한의 임금 만을 받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적용시켰다. 자본주의 초기에 시행된 이러한 임금 인하 법령은 토지나 공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면서 자본의 ‘시초 축적’이 이루어졌다.

#### 4.2.3.3.4. 자본주의적 차지 농업가의 발생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과 더불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차지 농업가’도 등장하였다.

진정한 차지 농업가(Pächter)는 임금 노동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며, 잉여 생산물의 일부를 화폐 또는 현물로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한다.(1권771/1021)

농업 분야에서는 ‘차지 농업가’(借地農業家, Pächter)가 등장하면서 자본의 시초 축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차지 농업가’란 지주에게 땅을 임대한 다음에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대규모로 경작을 함으로써 자본을 증식시키는 농업가를 가리킨다. 농민으로부터 토지를 수탈함으로써 대토지 소유자들이 등장하였지만 이들이 자본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차지 농업가’들이 이러한 방식

으로 이윤을 확보하여 자본 증식을 하였다. 따라서 이것을 농업 분야의 시초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 4.2.3.3.5.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의 조성

농민으로부터 토지 수탈은 다른 한편으로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을 조성해 주기도 한다.

농촌 주민의 일부의 수탈과 추방은 산업 자본을 위해 노동자와 그들의 생활 수단 및 그들의 노동 재료를 유리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국내 시장을 창조한다. [...] 종전에 농민 가족은 생활 수단과 원료를 자신이 생산했으며 그리고 그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원료와 생활 수단이 상품으로 되었다.(1권775/1027)

농민들은 원래 대부분의 생활 수단을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였다. 그런데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축출되어 부랑자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함으로써 이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생활 수단을 상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농민을 축출시킨 농업 혁명은 산업 자본을 위한 국내 시장을 조성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로부터 농민의 축출은 산업 자본에게 임금 노동자를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것은 산업 자본의 시초 축적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 4.2.3.3.6. 산업 자본가의 발생

농민으로부터의 토지 수탈, 상업의 활성화, 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 이제 산업 자본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산업 자본가(der industrielle Kapitalist)의 발생은 차지 농업가의 발생처럼 그렇게 점차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의심할 바 없이

길드의 장인들과 그보다 더 많은 자립적 소규모 수공업자들 또는 임금 노동자들까지도 소자본가로 전환하고, 그리고 임금 노동의 착취를 더욱 확대해 자본의 축적을 강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자본가’로 전환되었다.(1권777/1031)

‘산업 자본가’(産業資本家, der industrielle Kapitalist)는 모든 산업의 자본가들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농업 자본가에 대비되는 ‘공업 자본가’의 의미로 사용된다. 길드의 장인이나 자립적 수공업자들이 소자본가로 전환하고 나아가 임금 착취를 강화하여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산업 자본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산업 자본의 ‘시초 축적’은 아메리카에서 금의 발견,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 흑인들의 노예화 등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착취와 약탈, 노예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자본의 시초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다.

#### 4.2.3.3.7. 대자본가의 형성

산업 자본가들은 점차 자본의 축적 규모를 가속화하여 대자본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의 내재적 법칙의 작용을 통해, 즉 자본의 집중을 통해 수행된다. 항상 한 자본가가 많은 자본가를 파멸시킨다. 이러한 집중, 즉 소수 자본가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병행하여 기타의 발전도 더욱더 대규모로 일어난다.(1권790/1049)

시초 축적을 통해 형성된 소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 축적은 생산 과정에서의 잉여가치의 증식을 통해서 또한 다른 자본가의 파산에 의한 자본 집중을 통해서 더욱

촉진된다. 그리하여 점차 소수의 대자본가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로 계급이 양분된다.

#### 4.2.3.3.8. 대자본의 문제점

시초 축적, 자본의 집적과 집중 등의 방법을 통해서 형성된 대자본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 전환 과정의 모든 이익을 가로채고 독점하는 대자본가의 수는 끊임없이 줄어들지만,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의 정도는 더욱더 증대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수가 계속 증가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메커니즘 그 자체에 의해 훈련되고 통일되며 조직되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반항도 또한 증대한다. [...] 생산 수단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외피와 양립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 외피는 파열된다.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조종이 올린다. 수탈자가 수탈 당한다.(1권790-1/1049-50)

자본은 집적과 집중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서 대자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자본의 형성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우선 대자본은 그 형성 과정에서 억압과 착취의 정도를 강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거대한 계급으로 성장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도 증가한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 사이의 모순은 특히 대자본이나 독점 자본에서 더욱 심화되면서 자본주의는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 4.3. 자본의 유통 과정

마르크스는 자본의 유통 과정, 즉 운동 과정을 크게 ‘자본의 순환’과 ‘자본의 회전’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이때 자본이 한 번 운동하

여 자신의 형태로 복귀하는 것을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며, 이러한 순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본의 회전’이라고 한다.

### 4.3.1. 자본의 순환

자본이 운동하면서 원래의 자신의 형태로 복귀하는 것을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Kapitals)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환의 형태에는 출발할 때의 자본의 형태에 따라 ‘화폐 자본의 순환’, ‘생산 자본의 순환’, ‘상품 자본의 순환’이 있다.

#### 4.3.1.1. 화폐 자본의 순환

##### 4.3.1.1.1. ‘화폐 자본의 순환’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의 일반적인 순환 과정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식화하면서, 이를 통해 화폐 자본의 순환 과정을 설명한다.

화폐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Geldkapitals)을 표시하는 공식은  $M-C-P-C'-M'$ 이다. 여기에서 점선은 유통 과정이 중단되는 것을 가리키며,  $C'$ 과  $M'$ 은 잉여가치에 의하여 증대된  $C$ 와  $M$ 을 의미한다.(2권31/29)

자본은 일반적인 순환 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계는  $M-C$ 인데, 자본가가 화폐( $M$ )로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같은 상품( $C$ )을 구매하는 유통 과정이다. 제2단계는  $P$ 인데, 이렇게 구매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결합시켜 새로운 상품을 제조하는 생산 과정이다. 제3단계는  $C' - M'$ 인데, 이렇게 생산된 상품 즉 잉여가치가 증식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과정이다. 여기서는 자본의 순환 과정이 화폐에서 시작하여 상품을 거쳐서 다시 화폐로 종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폐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Geldkapitals)이라고 한다.

#### 4.3.1.1.2. 화폐 자본의 순환 제1단계

마르크스는 이러한 화폐 자본의 순환 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제1단계는 구매의 단계로서 다음과 같다.

M-C는 일정한 화폐액이 일정액의 상품들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킨다. 구매자는 그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환시키며, 판매자들은 그들의 상품을 화폐로 전환시킨다. [...] 구매된 상품들은 생산 수단과 노동력인데, 그것들은 각각 상품 생산의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이다.(2권32/30)

화폐 자본의 순환에서 제1단계는 화폐(M)로 상품(C)을 구매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 요소인 생산 수단과 인적 요소인 노동력을 구매하기 위해서 화폐를 지출한다. 그래서 화폐 자본은 화폐에서 상품으로 그 형태를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제1단계를 거치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라는 주요 요소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 4.3.1.1.3. 화폐 자본의 순환 제2단계

화폐 자본이 순환하는 과정의 제2단계는 생산의 단계로서 다음과 같다.

생산 자본은 그 기능 과정에서 자기의 구성분을 소비하여 그것을 더욱 큰 가치의 생산물로 전환시킨다. 노동력은 자본의 한 기관으로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생산물 가치 중 그 구성 요소들의 가치를 능가하는 초과분, 즉 잉여 노동에 의해 생긴 것은 자본의 과실이다. 노동력의 잉여 노동은 자본을 위해 무료로 수행된 노동이며, 따라서 자본가를 위한 잉여가치, 즉 자본가가 어떠한 등가도 지불하지 않은 가치를 형성한다.(2권43/43)

화폐 자본의 순환에서 제2단계는 구매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결합시켜서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 과정이다. 이때 생산 수단은

자신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그대로 이전하지만, 반면에 노동력은 자신의 가치 그 이상을 산출하여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는데, 이것을 ‘잉여가치’라고 한다. 이처럼 화폐 자본은 순환의 제2단계인 생산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포함된 상품을 생산하게 된다.

#### 4.3.1.1.4. 화폐 자본의 순환 제3단계

화폐 자본이 순환하는 제3단계는 판매의 단계로서 다음과 같다.

$C'-M'$ 의 완수에 의하여 투하된 자본 가치는 잉여가치와 함께 실현된다. 이 양자는  $C'-M'$ 으로 표현되는 상품 총량의 일련의 판매나 동시적인 판매를 통하여 함께 실현된다.(2권47/48)

화폐 자본의 순환에서 제3단계는 생산물을 판매하여 화폐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생산 과정을 거친 생산물( $C'$ )에는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서 획득한 화폐 자본( $M'$ )은 처음의 화폐 자본( $M$ )보다 양적으로 더 크게 된다. 화폐 자본은 순환의 제3단계를 거치면서 화폐 형태로 잉여가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순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산업 자본은 유통 단계에서는 ‘화폐 자본’과 ‘상품 자본’의 형태를, 생산 단계에서는 ‘생산 자본’의 형태를 취하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

#### 4.3.1.2. 생산 자본의 순환

‘생산 자본의 순환’이란 자본의 순환이 생산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생산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produktiven Kapitals)은  $P \cdots C' - M' \cdots C \cdots P$ 라는 일반 공식을 가진다. 그것은 생산 자본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기능, 즉 재생산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 자본의 생산 과정

이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산 과정, 즉 잉여가치의 생산과 주기적 재생산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 자본의 형태에 있는 산업 자본의 기능은 한 번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따라서 새로운 시작은 출발점 자체에 의해 이미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2권69/70)

‘화폐 자본의 순환’이 화폐에서 출발하여 화폐로 종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생산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produktiven Kapitals)은 생산에서 출발하여 생산으로 종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 자본의 순환은 생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생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된 생산물(C')에는 새로운 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잉여가치의 증식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재생산 방식에는 생산 규모가 그대로 유지되는 ‘단순 재생산’과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확대 재생산’이 있다.

#### 4.3.1.3. 상품 자본의 순환

‘상품 자본의 순환’은 자본의 순환이 상품 단계에서 시작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상품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Warenkapitals)의 일반 공식은  $C' - M' - C \dots P \dots C'$ 이다. 여기에서  $C'$ 은 이전의 두 순환들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생산 수단의 일부가 적어도 순환 중의 다른 개별 자본의 상품 생산물인 한, 하나의 자본에 있어서  $M - C$ 인 것은 다른 자본에 대해서는  $C' - M'$ 인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2권91/97)

‘상품 자본의 순환’(der Kreislauf des Warenkapitals)은 상품에서 출발하여 상품으로 종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 수단과 노동력이라는 상품(C')을 투입하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생산 수단으로서 상품은 생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는 자본의 전체적인 순환 과정에서 이미 화폐 자본과 생산 자본의 형태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상품 자체의 순환은 화폐 자본과 생산 자본의 순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본의 순환 형태로서 화폐 자본, 생산 자본, 상품 자본은 서로를 전제로 하면서 또한 서로의 형태로 전환한다. 자본의 순환 과정은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생산 과정은 유통 과정을 매개하며, 유통 과정은 생산 과정을 매개한다. 따라서 자본 순환의 총과정은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순환 형태는 가치 증식을 통한 잉여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4.3.2. 자본의 회전

마르크스는 자본의 순환 운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본의 회전’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잉여가치량과 관련하여 고찰한다.

#### 4.3.2.1. ‘자본의 회전’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의 회전’ 개념을 ‘자본의 순환’ 개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의 순환을 개개의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주기적 과정이라고 파악할 때 그것은 자본의 회전(der Umschlag des Kapitals)이라고 불린다. 이 회전의 기간은 자본의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의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총 기간이 자본의 회전 기간을 이룬다. 따라서 그것은 총

자본가치의 한 순환 주기와 다음의 순환 주기 사이의 시간 간격을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일생에서의 주기성을, 또는 동일한 자본 가치의 증식 과정과 생산 과정의 간접 및 반복에 요구되는 기간을 표시하고 있다.(2권157/176)

‘자본의 회전(回轉)’(der Umschlag des Kapitals)이란 자본의 순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자본은 한 번의 순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순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본은 회전을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의 ‘회전 기간’은 자본의 순환 기간, 즉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을 합한 것인데, 이것은 자본이 최초의 형태로 복귀하는 데 걸린 기간으로 볼 수 있다.

#### 4.3.2.2. 자본의 회전수

자본의 회전수, 즉 자본이 1년 동안 회전하는 횟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전 기간의 측정 단위로서 년을  $U$ , 어느 특정 자본의 회전 기간을  $u$ , 그리고 그 자본의 회전수를  $n$ 이라고 한다면,  $n = U/u$ 이다.(2권157/176-7)

‘자본의 회전수’는 자본이 1년 동안에 회전하는 횟수를 가리킨다. 따라서 회전수는 1년을 자본의 회전 기간으로 나눈 것이다. 만약 어떤 자본의 회전 기간이 3개월이라면 그 자본은 1년 동안에 4번 회전하므로 회전수는 4가 된다. 만약 어떤 자본의 회전 기간이 18 개월이라면 1년 동안에  $12/18$ , 즉  $2/3$ 를 회전하게 되므로 회전수는  $2/3$ 가 된다.

### 4.3.2.3. 자본의 회전과 관련된 자본의 형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

마르크스는 자본의 회전 기간과 관련하여 자본을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으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4.3.2.3.1. 고정 자본

마르크스는 ‘불변 자본’ 중의 일부가 ‘고정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동 수단이 기능하는 전 기간에 걸쳐 그 가치의 일부는 생산되는 상품과는 무관하게 항상 생산 과정에 고정되어 있다. 이 특성 때문에 불변 자본의 이 부분은 고정 자본(das fixe Kapital)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생산 과정에 있는 투자 자본 중에서 고정 자본을 제외한 모든 소재적 구성분은 유동 자본(das flüssige Kapital)을 형성한다.(2권159/180)

자본의 회전과 관련해서 자본의 형태를 구분한다면 여기에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이 있다. ‘고정 자본’(固定資本, das fixe Kapital)은 노동 수단처럼 생산 과정에서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자본을 가리킨다.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 수단은 그 가치의 일부를 생산물로 이전시키지만 다른 부분은 일정한 회전 기간 동안 변함 없이 고정된 채로 있다. 예를 들면 일정한 회전 기간 동안에 원료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만 노동 수단으로서 기계는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 4.3.2.3.2. 유동 자본

이러한 ‘고정 자본’에 비해 회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유동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유동 자본(das flüssige Kapital)은 그것의 가치 전부를 생산물에 이전하며, 따라서 생산 과정을 중단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유동 자본은 생산물의 판매에 의하여 끊임없이 현물로 보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고정 자본은 가치의 일부(마멸분)만을 생산물에 이전하며, 이 마멸에도 불구하고 생산 과정에서 계속 기능한다.(2권183/207)

‘유동 자본’(流動資本, das flüssige Kapital)은 노동력이나 원료처럼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어 반복적으로 충전되는 유동적인 자본을 가리킨다. 자본의 회전 기간 동안에 고정 자본인 기계는 그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유동 자본인 노동력이나 원료는 반복적으로 소모되어 새롭게 충전된다. 따라서 고정 자본이 한 번 회전할 때 유동 자본은 대체로 수 회 또는 수십 회를 회전하게 된다. 고정 자본이 부분적으로 소비된다면, 유동 자본은 일시에 소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는 자본의 소비 방식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 4.3.2.3.3.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회전 기간의 차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은 회전 방식과 회전 기간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생산 자본의 고정적 구성 부분과 유동적 구성 부분은 그 회전 방식과 회전 기간이 서로 상이하며, 동일한 기업이 소유하는 고정 자본의 각종 구성 부분들도 그들의 수명과 재생산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상이한 회전 기간을 가지고 있다.(2권183/207)

노동 수단과 같은 고정 자본은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소모되기 때문에 자본의 회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반면에 노동력이나 원료와 같은 유동 자본은 일시적으로 소모되기

때문에 자본의 회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회전을 평균해야만 자본의 ‘총회전 기간’이 산출된다. 그리고 1년 동안 회전한 자본 가치는 유동 자본의 반복적 회전 때문에 투하 자본의 총가치보다 더 클 수 있다.

#### 4.3.2.4. 자본의 회전 기간의 구성 부분

마르크스는 자본의 회전 기간은 노동 기간을 포함하는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서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4.3.2.4.1. 노동 기간

자본의 회전 기간 중에서 ‘생산 기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노동 기간’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많든 적든 간에 다수의 연결된 노동일의 연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1노동일을 나는 노동 기간(Arbeitsperiode)이라고 부른다. 노동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노동자가 하루에 자기의 노동력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즉 하루에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 기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일정한 생산 부문에서 완성 생산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연결된 일정한 수의 노동 일을 의미한다.(2권233/264-5)

자본의 ‘회전 기간’(回轉期間, Umschlagszeit)을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은 ‘노동 기간’이다. ‘노동 기간’(勞動期間, Arbeitsperiode)이란 하나의 완성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의 합을 가리킨다. 이러한 노동 기간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 예를 들면 협업이나 분업, 기계의 도입 등으로 인해 노동 생

산성이 향상됨에 따라서 점차 단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은 대체로 노동 수단과 같은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노동 기간이 단축되면 자본의 회전 기간도 짧아지게 된다.

#### 4.3.2.4.2. 생산 기간

자본의 회전 기간은 크게 보면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생산 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경우에 투자 자본의 생산 기간(Produktionszeit)은 두 기간으로 구성된다. 즉 하나는 자본이 노동 과정에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존재 형태, 즉 미완성 생산물의 형태가 노동 과정에 있지 않고 자연 과정의 지배에 맡겨져 있는 기간이다. [...] 생산 기간은 노동 기간보다 더 길다. 생산 기간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생산물은 완성되고 성숙되며 따라서 생산 자본의 형태로부터 상품 자본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2권242/275)

‘생산 기간’(生産期間, Produktionszeit)은 노동 기간을 포함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는 노동이 직접 투입되는 ‘노동 기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직접적인 투입 없이 생산물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거나 숙성하는 기간도 있다. 예를 들면 포도주가 숙성하는 기간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생산 기간은 노동 기간보다 더 길다. ‘노동 기간 이외의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화학적 방법 등이 동원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의 회전 기간이 전체적으로 짧게 된다.

#### 4.3.2.4.3. 유통 기간

자본의 회전 기간은 크게 보면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유통 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

상이한 생산 부문에 투하된 상이한 자본들의 회전 기간, 따라서 또 자본이 투하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기간에 차이를 낼게 하는 모든 사정은 지금까지 고찰한 바에 의하면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차이, 노동 기간의 차이 등과 마찬가지로 생산 과정 자체 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자본의 회전 기간은 그것의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을 합한 것과 같다. 그렇게 때문에 유통 기간(Umlaufszeit)의 길이가 다르면 회전 기간의 길이가 다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2권251/286)

자본의 회전 기간은 노동 기간을 포함하는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을 합한 것과 같다. 회전 기간은 생산 과정 내부의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인 유통 기간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유통 기간’(流通期間, Umlaufszeit)이란 화폐를 지출하여 생산 수단이나 노동력을 구매하거나 또는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상품의 구매나 판매에 걸리는 이러한 유통 기간은 자본의 회전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 4.3.2.5. 자본의 회전 기간과 잉여가치량의 관계

이러한 자본의 회전 기간은 잉여가치량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자본의 회전 기간의 차이 때문에] 잉여가치의 자본화, 즉 축적에서도 필연적으로 차이가 생기며, 이에 따라 잉여가치율이 불변인 경우에도 1년간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에는 차이가 발생한다.(2권321/370)

생산 과정에 일정한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자본의 회전 기간이 짧을수록 잉여가치량은 증가하게 된다. 잉여가치율이 불변일 경우에, 자본이 회전할 때마다 일정한 잉여가치가 누적되며 따라서 그 회전수가 많을수록 1년 동안 누적되는 잉여가치의 총량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잉여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자본의 회전수를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주간, 야간 노동의 교대제를 통해 고정 자본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자본의 회전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한다.

#### 4.4.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

앞에서는 주로 개별적인 자본의 운동을 고찰해 왔는데, 이제 마르크스는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자본의 운동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

##### 4.4.1. ‘사회적 총자본’ 개념

개별 자본의 총합으로서 ‘사회적 총자본’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개별 자본의 순환들은 서로 엉키며 서로 전제가 되고 조건으로 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바로 이렇게 엉킴으로써 사회적 총자본(das gesellschaftliche Gesamtkapital)의 운동을 이룬다. 단순상품유통에서 한 상품의 변태 전체가 상품 세계 전체의 일련의 변태들의 한 고리로서 나타났듯이, 이제는 개별 자본의 변태가 사회적 자본의 일련의 변태들의 한 고리로서 나타난다.(2권353-4/414)

‘사회적 총자본’(社會的 總資本, das gesellschaftliche Gesamtkapital)이란 개별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개별 자본들의 총합을 가리킨다. 개별 자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운동하며 그리하여 상호 연관

된 총자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개별 자본은 독자적으로 운동한다기보다는 총자본의 한 부분으로서 운동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본의 재생산 과정이자 동시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의 재생산 과정이다.

#### 4.4.2. 사회적 생산의 두 부문

사회적 총자본의 운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생산 부문은 크게 두 부문, 즉 'I 부문'과 'II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총생산물, 따라서 또 사회의 총생산은 두 개의 큰 부문으로 분할될 수 있다. I. 생산 수단(Produktionsmittel), 즉 생산적 소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또는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띠는 상품들. II. 소비 수단(Konsumtionsmittel), 즉 자본가 계급과 노동 계급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는 상품들. 이 각 부문에 속하는 여러 생산 분야의 총체가 단일한 하나의 큰 생산 부문을 이룬다. 즉 하나는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을 이루며, 다른 하나는 소비 수단 생산 부문을 이룬다.(2권394/466)

사회적 생산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I 부문'은 '생산 수단의 생산 부문'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 수단이나 노동 대상을 생산한다. 'II 부문'은 '소비 수단의 생산 부문'으로서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필요한 소비 수단을 생산한다. 그런데 I 부문에서 생산된 생산 수단의 일부는 II 부문에서 생산된 소비 수단의 일부와 교환됨으로써 I 부문과 II 부문은 교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II 부문 내부에서도 생필품과 사치품의 생산 부문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각각의 사회적 생산 부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 5. 이윤

(독 : Profit / 영 : profit)

### 5.1. ‘이윤’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윤’ 개념을, ‘잉여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잉여가치가 총투하 자본의 산물이라고 생각될 때 잉여가치(Mehrwert)는 이윤(Profit)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인 것은 그것이 이윤을 얻기 위하여 투하되기 때문이며, 또는 이윤이 나오는 것은 일정한 가치액이 자본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된다. 이윤을  $p$ 로 표시하면, 공식  $C = c+v+s = k+s$ 는 공식  $C = k+p$ , 즉 상품 가치 = 비용 가격+이윤으로 전환된다.(3권46/39-40)

잉여가치를 노동력( $v$ )의 산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 $c$ )과 노동력( $v$ )의 구매에 들어간 총투하 자본( $k$ )의 산물로 보게 되면, 잉여가치는 ‘이윤’이 된다. 이 경우에 한 상품의 가치( $C$ )는 비용 가격( $k$ )과 이윤( $p$ )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윤’(利潤, Profit)이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총자본으로부터 산출된 잉여가치를 가리킨다.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잉여가치의 원천이 어디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자본에 대해 얼마만큼의 잉여가치 즉 이윤이 창출되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보다는 이윤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한다.

#### 5.1.1. 이윤 형태의 신비성

마르크스는 ‘이윤’의 형성 과정이 보여주고 있는 신비성을 ‘잉여가치’를 토대로 규명해 낸다.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대면하는 이윤은 잉여가치와 동일한 것인데, 이윤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 신비화된 형태일 따름이다. 비용 가격의 외관상의 형성에서는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차이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치 변화의 원천은 가변 자본 부문으로부터 총자본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없다. 한쪽 끝에서 노동력의 가격이 임금이라는 전형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반대쪽 끝에서는 잉여가치가 이윤이라는 전형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3권46/40)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자본가는 총투하 자본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잉여가치가 창출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잉여가치가 노동력에서 산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기서는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투하 자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잉여가치는 가변 자본이 아니라 총투하 자본에서 산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결과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변형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신비성을 띠게 된다. 이윤 형태는 자신의 원천을 신비하게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 5.2. 이윤율

### 5.2.1. ‘이윤율’ 개념

마르크스는 ‘이윤율’을 ‘잉여가치율’과 비교하면서 이윤율의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상품 가치가 그 비용 가격을 넘는 초과분, 즉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총노동량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지불 노동량을 넘는 초과분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는 어디로부터 발생하든, 총투하 자본을 넘는 초과분이다. 이 초과분은 총자본 C에 대하여  $s/C$ 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리하여 우리는 잉여가치율(die Rate des Mehrwert)  $s/v$  와 구별되는 이윤율(Profitrate)  $s/C = s/c+v$ 를 얻게 된다.(3권52/47)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생산 과정에 투입한 총자본을 초과하여 산출된 가치를 가리킨다. 그런데 ‘잉여가치율’(剩餘價值率, die Rate des Mehrwert)이 가변 자본(v)에 대한 잉여가치(s)의 비율을 의미하는 데 비해, ‘이윤율’(利潤率, Profitrate)은 가변 자본(v)과 불변 자본(c)을 합한 총투하 자본(C)에 대한 잉여가치(s) 또는 이윤의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가변 자본인 노동력에 대한 착취도를 나타내 준다면, 이윤율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총투하 자본이 산출하는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 준다.

### 5.2.2.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율을 중심으로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상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환하는 것으로부터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출되어야 하며, 그 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윤율이 역사적 출발점이다. 상대적으로 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은 조사되어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며, 그 반면에 이윤율, 그리고 잉여가치의 형태인 이윤은 눈에 보이는 표면의 현상이다.(3권53/47)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중에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잉여가치율이다.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이 전환된 것인데, 이때 잉여가치율은 이윤 즉 잉여가치의 원천이 노동력이라는 가변 자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율은 총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므로 표면적인 자본의 운동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잉여가치율은 총투하 자본을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서 가변 자본, 즉 노동력이 잉여가치의 원천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자본의 운동 모습을 보여준다.

### 5.2.3.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마르크스는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5.2.3.1. 자본의 회전 기간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자본의 회전 기간이다.

회전 기간의 단축, 또는 그것의 두 구성 부분인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 중의 하나의 단축이 어떻게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가는 이미 제2권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윤율은 생산된 잉여가치량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투하된 총자본 사이의 비율을 표현할 때로, 회전 기간(Umschlagszeit)의 어떠한 단축도 이윤율을 상승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3권80/80-81)

자본의 회전 기간(回轉期間, Umschlagszeit)은 생산 기간과 유통 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회전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획득하게 되는 잉여가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자본의 회전 기간의 단축으로 잉여가치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투하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량의 비율도 증가하게 되어 이윤율도 증가한다. 이처럼 자본의 회전 기간이 짧을수록 이윤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자본의 회전 기간을 최대로 단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

#### 5.2.3.2. 불변 자본의 효과적 사용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불변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여부이다.

가변 자본이 불변이어서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동일한 명목 임금으로 고용되고 있는 경우, 절대적 잉여가치의 증대 또는 잉여노동과 노동일의 연장은 불변 자본의 가치를 총자본과 가변 자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며 이에 따라 반드시 잉여가치량의 증대와 잉여가치율의 상승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이윤율을 증대시킨다.(3권87/88)

노동 시간이 연장되면, 공장 건물이나 기계와 같은 고정 자본의 가치는 좀더 짧은 회전 기간에 재생산되며, 이로 인해 일정한 이윤을 얻는 데 필요한 고정 자본의 투하 기간도 단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일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총투하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즉 노동 시간의 연장을 통해 불변 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고정 자본에 대한 투자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 시간을 더욱 연장하려고 한다.

### 5.3. 평균 이윤율

#### 5.3.1. ‘평균 이윤율’ 개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개별 자본의 이윤율은 점차 평균화되어 ‘평균 이윤율’이 형성된다고 본다.

상이한 생산 분야를 지배하는 이윤율들도 처음에는 매우 상이하다. 이 상이한 이윤율들은 경쟁에 의해 그 이윤율들의 평균인 일반적 이윤율(die allgemeine Profitrate)로 균등화된다. 이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그 유기적 구성이 어떠하든 간에— 귀속하는 이윤을 우리는 평균 이윤(Durchschnittsprofit)이라고 부른다.(3권167/185)

생산 분야에 따라 투하되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나 자본의 회전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윤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총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 동일한 이윤, 즉 ‘평균 이윤’(平均利潤, Durchschnittsprofit)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 이상 또는 이하로 팔리기도 하면서 각 부문의 이윤율이 서로 같게 되어 ‘일반적 이윤율’ 즉 ‘평균 이윤율’(平均利潤率, Durchschnittsprofitrate)이 형성된다. 이러한 ‘평균 이윤율’은 사회적 총자본에 의해 생산된 총잉여가치가 각 분야에 균등하게 분배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 5.3.2. 경쟁에 의한 평균 이윤율의 형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균 이윤율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자본 또는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다.

경쟁(Konkurrenz)이 우선 하나의 생산 분야에서 달성하는 것은 상품의 다양한 개별 가치로부터 단일의 시장 가치와 시장 가격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상이한 생산 분야들 사이에서 이윤율을 균등화시키는 생산 가격이 성립되는 것은 상이한 분야들 사이에서의 자본의 경쟁에 의한 것이다. 이 후자의 과정은 전자의 과정보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보다 높은 발전을 필요로 한다.(3권190/211)

어떤 생산 분야에서 특정한 상품이 하나의 시장 가치와 시장 가격을 갖게 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생산 분야에서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 것도 경쟁을 통해서이다. 자본은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자본은 이윤율이 낮은 분야를 떠나 이윤율이 높은 분야로 이동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을 통해 자본이 다양한 분야에 분배됨으

로써 점차 평균 이윤율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 이윤율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여 경쟁을 통해 자본이 수월하게 이동할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 5.3.3. 평균 이윤율의 규정 요인

마르크스는 이러한 평균 이윤율을 규정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일반적 이윤율은 다음의 두 요인에 의해 규정된다. (1) 각각의 생산 분야에서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따라서 각각의 분야에서의 상이한 이윤율. (2) 이 상이한 분야들에 대한 사회적 총자본의 분배. 즉 각각의 생산 분야에서 각각의 이윤율로 투하되고 있는 자본의 상대적 크기, 다시 말하면 사회적 총자본이 각각의 생산 분야에 투하되고 있는 상대적 비율.(3권172/191)

일반적 이윤율 즉 평균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규정된다. 하나는 개별 생산 분야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이다. 만약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다면 가변 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윤율도 낮게 된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총자본이 각각의 생산 분야에 어떤 비율로 투하되고 있는가이다. 만약 유기적 구성이 높은 분야에 총 자본이 많이 투하되어 있다면, 그 분야는 이윤율이 낮기 때문에 총자본의 평균 이윤율도 낮게 된다.

### 5.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이윤율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이 심화된다고 말한다.

#### 5.4.1.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 개념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따라서 그 변화가 그 사회의 총자본의 평균적 유기적 구성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면, 가변 자본에 대비한 불변 자본의 이러한 점차적 증가는— 잉여가치율 또는 자본의 노동 착취도가 불변이라면— 필연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의 점차적인 저하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달과 더불어 불변 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또 가동되는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 자본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하나의 법칙이다.(3권 222/252)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발달하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특별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 수단과 같은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로 인해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력 즉 가변 자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이윤율, 즉 총투자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도 감소한다. 이처럼 ‘이윤율의 저하 경향 법칙’(das Gesetz des tendenziellen Falls der Profitrate)이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으로써 평균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 5.4.2. 자본 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과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이윤율의 저하와 축적의 가속화는, 두 개 모두가 생산력의 발달을 표현하고 있는 한, 동일한 과정의 상이한 표현에 불과하다. 축적에 따라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집적되면서 자본의 구성이 고도화되는 한에서는, 축적은 이번에는 이윤율의 저하를 촉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 이윤율의 저하는 또한 자본의 집적을 촉진하며, 그리고 소자본가들의 수탈과 최후로 남은 직접적 생산자들의 수탈을 통하여— 그들에게 아직도 수탈당 할 것이 남아 있다면— 자본의 집중을 촉진한다.(3권251/287-8)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 이윤율의 저하와 축적의 가속화가 동시에 발생한다. 자본의 축적 과정을 통해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그 결과 이윤율은 저하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윤율이 저하되면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 규모의 확대 즉 자본의 축적을 추진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 축적과 이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 5.4.3.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잉여가치량의 관계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반드시 잉여가치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진전에 따라, 한편에서는 이윤율의 점진적 저하 경향으로 표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취득되는 잉여가치(또는 이윤)의 절대량의 끊임없는 증대로 표현된다. 따라서 대체로 보아 가변 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감소는 이 두 개의 절대적 증가와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효과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총자본의 증가가 이윤율의 저하보다 더욱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3권233/265)

사회적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 이윤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잉여가치량 또는 이윤량도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총투자 자본의 증가 속도가 이윤율의 저하 경

향보다 더 빠르다면, 비록 총투자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상대적 양은 감소하더라도 잉여가치의 절대적 양은 증가하게 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 증가와 그로 인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비록 이윤율을 저하시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총잉여가치량 즉 총이윤량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5.4.4.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자본주의의 발달과 생산 수단에 대한 투자 증가는 대체적으로 평균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경향’(傾向, Tendenz)인 이유는 평균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한다.

##### 5.4.4.1. 노동 착취도의 증대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로 ‘노동 착취도의 증대’를 언급한다.

노동의 착취도,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취득은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 의해서 증대될 수 있다. [...] 노동 강화의 계기들 중에는 가변 자본에 대비한 불변 자본의 증가, 이리하여 이윤율의 저하를 내포하는 것들이 많은데, 예컨대 한 노동자가 보다 많은 수의 기계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 잉여가치율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 원인들이 또한 총자본 사용액이 주어져 있다면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내포할 수 있다.(3권242/276)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노동 착취도의 증가’이다. 노동일 즉 노동 시간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를 통해서 잉여가치율, 즉 노동 착취도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잉여가치량도 증가하여 이윤율은 증가한다. 그렇지만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더 많은 기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불변 자본의 증가로 인해서 이윤율이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노동 착취도 즉 잉여가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때로는 잉여가치량의 감소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 5.4.4.2.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저임금’을 지적한다.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의 인하는 여기에서 다만 경험적 사실로서만 지적하여 둔다. 왜냐하면 이 점은 상쇄 요인으로 나열될 수 있는 기타의 많은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일반적 분석과는 관련이 없으며 경쟁의 서술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이윤율 저하 경향을 저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3권245/279-280)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는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임금을 인하시키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총투하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러한 측면이 자본의 운동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 하나의 경험적 사실로서만 언급할 뿐이지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 5.4.4.3.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불변 자본의 저렴화’를 언급한다.

가변 자본에 비하여 불변 자본의 양을 증대시키는 바로 그 발전이, 노동 생산력의 증대에 의하여 불변 자본 요소들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 어떤 경우에는 불변 자본 요소들의 양은 증가하면서도 그것들의 총가치는 불변이든지 심지어는 감소하기도 한다.(3권246/280)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이다. 불변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로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결과 생산 수단과 같은 불변 자본의 개별적 가치가 저렴하게 된다. 그래서 불변 자본의 물질적 양은 증가하지만 그것의 가치량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변 자본에 대한 불변 자본의 비율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이윤율은 증가할 수 있다. 즉 불변 자본 요소들의 저렴화로 총투하자본량이 감소하면 이윤율은 증가하게 된다.

#### 5.4.4.4. 상대적 과잉 인구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상대적 과잉 인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 인구(die relative Überbevölkerung), 즉 다른 생산 분야들에서의 불변 자본의 우세 때문에 발생하는 과잉 인구에 기초를 두는 새로운 생산 분야들, 특히 사치적 소비를 위한 분야들이 개설되는데, 이 분야들은 살아 있는 노동이라는 요소의 우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만 다른 생산 분야들과 동일한 경로를 밟는다.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가변 자본은 총자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금은 평균 이하이므로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은 매우 높다.(3권246-7/281)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상대적 과잉 인구’(相對的 過剩人口, die relative Überbevölkerung)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상대적 과잉 인구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임금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 과잉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산업 분야, 특히 가변 자본의 비율이 높은 산업 분야는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율이 높아진다. 이처럼 상대적 과잉 인구로 인해 임금이 저렴하게 되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 5.4.4.5. 대외 무역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 중에는 ‘대외 무역’이 있다.

대외 무역(der auswärtige Handel)이 불변 자본 요소들과 생활 필수품(가변 자본이 이것으로 전환된다)을 저렴하게 하는 한에서는, 대외 무역은 잉여가치율의 증대와 불변 자본의 가치 인하를 통하여 이윤율의 상승에 공헌한다. 또한 대외 무역은 생산 규모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한, 대체로 이윤율의 상승에 공헌한다.(3권247/282)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는 ‘대외 무역’(對外貿易, der auswärtige Handel)이다. 대외 무역으로 인해 원료나 생필품의 가격이 저하되면 잉여가치율은 상승하게 된다. 또한 대외 무역으로 생산 규모가 확장되면 이윤율은 상승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생산 규모의 확대는 불변 자본에 대한 가변 자본의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처럼 대외 무역은 이윤율을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소시키기도 하는 등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 5.5. 이윤율의 저하와 관련된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하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등 여러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 5.5.1. 이윤율의 저하에 따른 문제들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비판한다.

총자본의 가치 증식률, 즉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박차이기 때문에(자본의 가치 증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저하는 새로운 독립적인 자본의 형성을 완만하게 하며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발달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윤율의 저하는 과잉 생산과 투기 및 공황을 촉진하며, 과잉 인구와 과잉 자본의 병존을 야기한다.(3권251-2/288)

자본의 이윤율이 저하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의 최고 목표는 이윤의 획득인데, 이렇게 이윤율이 저하되면 이윤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자본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이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이윤율이 저하되면 기존의 자본가들은 총잉여가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데, 이로 인해 과잉 생산이 발생하여 공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생산 규모의 확대는 대체로 불변 자본에 대한 가변 자본의 비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생산 규모에 비해 소비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 5.5.2.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내재하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윤율의 저하에 있어 그들의 공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한계(이 한계는 부의 생산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에 봉착한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독특한 한계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제한성,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 생산 양식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에서는 부의 지속적 발전과 충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3권252/288)

이윤율의 저하는 새로운 자본 투자의 위축이나 과잉 생산과 이로 인한 공황의 문제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생산력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도적인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이행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윤율의 저하와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장애가 됨을 보여준다.

### 5.5.3. 잉여가치의 생산 조건과 실현 조건의 모순

자본가는 이윤율의 저하를 만회하면서 더 많은 잉여가치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잉여가치의 생산 조건과 잉여가치의 실현 조건 사이에 모순이 심화되기도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부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해결을 구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소비 관계가 입각하고 있는 좁은 기초와 더욱더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적인 토대 위에서는 자본의 과잉이 증대하는 인구의 과잉과 공존한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잉 자본과 과잉 인구를 결합한다면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증대할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이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조건들과 그것이 실현되는 조건들 사이의 모순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3권255/291-2)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내적 모순은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이다. 생산은 광범위한 사회적 분업을 바탕으로 고도의 생산력을 달성하지만, 소유는 사적 소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력의 발달에 비해 소비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된다. 특히 과잉 자본과 과잉 인구로 인해서 잉여가치량의 생산은 증대하지만 소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잉여 가치가 화폐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즉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으로 인해서 잉여가치의 생산 조건과 실현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모순 상태에 빠지게 된다.

#### 5.5.4.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황의 발생

자본가는 이윤율의 저하를 만회하면서 더 많은 잉여가치량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게 되는데, 그 결과 과잉 생산으로 인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는 상반되는 요인들의 충돌은 공황(Krise)에서 출로를 찾는다. 공황은 항상 기존의 모순들의 일시적 폭력적 해결에 지나지 않으며, 교란된 균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폭발에 지나지 않는다.(3권259/296-7)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모순이 심화되면 이것은 공황(恐慌, Krise)의 형태로 폭발한다. 자본은 자신의 목표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들 동원하는데, 이때 동원되는 수단들로 인해 이윤율의 저하, 소비력의 위축, 과잉 생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오히려 이윤 확보가 어렵게 된다. 즉 자본이 추구하는 이윤 극대화와 그 방법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황의 발생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들은 더욱 큰 규모로 확대 재생산된다.

## 5.6. 이윤의 분할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이윤’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자본, 특히 산업 자본의 이윤으로 간주되었다. 자본은 순환 과정에서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단일한 자본, 특히 산업 자본이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유통 분야만을 담당하는 상업 자본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이윤 일반에서 ‘상업 이윤’이 분할되거나 또는 화폐 자본과 관련된 ‘이자’가 분할되는 등 이윤이 여러 분야로 분할되기 시작한다.

### 5.6.1. 산업 자본의 이윤

마르크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윤’ 또는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이러한 생산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이윤은 기본적으로 산업 자본의 몫이라고 간주한다.

산업 자본가가 구매하는 상품들이 판매용 상품으로서 시장에 다시 등장하기 전에, 그것들은 생산 과정을 통과하며 이 생산 과정에서 상품 가격 중 나중에 이윤으로 실현될 구성 부분이 비로소 생산된다.(3권294/340)

자본의 순환 과정 전체를 단일한 자본이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윤의 창출 과정을 설명할 때는, 그 자본을 대체로 ‘산업 자본’(産業資本, das industrielle Kapital)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이윤 즉 잉여가치가 생산 과정에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통 과정을 상업 자본이 분할하여 담당하게 되면, 산업 자본은 이제 생산 과정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자본은 자신이 얻은 이윤의 일부를 상업 자본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자본의 이윤은 전체 이윤에서 상업 자본의 이윤을 뺀 부분이 된다.

### 5.6.2. 상업 이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산업 자본에서 상업 자본이 분리되고 이와 더불어 산업 자본의 이윤으로부터 상업 이윤이 분리된다.

상업 자본(Kaufmannskapital)은 스스로는 어떠한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평균 이윤의 형태로 상업 자본에게 돌아가는 잉여가치는 생산 자본 전체에 의해 생산된 잉여가치의 일부라는 것은 명백하다.(3권293/339)

‘상업 자본’(商業資本, Kaufmannskapital)은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유통 과정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자본을 가리킨다. 잉여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에 의해서만 창출되므로,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상업 자본은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상업 자본은 단지 판매와 구매 행위를 통해서 상품의 교환과 이전을 매개할 따름이다. 따라서 ‘상업 이윤’(商業利潤, der kommerzielle Profit) 즉 상업 자본이 취득한 이윤은, 산업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산출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분할 받은 것에 불과하다. 상업 이윤의 원천은 산업 자본이 산출한 잉여가치인 것이다.

### 5.6.2.1. 상업 자본의 평균 이윤율

마르크스는 평균 이윤율의 법칙은 산업 자본뿐만 아니라 상업 자본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산업 자본의 유통 단계도 생산 단계와 마찬가지로 재생산 과정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각종의 생산 분야에서 기능하는 자본과 꼭 마찬가지로 연간 평균 이윤율을 얻어야만 한다. 상업 자본이 산업 자본보다 높은 평균 이윤을 얻는다면, 산업 자본의 일부는 상업 자본으로 전환할 것이고, 보다 낮은 평균 이윤을 얻는다면 그 반대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3권293/339)

자본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높은 이윤율을 추구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자본은 대체로 평균 이윤율을 얻게 된다. 이것은 상업 이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유통 과정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 과정은 자본의 순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 과정을 담당하는 상업 자본도 산업 자본과 동일한 이윤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산업 부문 사이의 자본의 이동을 통해 상업 자본도 산업 자본과 같은 평균 이윤율을 확보하게 된다.

### 5.6.3. 이자

마르크스는 대부 자본이 얻게 되는 ‘이자’도 실제로는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자(Zins)는 [...] 이윤(즉 잉여가치) 중에서 기능 자본가로서의 산업가 또는 상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자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인 한— 그 자본의 소유자이며 대부자인 사람에게 지불해야만 하는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 기능 자본가가 자기 자신의 자본만을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이윤의 분할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이윤은 자기 자신의 것으로 된다.(3권383/448)

‘이자’(利子, Zins)는 산업 자본가나 상인이 돈을 빌려준 화폐 자본가(貨幣資本家, Geldkapitalist) 또는 대부 자본가(貸附資本家, Leihkapitalist)에게 지불하는 화폐액이다. 이러한 이자는 산업 자본가나 상인이 취득한 자신의 이윤의 일부를 대부 자본가에게 분할해 준 것인지, 대부 자본 그 자체가 이러한 이윤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 이윤 즉 잉여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에 의해서만 창출된다. 따라서 대부 자본이 획득하게 되는 이자의 원천은 결국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 5.6.4. 지대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대’나 ‘차액 지대’도 실제로는 농업 분야의 생산 과정에서 산출된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지대(Rente)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차액 지대(Differentialrente)가 나타나며, 농업에서의 차액 지대와 동일한 법칙에 따른다. 자연력, 예를 들면 폭포, 풍부한 광산, 어장, 위치가 좋은 건축지

등은 독점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산업가에게 초과 이윤을 보증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땅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이 자연 대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초과 이윤을 기능 자본가로부터 지대의 형태로 탈취한다.(3권781/950)

‘지대’(地代, Grundrente)는 땅을 임대한 사람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화폐액이다. 이러한 지대는 농업 자본가가 취득한 자신의 이윤의 일부를 지주에게 분할해 준 것이지, 토지 그 자체가 이러한 이윤을 창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나 광산과 같은 좋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차액 지대’(差額地代, Differentialrente)도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일종의 초과 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 즉 잉여가치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에 의해서만 창출된다. 따라서 지대의 원천은 생산 과정에 투입된 농업 노동자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연구 문헌 |

#### [ 표준판본 ]

- Marx, K., *Das Kapital* I, Marx Engels Werke[MEW]  
23, Dietz Verlag, Berlin, 1985.
- \_\_\_\_\_, *Das Kapital* II, Marx Engels Werke[MEW]  
24, Dietz Verlag, 1985.
- \_\_\_\_\_, *Das Kapital* III, Marx Engels Werke[MEW]  
25, Dietz Verlag, 1985.

#### [ 한글 표준판본 ]

- Marx, K. 『자본론 제1권(상)』(제2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  
출판사, 2001.
- \_\_\_\_\_, 『자본론 제1권(하)』(제2개역판), 김수행 역, 비봉  
출판사, 2001.
- \_\_\_\_\_, 『자본론 제2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 \_\_\_\_\_, 『자본론 제3권(상)』,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 \_\_\_\_\_, 『자본론 제3권(하)』,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1989.

#### [ 영어판 ]

- Marx, K. / Engels, *Capital* I/II/III, Marx Engels Collected Works  
Vol.35/36/37, Progress Publishers, Soviet Union, 1975.

### [ 인터넷 텍스트 ]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의 독일어 표준판본 및 영어판의 텍스트가 게재되어 있음.

독일어 : [www.marxists.org/deutsch/archiv/marx-engels/index.htm](http://www.marxists.org/deutsch/archiv/marx-engels/index.htm)

영어 : [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cw/index.htm](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cw/index.htm)

### | 참고 문헌 |

김수행,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최종식, 『서양경제사론』, 서문당, 1978.

일월서각 편집부 편, 『신경제학 개론』, 일월서각, 1986.

녹두편집부 편, 『정치경제학 원론』, 녹두, 198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철학대사전』, 동녘, 1989.

가와카미 노리미치(川上則道), 『디지털 시대, 다시 읽는 자본론』,  
최종민 역, 당대, 2000.

Dobb, M. 외, 『공황론 입문』, 김성구 편역, 돌베개, 1983.

\_\_\_\_\_, 『자본주의 이행 논쟁』, 김대환 편역, 1984.

Hunt, E. K. 『경제사상사』, 김성구, 김양화 공역, 풀빛, 1982.

Marx, K., "Zur Kritik der Hegelschen Rechtsphilosophie.

Einleitung", MEW 1.

\_\_\_\_\_, / Engels, F., *Die Heilige Familie*, MEW 2.

\_\_\_\_\_, "Thesen über Feuerbach", MEW 3.

\_\_\_\_\_, / Engels, F.,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_\_\_\_\_, *Das Elend der Philosophie*, MEW 4.

\_\_\_\_\_, / Engels, F., *Manifest des Kommunistischen Partei*,  
MEW4.

- \_\_\_\_\_,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
- \_\_\_\_\_,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MEW 19.
- \_\_\_\_\_, *Ökonomisch-Philosophische Manuskripte(1844)*, MEW 40.
- Oizerman, T. I., 『맑스주의 철학 성립사』 (*The Making of the Marxist Philosophy*), 윤지현 역, 아침, 1988.
- Seligman, E. R. A., 『경제사관의 제문제』, 현대문화연구회 옮김, 한마당, 1979.
- Zagolow, N. A. 외, 『정치경제학 교과서』, 윤소영 편역, 1990.

## 손 철 성(孫澈星)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대진대, 한남대, 대림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국민대 교양학부 강의전담 교수,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리연구실 기획위원을 지냈다. 현재 경북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객원 연구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철학 분야 외국자료추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 『고전과 논리적 글 쓰기』,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 마르크스 ‘독일 이데 올로기’』, 『비판적 사회이론에서 유토피아의 문제』, 『탈전통적 개인주의와 자아 실현의 전망』, 『유토피아론은 과학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마르쿠제의 사상에서 상상력과 유토피아』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자유주의』 등이 있다.

## 『철학사상』 별책 제3권 제18호

---

발행일 2004년 6월 10일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E-mail: philinst@plaza.snu.ac.kr

전화: 02) 880-6223

팩스: 02) 874-0126

출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878-2117

---



9 788991 280175

ISBN 89-91280-17-X

94100